현대불교

제 767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4년 1월 20일(음력 12월 6일) 수요일(주간)





‘부처님 생애’를 읽자

조계종, 2년 작업 끝에 첫 종단본 발간… 관련자료 수록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큰 원력을 세우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삶의 여로가 곧 수행이요, 진리였다. 부처님 생애와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은 불교를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핵심적인 요건이며 삼보에 귀의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부처님의 삶에 관한 책들은 꾸준히 발행돼 왔다. <불소행찬(佛所行讚)><불본행집경(佛本行集經)>등의 한문 경전을 번역한 책이나 외국학자들이 쓴 저작물을 번역한 책이 주를 이루다가, 최근 들어 우리나라 학자와 스님들이 쓴 부처님 일대기가 다수 출판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책들은 개인 저작물이라는 점에서 보편적 입장을 대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저자의 역사적, 신화적 관점에 따라 부처님 일대기가 전혀 다르게 묘사돼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조계종은 종단 차원에서 부처님 생애를 조명키로 하고, 불타론(佛陀論) 관련 전공학자 7인을 편찬위원으로 위촉, 종단본 <부처님의 생애>(조계종출판사 刊)를 편찬했다. 한국불교사에서 통일된 ‘부처님 생애’가 편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 ‘부처님의 생애 편찬위원회’(위원장 정인)는 1월 14일 “2년 여 동안 10여 차례의 편찬회의와 두 차례의 워크숍 등 공동작업을 통해 <부처님의 생애>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인 스님(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을 비롯해 해주 스님(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김용표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박경준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조준호 고려대 철학과 연구교수, 유근자 동국대 예술대학 강사, 성재헌 동국대 역경원 역경위원 등 편찬위원들은 <부처님의 생애>에서 석가모니부처님의 탄생과 성장, 구도와 깨달음, 전법과 교화, 그리고 입적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기적으로 서술했다.

편찬위원들은 지나치게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은 가급적 피하고, 부처님의 삶을 감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평이한 문체로 본문을 기술했으며, 소설가 정찬주씨의 윤문 과정도 거쳤다. 편찬위원들은 또 한문불전은 물론 빨리본과 산스크리트본 등 다양한 원전을 참조했으며, 본문 곳곳에 부처님의 생애를 비쥬얼하게 표현한 간다라 ‘불전도(佛傳圖)’를 수록해 내용의 이해를 돕고 사실성을 부각시켰다.

특히, 이 책은 전공자들에게도 유익하도록 풍부하고 다양한 부록을 수록했다. 부처님 가계도(家系圖), 부처님 일생 연표와 함께 부처님 재세시 설법 장소, 부처님 재세시 강가강 유역, 부처님 안거 장소 등의 지도와 정보를 상세하게 게재해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부처님의 수행 교화 활동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기(佛紀) 산정 기준, 인도불교사 연표, 인명 지명 대조표(빨리본, 산스크리트본, 한문본)를 수록하는 한편 53장의 ‘불전도’에 대한 자세한 해설까지 곁들였다.

교육원 불학연구소 사무국장 보문 스님은 “검증된 학술적 내용을 바탕으로 한 종단본 <부처님의 생애>는 불교가 생소한 일반 독자에게는 부처님을 소개하는 교양서이면서 전공자들에게는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처님의 생애>는 조계종 표준 <금강경>과 마찬가지로 종단 산하 불교교양대학과 승가대학 교재로 사용될 예정이다. 표준 <금강경>이 10만 부 이상 판대된 만큼, 이 책은 그보다 훨씬 많이 보급될 전망이다.

김성우 기자

▶9 달라이라마 신년법회 ▶14 선지식-현각 스님 ▶17 문화-유심작품상 김초혜 등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불교 각 종단 대표들이 불교계의 사회적 대안 제시에 적극 나설 것을 서원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사회 통합·소통의 길에 앞장서자”

종단협, 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 14일 조계사서 봉행

불교지도자들이 모여 불법홍포와 국민화합을 기원하는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가 1월 14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주최로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서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를 비롯한 각 종단 대표들은 불교각계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발원했다.

법회는 조계사 주지 세민 스님의 개회사,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헌화를 시작으로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등 각 종단 대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정관계 인사들의 헌화가 진행됐다. 또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신년하례, 통알(通謁),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의 축원, 자승 스님의 법어,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의 기원사,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의 신년인사 등이 이어졌다.

자승 스님은 법어를 통해 “경인년 새해에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한 갈등에 불교계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관점에서 세상을 안락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과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도 사회화합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불자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주호영 특임장관, 박재완 청와대 수석 등의 축사가 이어진 가운데, 유인촌 문광부 장관은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화해·통합을 이루는데 불교계가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 정부도 일로영일(一勞永逸)의 자세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가 대중은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이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불법홍포와 국민화합을 한마음으로 기원하며 법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법회에는 자승 스님을 비롯한 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대표,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혜총 스님 등 각 종단 중진 스님, 유인촌 문광부 장관, 주호영 특임장관, 김진표 민주당 국회의원, 박재완 청와대 불자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아이티 돕기 교계 팔 걷어붙여

조계종·지구촌공생회 등 자비행

200년만의 최대 지진피해를 입은 아이티에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 각계가 자비행을 펼친다.

조계종 대변인 원담 스님(조계종 기획실장)은 1월 15일 아이티 대지진으로 인한 참사에 대해 애도 논평을 발표하고 긴급재해구호기금 5만불 등 구호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담 스님은 “아이티에서 발생한 진도 7.0 이상의 강진으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의 왕생극락을 기원한다”며 “아울러 부상을 당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의 쾌유를 기원하며, 아이티 국민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원담 스님은 이어 “조계종은 이번 지진 참사로 피해를 입은 아이티 국민들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이에 따라 종단 긴급재해구호기금 뿐만 아니라 범종단 차원의 모금운동을 펼치는 등 지속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불교 종단의 지원책과 함께 불교계 국제구호단체도 아이티 돕기에 발벗고 나섰다.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14일부터 아이티 지진피해 복구 긴급구호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구촌공생회는 모금된 금액을 UN지정기탁 등을 통해 아이티 현지에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월주 스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종교 사상, 이념을 넘어서 이뤄 져야 한다.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은 더 큰 희망을 만든다”며 불자들의 자비행을 당부했다.

한편, 1월 12일 대지진이 발생한 아이티는 현재 10여 만 명의 사망자와 300여 만 명 이재민이 발생하고 기간시설이 대부분 붕괴되는 등 국가 기능자체가 마비된 상태다.

모금계좌: 아름다운동행(농협 301-0029-6115-71), 지구촌공생회(기업은행 062-070908-01-011)

노덕현·박선주 기자

생명의 우물 5년 1000개 ‘결실’

지구촌공생회 캄보디아서 기념식 개최

지구촌공생회(Good Hands, 이사장 월주)가 2004년 11월부터 캄보디아에서 추진해온 ‘생명의 우물’ 사업이 5년 만에 1000개를 완공하는 결실을 맺었다. 월주 스님과 지구촌공생회 관계자 등 40여 명은 1월 10일부터 5일간 캄보디아를 방문해 기념식을 가졌다.

11일 캄보디아 앙고 제이군 다니면 지아심고등학교에서 열린 ‘생명의 우물 1000 완공식’ 행사에는 캄보디아 농촌개발부 체아 소파라 장관과 현지 주지사, 학생,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캄보디아 국왕은 소파라 장관을 통해 월주 스님에게 훈장을 수여했다.

지구촌공생회는 물 부족과 수인성 질환으로 영유아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2004년부터 캄포트·따께오주에 우물 사업을 진행했다. 늘 식수가 부족해 우기에는 빗물을 모아 활용하고, 건기에는 웅덩이에 고인 물을 마셔야 했다. 이렇듯 많은 질병의 위험에 노출됐던 캄보디아 사람들을 위해 지구촌공생회는 생명과 직결되는 사업을 펼쳐왔다.

우물 1개 완공 비용은 약 70만원. 많은 이들의 후원에 힘입어 1000개의 생명수가 제공됐다.

1000번째 ‘생명의 우물’ 후원 주인공으로 선정된 송명례 할머니(71)는 2009년 12월 전재산 1억 1000만원을 공생회에 희사해 부처님의 고향인 네팔 룸비니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 건립을 당부한 바 있다. 할머니는 ‘생명의 우물’ 사업에 관한 얘기를 듣고 70만 원을 보시해 1000번째 우물의 주인공이 된 것.

지구촌공생회는 올해도 우물 250여 개를 더 건설할 계획이며 아프리카·몽골 등에도 우물 사업을 늘려갈 방침이다. (02)455-9596 박선주 기자



업장소멸 법륜대(윤장대)안에

금강경 차곡차곡 !!!

지금 수미단 좌우 법륜대 안으로 금강경(1,080권)을 봉안하는데 줄이 연이어 지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석문의범과 전생록에 기록된 개개인의 금강경 묵은 빚을 해탈하기 위하여 사람마다 각각 다른 숫자로 복장하여 법륜대를 직접 돌리기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다고 한다.


실용신안특허의 기술

□ 제품명 : 순금천불봉안법륜대
□ 재 질 : 대한민국 상감청자
□ 높 이 110cm
□ 원통폭 45cm
□ 밑받침폭 30cm
□ 무 게 25kg

▶법륜대의 특징

1. 대한민국 수제명품으로 불교문화의 예술성이 뛰어난 우리나라 초유의 상감청자 법륜대로 탄생하였습니다.
2. 전기료 걱정 없이 에메랄드 빛이 나는 10w 전구 하나로 조명되어 법당 장엄은 물론 사찰경제 지킴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 도량에 따라 (관음, 지장, 약사여래 등) 천불 및 만불전 법륜대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 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社說

부처님 생애 알아야 불자다

많은 불자들이 '불교는 어려운 종교'라는 말을 하고 있다. 불자가 아닌 사람들은 불교를 난해한 철학을 바탕으로 한 종교 한문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힘든 종교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과연 그런가? 불교는 참으로 쉬운 종교다. 생활 자체가 불교이기 때문이다.

물론 어렵다는 선입견이 터무니없는 것도 아니다. 교리가 복잡한 것도 사실이고 수행 방법이 다양하고 수행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거기에 한자문화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상황도 틀리지 않다.

그렇다면 결론은 불자나 불자 아닌 사람들이 불교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데에 이른다. 어떤 길이 있을까? 부처님의 생애를 이해시키는 것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불교는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부처님 즉 석가모니에 의해 창시된 종교다. 그렇다면 불교의 교의 속에서 말하는 난해한 부처의 개념을 가르치기 전에 실재했던 '인간 붓다'를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불자의 기본 조건은 두 가지다. 첫째가 수계여부이고 둘째가 교조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아는 것이다. 부처님의 생애를 안다는 것은 불교라는 종교가 어떻게 형성되어 무엇을 가르치며 장구한 역사를 이어 왔는가를 아는 것이기도 하다. 부처님을 모르면서 불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서 그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번에 조계종이 펴낸 종단본 <부처님의 생애>가 부처님과 불교를 쉽게 이해시키고 생활불교를 이루어 가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

아이티 대재앙 남 일 아니다

연일 아이티 대지진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참혹한 현장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보고 있노라면 지옥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가난이 죄라는 생각도 떨칠 수 없고 첨단 문명을 달린다는 인류의 허상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굶주리며 한데 잠을 자야하는 아이티 국민들의 눈망울에 비치는 모든 것이 지옥도일 것이다.

세계인이 지원단을 파견하고 구호물자를 보내고 있지만 집을 잃고 치안질서가 무너져 버린 곳에서의 생활은 아무래도 불안 그 자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불자라면 아이티 관련 뉴스를 보면서 속으로 불보살님의 명호라도 지극히 불러야 할 일이다. 재앙 앞에 선 인간의 참혹상이 곧 나의 일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비의 마음을 내어 그들을 도울 길이 어떤 것인지 궁구해 봐야 할 것이다.

재난을 당할 때마다 늘 하는 말이지만 일체는 하나다.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어느 한 곳의 사건이 아니라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중생이 함께 당하고 함께 겪는 공업인 것이다.

조계종과 지구촌공생회 등이 이 공업을 나누는데 앞장선다는 소식이다. 긴급구호기금을 내고 모금 운동을 펼친다는 것이다. 불자들은 이 운동에 참여하길 바란다. 종단이나 단체가 하는 일이라고 하여 한 발 물러설 일이 아니다. 어제의 네가 오늘의 나라는 이치를 아는 불자라면 지금의 아이티 대재앙이 내일 내가 겪을 일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

불자 세상보기



이우상

소설가 · 동국대 문창과 겸임교수

탈북소녀의 '팔뚝'

지난 여름 중국 칭다오에서 탈북 소녀 2명을 만났다. 혜심이(가명, 21세), 미령이(가명, 21세)다. 혜심이는 이미 탈북 경력이 두 번이다. 조선족 교포 가정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그녀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혜심이는 첫 번 째 탈북 후 한 달만에 중국 공안에 잡혀 북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북으로 넘겨져 국가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비교적 너그러운 분위기 속에서 탈북 경로, 탈북을 도와 준 이가 있는가 등을 조사받았다. 그리고 조사를 끝내며 보위부 조사관이 당부했다고 한다. '앞으로 어디 가서든 붙잡히지 말고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해라.' 딸 같은 소녀에게 건네는 진심이었다.

해당 지역 관서(경찰서)로 신변이 넘겨지면서는 상황이 바뀌었다. 각목과 가죽채찍으로 반 죽도록 맞았다. 팔뚝에 남은 상처를 보여주며 혜심이는 씩씩하게 말했다. 보위부는 고급기관이고 세상 형편을 알기 때문에 위로해주었지만 말단 지역관서는 무지막지하다고. 전신에 피멍이 들었지만 속으론 다시 탈북해야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탈북해서 두만강 접경 지역에 있을 때는 북한에 있는 아버지와 전화 통화도 했다. 마을에 휴대폰을 몰래 가진 이가 딱 한 사람 있는데 약속된 날짜에 마을 뒷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중국과 통화가 됐다. 그러나 칭다오에 있는 지금은 통화를 할 수 없다. 아니 아예 연락하려고 하지 않는다. 궂은일을 마다않고 어렵게 돈을 벌어 아버지에게 보냈는데 술타령으로 탕진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남자 친구가 있냐고 물었더니, '그딴 거 일 없습네다. 남의 땅에서 힘들게 돈 벌어 남자에 게 빼앗기기 싫습네다'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꽃다운 스물 한 살 처녀의 결연한 각오가 내겐 서럽게 들렸다.

혜심이는 고향을 떠나온지 2년이 넘었지만 미령이는 탈북한 지 겨우 석 달밖에 되지 않아 말이 없고 경계심이 자욱하다. 묻는 말에 마지못해 대답할 뿐이다. 조국과 가족을 버리고 대책 없이 중국땅에 던져진 두려움을 수습하기에 벅차 보인다.

보호하고 있는 교포와 함께 두 소녀를 데리고 관광지 구경을 갔다. 거기서도 혜심이의 능력이 발휘되었다. 중국에서는 다른 물가에 비해 모든 입장료가 무척 비싸다. 혜심이는 입장권을 끊지 말고 몰래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즉 개구멍으로 몰래 잡입하자는 것이었다. 자기가 길을 안다는 것이다. 새로운 문화체험(?) 삼아 그녀의 안내에 따랐다. 절약한 입장료로 음식을 사먹으며 혜심이는 운동선수처럼 알통을 보이며 팔뚝 자랑을 했다. 굵고 튼튼한 팔뚝이다. 두들겨 맞은 상처 자국은 있지만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의지의 팔뚝이다. 북한에 있을 땐 피골이 상접해서 뼈가 앙상했는데 지금은 너무 잘 먹고 살아서 이렇게 통통하다고 과시한다. 그녀들을 도와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나그네는 푸짐한 음식을 대접하는 것으로 자괴감을 달랬다.

맘씨 좋은 교포의 도움으로 그럭저럭 살고 있지만 두 소녀는 돌아갈 곳이 없다. 북한으로는 죽어도 가기 싫고 한국은 너무나 멀고 아득한 추상이다. 한껏 멋을 부리고 천진난만을 마음껏 누려야할 나이에 그들은 애늙은이가 되어버렸다.

하늘의 달은 천 개의 강을 골고루 비추건만 그녀들을 비추는 달은 보이지 않는다. 남의 나라를 떠도는 영혼들이 얼마나 되는 지 통계도 없다. 분명한 것은 우리와 똑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조상을 가진 형제라는 것이다.

우리끼리 지지고 볶느라 낭비하는 경비와 에너지를 춥고 외롭게 살아가는 동포를 위해 써야 한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1월의 테마-새출발

"자꾸자꾸 듣고 싶은 말"

불경에 이런 이야기가 전한다. 옛날 인도 어느 왕국에 왕이 나이가 들어도 왕위를 이을 자식이 없어 걱정하던 차에 왕비가 임신을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고대하던 자식을 낳을 산일이 다가왔다. 그런데 아쉽게도 왕이 급한 볼 일이 있어서 왕국을 떠나지 않으면 안됐다. 왕은 왕비에게 출산을 하면 반드시 그 결과를 즉시 알려달라고 부탁하고 길을 떠났다. 산일이 되어 왕비는 그렇게 바라던 왕자를 생산했다. 왕비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바로 왕에게 사신을 파견했다. 왕에게 도착한 사신이 급히 왕을 뵙고 아뢰었다. "왕이시여 기뻐하십시오. 왕비께서 왕자를 생산하셨습니다. 경하드리옵나이다." 그러나 반가와 해야할 왕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사신은 다시 아뢰었다. "왕이시여! 왕자가 탄생하셨습니다. 경하드립니다." 그래도 왕이 아무런 반응이 없자 사신은 재삼, "왕이시여 왕비께서 왕자를 생산하셨습니다. 경하드립니다"라고 아뢰었으나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이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신하가 왕에게 물었다. "왕이시여 이 반가운 소식에 어째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까." 이에 비로소 왕이 말하시기를, "반가운 말은 자꾸 듣고 싶으니까."

왕에게 왕자가 탄생했다는 말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듣고 싶은 말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고대하던 왕자가 태어났다고 아뢰니, 더 듣고 싶어서 대답을 않고 있노라는 왕의 심중은 누구에게나 공감이 간다.

새해가 시작됐다. 올해에는 이런 자꾸 듣고 싶은 소식을 들을 수는 없을까. 요새 매스컴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은 정말 자꾸 듣고 싶지 않은 것들이 더 많다. 아이티 강진의 비참한 소식들, 국내에는 세종시를 둘러싼 갈등 소식, 한파 소식, 구제역 소식, 각종 범죄소식 등. 이런 오탁악세에서나 들릴법한 소식을 제발 듣지 않을 수는 없을까?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일체의 고난을 칠난(七難) 삼독(三毒) 이구양원(二求兩願)의 세 부류로 말하고 있다. 이 중에 물난리, 불난리, 바람, 강도, 감옥살이, 원수 도적을 만남, 악귀를 만남 등 몸으로 체험하는 이상의 일곱 가지를 칠난이라고 한다. 또한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음의 정신적인 고통을 삼독이라고 한다. 그리고 가정에서 누구나 바라는 바, 딸과 아들 자식을 갖고자 하는 바램을 이구양원이라 한다. 이런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을까. 경에서는 이런 고난에 빠졌을 때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항상 바른 생각으로 공경하고, 예배 공양하라"고 한다.

이를 사회에 적용하면, 일심 공경 예배 공양이라는 키워드(key words)를 얻을 수 있다. 개인과 사회와 국가 세계가 한 마음[一心]으로 나아간다면 다툼과 전쟁은 사라지고 어떤 고난이든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모두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어렵지만 상대를 배려하고 공경하는 것은 그보다는 쉬운 일이요, 상대를 공경하기는 어렵지만 상대가 필요한 것을 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는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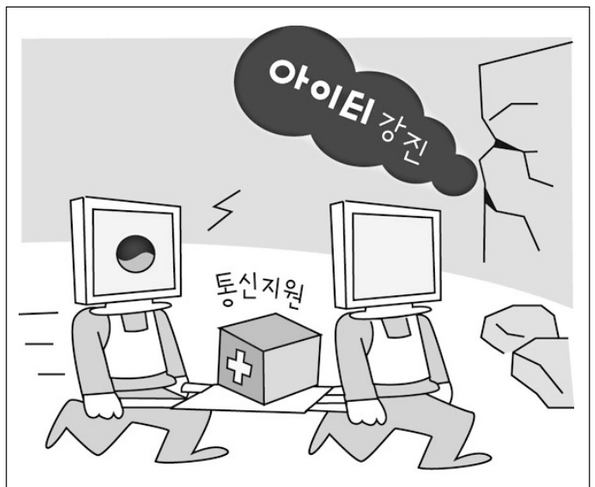
올해에는 불교계는 물론 사회 곳곳에서 자꾸 자꾸 들어도 반가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기를 고대해 본다.



이기운

연구교수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현불만평 박구원 IT강국에 맞게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강원지사 : (033)744-361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2010학년도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불교대학 · 대학원 신입생모집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에서는 2010학년도 불교대학·불교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동국대학교·중앙승가대학 등에서 강의하시는 스님과 교수님들을 모시고, 체계적으로 불교를 공부하여 수행과 실천을 하는 불자로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불교대학

※특전 – 조계종 종단에서 실시하는 포교사 고시 응시자격 부여(졸업생에 한함)
– 매학기 성적우수 및 신행봉사 관련 포상

교육과정(2년 4학기제)
1학년 1학기 : 불교의 이해, 불교사, 불교문화
2학기 : 아함경, 대승불교, 조계종사
2학년 1학기 : 금강경, 불교사회복지, 육조단경과 선사상성립
2학기 : 화엄경, 포교방법론, 불교 문화 특강
* 불교 문화 특강 (2학년2학기) – 동서문화의 교류, 불교와 환경, 불교와 사회, 웰다잉 등 中 택 2

모집분야 주간반 : 월·화 오전 10:30~ 12:30 / 모집정원 60명
야간반 : 월·화 오후 7:00 ~ 9:00 / 모집정원 60명
토요반 : 토요일 오후 3:00 ~ 6:00 / 모집정원 60명

입시요강 응시자격 : 조계종 사찰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 이수자 및 조계종 신도증 소지자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조계종 신도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기본교육 수료증 사본 1부

등록금 40만원(한 학기당) ※교재비 별도

불교대학원

교육과정(2년 4학기제)
1학기 : 선사상연구, 비교종교학
2학기 : 중관사상, 현대사상과 불교
3학기 : 유식학, 한국불교사상
4학기 : 법화사상, 불교원전강독

모집분야 주간반 : 월요일 오전 10:00 ~ 13:00 / 모집정원 40명
야간반 : 월요일 오후 7:00 ~ 10:00 / 모집정원 40명
토요반 : 토요일 오후 3:00 ~ 6:00 / 모집정원 40명

입시요강 응시자격 : 조계종 사찰 신도
조계종 1년제 이상 불교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일한 학력 이수자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조계종 신도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불교대학 졸업증 사본1부

등록금 45만원(한 학기당) ※교재비 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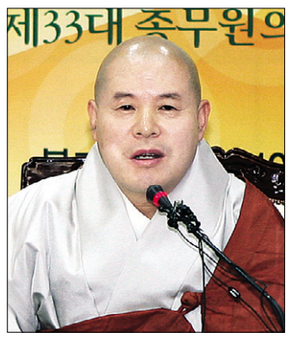
*할인혜택(대학·대학원 동일) : 가족할인 / 국가유공자 / 장애인(3급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고령자(65세이상, 1946년 이전 출생자) / 재입학자(포교원 인가 불교대학 졸업자)

원서배부 조계사 불교대학 건물 1층 및 조계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www.jogyesa.org) 면접 추후 공지 입학식 3월 7일(일) 오후 3시 개강일 주·야간-3월8일(월) / 토요일-3월 13일(토) 접수기간 2월 28일까지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교무국 전화 02)720-1390 팩스 02)720-1391

‘소통·화합’ ‘교육·포교’가 화두

조계종, 제33대 총무원 4개년 발전계획… 교육 개선 등 핵심과제 제시



“지금까지 조계종은 한국사회 갈등과 대립되는 문제에 내적인 해결에만 치중했습니다. 제33대 총무원은 사회갈등에 관심을 갖고 종단 외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새 해를 맞아 조계종 총무원이 4년간 ‘소통과 화합’ 그리고 ‘교육과 포교’를 통한 불교중흥에 매진할 것을 천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사진)은 1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사업계획을 비롯한 제33대 총무원의 4개년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4개년 발전계획은 △3대 종무기조 △11대 핵심과제 △25대 주요과제로 이뤄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승 스님은 △수행종풍 선양 △교육과 포교를 통한 불교중흥 △사회적 소통과 공동선 실현의 3대 종무기조를 설명하며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불교’의 발원하며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종단 안팎의 발전 기조를 이행하기 위한 교육, 재정, 사회, 포교 등 각 분야별 11대 핵심과제도 선정됐다. 11대 핵심과제는 △승가교육 개선 △신도교육 · 조직화 △수행법의 표준체계 정립 · 대중화 △종교간 협력 통한 공동선 실현 △사회갈등 해소 위한 화쟁위원회 구성 △수행 · 전법을 위한 승가복지 △불교문화콘텐츠 개발 · 활용 △국제포교네트워크 강화 △총본산 조계사에 전통문화 공간 조성 △국립공원 · 문화재구역입장료 제도 개선 △종단재정구조 합리화다.

이중 화쟁위원회는 불교계 각 NGO 전문가들로 구성돼 사회 현안에 대한 종단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또 조계사 사적 정비사업을 통해 지역문화시설과 연계한 사업도 추진된다.

세부적으로 25대 주요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해나감에 있어 매월 점검 ·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25대 주요과제에는 △결계포살의 정착 △주지 인사고과 시행 △종단발전위원회 구성 △자비나눔 확산 △불자네트워크화 △불교대안연구소 운영 △해외특별교구 설립 △국제선센터 개원 운영(재무부) △청년 대학생 계층포교 활성화 △군포교 역량 강화 △불교무형문화유산 육성 △사찰음식 대중화 △템플스테이 국제화 △불교미디어 활성화 지원 △환경보호 활동 및 사찰 수행환경 개선 △남북 불교교류 활성화 △불교규제법령 제 · 개정 추진 △종단 토지처분금 효과적 활용) △사찰등급 현실화를 통한 분담금 조정 △종단 재정의 다변화 △전산데이터베이스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25대 주요과제 중 올 하반기 직할교구에서 시범 도입되는 주지 인사고과제도는 포교, 사회복지 등을 평가해 인사에 반영해 활동을 장려한다는 취지다.

조계종은 이러한 방안에 따라 2010년 종도 합의 · 제도보완, 2011년 법령과 재원 마련에 치중하고 2013년까지 36개 과제를 실현해나갈 방침이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수요집회 900회 18년의 외침

도쿄 등 일본 5개 도시서도 연대 집회 열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열어온 ‘수요집회’가 1월 13일로 900회를 맞았다.

1992년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작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외침이 18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

이날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900회 집회에는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 4명을 비롯해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과 대학생 등 200여 명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라”고 외쳤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일제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만이 일본정부가 속죄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며 “우리가 죽은 후에는 아무리 속죄 받고 싶어도 우리는 아무 말을 해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요집회는 900회를 맞아 도쿄와 후쿠오카, 오사카, 나고야, 교토 등 일본 5개 도시에서도 집회가 열렸다.

박선주 기자

“사회에 눈돌려 부처님 말씀 실천”

조계종, 불교NGO 초청 간담회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불교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불교가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표했다.

1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열린 ‘불교시민사회단체 대표 초청 오찬’에는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본부장 명진 스님,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 법안 스님 등 15명의 대표자들이 참여했다.

자승 스님은 “그간 우리불교가 사회적 지위는 있지만 사회적 역할부분에서는 대중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이 자리를 시작으로 불교NGO단체와 종단이 함께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방안을 찾자”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소통과 화합의 시대에 발맞춰 ‘화쟁위원회’를 설립해 활성화 시킬 것”이라며 “대표님들께 자문을 구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수경 스님은 “지난 10년간 연대를 이끌면서 때로는 종단이 원망스럽기도 했고 걸림돌 일 때도 있었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수경 스님은 “하지만 이렇게 원장스님이 먼저 마음을 열고 각 단체의 대표들을 초청한 것에 감사하다”며 “이 자리를 빌어서 불교가 이 사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대안을 마련해 실행하자”고 말했다.

명진 스님은 “종단이 12일 발표한 로드맵을 철저하게 실천하고 불자와 국민의 신뢰를 받을 때 한국불교는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동건 대표는 불교사회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대표는 “화쟁위원회 구성에 적극 찬성한다”며 “특히 위원회 구성에 있어 관련전문가는 물론 갈등해결 관련 학자도 포함시켜 활발하고 실제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선주 기자

조계종 행자용 교육지침 나와

조계종 교육원 1년과정 5단계 교육 이뤄져

앞으로 조계종 행자는 전국 어느 사찰에서 출가하더라도 양질의 표준화된 기초교육을 제공받게 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1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초(행자)교육과정 지침’을 발표했다.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출가수행자의 새로운 삶의 방향성 정립과 출가자로서 자비구현을 위한 ‘발심과 원력’의 정립에 목적을 두고 새 지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새로 시행되는 기초 교육과정 지침은 1년 여 과정으로 △행자가 등록한 사찰에서 일상적으로 진행돼 오던 일상교육 △교육원이 행자등록 2개월 이내 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입문교육 △교구본사가 안거기간(3개월) 동안 행자의 기초교육을 담당하는 본사교육 △교구본사 단위로 수계교육 이전에 기초교리, 습의, 염불의식 등 숙지 정도를 점검하는 수계예비교육 △교육원이 사미 · 사미니계 수계에 앞서 진행하는 수계교육의 5단계로 분류 · 시행된다.

이 과정에서 은사스님의 재량에 따라 특정 교구본사로의 위탁교육이 가능해지고, 교구본사간 연합 집체교육 등 새로운 교육 모델이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기초교육 과정은 은사를 중심으로 개별사찰과 교구본사의 행자교육원 입교 전 점검교육, 행자교육원에서 6개월 여 동안 3단계로 진행되는 것이 전부였다.

월별 교육일정표도 새로 구성돼 행자교육 개월 수별로 기초교리학습, 기초습의교육, 기초염불, 권장도서 등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자를 위한 권장도서는 교육원이 자체 예산을 활용해 전국 30개 사찰에 비치할 예정이다. 권장도서는 <행해입문>(조계종교육원 刊) 등 염불의식 서적과 <부처님의 생애>(조계종교육원 刊) 등 교리입문서, <나의 행자시절> 시리즈(다할미디어 刊),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김영사 刊) 등 사찰생활서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발표된 교육원의 기초교육 지침은 지난해 말 발표된 ‘교육원 승가교육 발전 기본계획’의 첫 번째로 조계종 승가교육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특히 11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제33대 집행부 3대 종무기조 중 하나로 ‘교육과 포교를 위한 불교중흥’을 천명하면서 조계종 승가교육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진흥원·BBS 토론회 연다

조계종 진흥원특위 28일 개최

‘조계종과 진흥원 및 불교방송의 관계 정립을 위한 토론회’가 1월 28일 오후 2시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조계종 중앙종회 대한불교진흥원 제자리찾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연, 이하 진흥원특위)는 11일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특위위원장 의연 스님이 행사발제를 하며, 토론자는 원담 스님(총무원 기획실장), 박원식 불교방송 보도국장, 박준영 前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으로 확정했다. 토론은 △조계종과 진흥원 관계 △진흥원과 불교방송의 관계 △조계종과 불교방송의 관계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한편, 진흥원 특위는 토론회 참석을 거부한 대한불교진흥원 측을 대신해 10 · 27법난대책위 관계자의 토론 참석도 검토키로 했다.

조동섭 기자

죽비와 목탁

부처님, 아이폰에도 나투세요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아이폰용 프로그램(어플) 출시 소식이 올라왔다. 가톨릭 신자를 위한 ‘매일 미사’와 ‘라디오 평화방송’ 어플이었다. 리플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기다렸다”부터, “신부님 말씀을 핸드폰으로 듣게 됐다”, “다시 성당에 나가야할 것 같다”, “성당에서 <매일 미사> 책 대신에 아이폰 들고 미사 보는 광경이 조만간 연출될 것”이라는 말까지.

지난해 말 애플 ‘아이폰’ 국내 출시 이후 매스컴에서는 ‘스마트폰’ 관련 기사가 연일 끊이지 않는다. 스마트폰 프로그램 판매사이트인 ‘앱스토어(Appstore)’도 활성화되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의 어플 수는 10여 만 개, 한 달 매출액만 2500여 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불교 관련 한글 콘텐츠는 단 한 개도 없다. 영어권에서도 겨우 찾은 것이 달라이 라마의 법문이었다. 이에 반해 이웃종교는 셀 수 없이 많다. 수많은 영어 어플을 제외하고 한글로 제작된 것만 10여 종이 넘는다. 개신교계의 ‘신약신경’ ‘한글성경’ ‘개역찬송가’ 등을 비롯해 가톨릭계의 ‘매일미사’ ‘가톨릭성가’ ‘가톨릭 성인’ ‘라디오 평화방송’ 등이 그 예다.

이웃종교의 어플 중 다수는 아이폰의 국내 출시를 전후해 봇물처럼 쏟아졌다. 이웃종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스마트폰을 선교의 수단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들은 아이폰이 아닌 다른 스마트폰에서도 활용되도록 하나의 소스를 갖고 다양한 포맷으로 콘텐츠를 제공 중이기도 하다.

법보시는 가장 수승한 공덕이요, 부처님 가르침을 알리는 것은 최상의 공양이라 했다. 나는 믿고 싶다. 지금 어딘가에서 아이폰용 불교 콘텐츠를 만드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삼천대천세계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부처님, 왜 우리 핸드폰에는 안계신가요?”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왕초보의 불교 공부 첫 걸음



신간 왕초보, 禪 박사 되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오직 공부할 뿐입니다.

선은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공부입니다.

윤창화 지음 / 46판 양장 / 424쪽 / 값11,000원



신간 왕초보, 법화경 박사 되다

법화경 공부의 지름길!
법화경의 엣센스!

부처님 말씀을 알기 쉽게 비유를 통해 중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법화경만의 숨어 있는 매력.

정승석 지음 / 46판 양장 / 278쪽 / 값9,500원



중요한 경전 50여 가지를 엄선하여 알기 쉽게 해설한 경전안내서!

계환스님 지음 / 46판 양장 / 304쪽 / 값9,500원



바라춤과 승무, 극락과 지옥, 전생과 내생, 죽음과 열반, 윤달과 불교, 사십구재, 천도재, 예수재, 기도 백팔번뇌, 옴 마니 반메 훔, 우담바라, 오계와 십계 등 우리가 알아야 할 불교상식 150가지!

석지현 · 윤창화 · 일지 지음 / 46판 양장 / 352쪽 / 값9,500원



참선 수행, 위빠사나 수행, 절 수행, 생활 수행, 염불 수행, 주력 수행, 간경 수행 등 여러 가지 수행 방법과 목적,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고명석 지음 / 46판 양장 / 320쪽 / 값9,500원



한국불교의 모습을 담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경전이 천수경이다. 그 천수경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왕초보를 위한 천수경 해설서!

성법스님 지음 / 46판 양장 / 328쪽 / 값9,500원



불교의 핵심교리와 지식을 항목별로 명확하고 간명하게 정리한 초보자들을 위한 안내서.

고명석 지음 / 46판 양장 / 320쪽 / 값9,500원

지루한 방학? 절에 가면 신난다!!

전국 사찰서 특성화 템플스테이 열려… 다이어트·명상·단기출가 등 '다채'

방학은 자녀 교육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지만 계획한 만큼 건강과 공부를 동시에 관리하기란 어렵다. 요즘은 한파가 이어지면서 추운 날씨를 핑계로 집밖에 나가지도 않고 컴퓨터 게임이나 텔레비전을 보며 겨울방학을 보내는 자녀를 보며 애타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전국 사찰에서는 이런 부모들의 고민을 한방에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자녀들에게 몸과 마음의 관리와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색다른 방학선물을 해보자.

비만으로 변하기 딱 좋은 겨울방학. 비만 해결과 함께 새 학기 새 출발을 위한 특성화 템플스테이가 있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 033-339-6606)는 '몸성장 마음성장'을 주제로 다이어트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조계종 포교원, 파라미타청소년협회와 공동주최하는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칭찬놀이, 아동청소년 성격검사(MMTIC)를 통한 성격유형 이해와 존중 기회 확대, 자기주도 학습 및 시간관리 능력 강화 기법 제공 등을 기본으로 한다. 템플스테이 기간에는 기본적인 사찰습의와 타종체험, 요가 및 명상을 비롯해 숲 체험, 108배 명상, 1km 단축마라톤 등을 실시한다. 또 식습관 및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사찰음식 개발식단표에 따른 맞춤형 음식을 제공해 올바른 식생활로의 전환을 돕는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2월 1~7일 실시하며 참가비는 30만원이다. 그밖에 스키캠프와 월정사 템플스테이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스키캠프는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진행되며 2월 28일까지 2박3일간 모든 가족이 함께 참여 가능하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 051-864-4569)는 1월 30~31일 초등학생 3~6학년을 대상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특성화 캠프를 개최한다. MBTI성격유형 검사, 거울 명상, 빛 명상, 의사소통 활성화 프로그램, 성장 나무 만들기, 만다라 그리기 공동작업 등의 단체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의 정체성 확립을 돕는다. 참가비는 5만원, 선착순 50명 접수 받는다.

김천 직지사(주지 성웅, 054-436-6084)는 1월 19~24일 어린이 단기출가를 실시한다. 단기출가 기간에는 썰매타기, 전통놀이체험, 고구마 장작굽기 외에 부처님의 생애, 감사편지쓰기, 108염주 만들기, 소원 연등 만들기, 명상, 다도 등으로 놀이와 전통불교문화



다도를 배우고 있는 어린이. <현대불교 자료사진>

체험을 골고루 경험할 수 있다.

경주 골굴사(주지 적운, 054-744-1689)에서는 1주일을 단위로 최대 4주까지 사찰에서 영어공부, 선무도 체험, 기초 예절, 승마, 문화재 탐방, 다도, 국궁 등을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다. 초등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참가가능하다.

나주 심향사(주지 원광, 061-334-2880)는 1월 24~30일, 2월 6~7일 부모은중경 강의, 한지공예, 난타공연, 종명상, 눈썰매, 사불수행, 만다라 주머니 만들기, 108배 등으로 어린이들에게 잊지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 061-782-7600)는 2월 20~21일 새다짐 청소년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보성 대원사(주지 현장, 061-852-1755)는 1월 29~31일 전통무예 등 전통 놀이를 중심으로 어린이 겨울캠프를 실시하고, 2월 5~7일은 가족과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성 활인선원(선원장 대효, 070-7519-9929)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월 6~10일, 20~24일 단기출가를 실시한다. 5일 동안 단식, 묵언, 법문, 점검, 행선, 좌선, 예불, 선어록독송, 요가, 울력 산행 등을 통해 삶의 목표와 인생관을 스스로 잡도록 지도한다.

그밖에도 전국 사찰에서는 자녀들과 함께 전통문화체험과 템플스테이를 동시에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영월 법흥사(주지 도완, 033-375-9173)는 호야지리박물관 탐방, 선돌·선암 마을, 청룡포 등 영월 지역문화여행과 더불어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600여 고려인에 '한국' 알려

파라미타 중앙아시아서 교류활동 펼쳐

한국 청소년들이 600여 독립운동가의 후예 고려인들에게 고국의 전통과 문화를 알리고 돌아왔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도후) 학생과 지도자 53명은 구랍 21~30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싸마르칸트, 테레미즈, 부하라 등에서 한민족 교류협력활동을 펼쳤다.



파라미타 청소년들이 가상으로 신랑·신부가 돼 한국 전통 혼례식을 재현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파라미타가 주관한 'Overseas Koreans Network을 위한 비상(飛上)'행사는 한국 청소년들이 해외 동포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리는 해외 자원봉사활동이다.

이 활동에서 학생들은 민간외교단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짧은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610여 명의 고려인과 해외동포에게 민요, 거문고연주, 사물놀이, 성씨별 역사, 족보나누기, 고향지역 소개, 민요배우기, 절하기, 다도 등을 소개했다. 또 한복 모으기 캠페인을 통해 모은 한복 516벌을 고려인 문화협회에 기증하고, 한국 전통혼례식을 원하는 고려인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통과 풍습도 함께 전달했다. 특히 인구의 88%가 이슬람교인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자신들을 불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고려인들을 위해 불교문화와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 위주로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자체 평가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내에 교민과 고려인들의 경제적·문화적 민족망을 형성하고 체험위주의 활동을 통해 민족애를 확인했다"며 "평소 고려인에 대해 무관심했던 한국 신세대들도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반성하고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참가자 전원은 월1만원 기부 등을 통해 고려인들과의 지속적인 국제교류협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100字 뉴스

봉축위원회 부처님오신날 표어 공모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는 불기 2554년 부처님오신날에 사용될 봉축표어를 1월 29일까지 공모한다.

표어 내용은 △부처님오신날의 참 뜻을 알리는 내용 △사회적 소통과 화합을 불교적 메시지를 담아 표현하는 내용 △어린이, 청소년 불자들을 격려하거나 포교와 불교중흥에 관련한 내용 등으로 글자 수 10자 내외로 개인당 2개까지 응모 가능하다. 접수는 봉축위 이메일(kang@buddhism.or.kr)을 통해 가능하며 당선작에는 상금 30만원의 부상이 주어진다. (02)2011-1744

고우 스님 간화선 입문 프로그램 2. 25~28.

초조, 불안, 복잡한 인간관계, 과도한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한순간에 떨쳐버릴 간화선 입문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2월 25~28일 봉화 금봉암에서 실시되는 간화선입문은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이 지도한다. 참가비는 16만원으로 선착순 30명 접수. (02)735-2428

제따와나선원 대만 불교성지 여행

제따나와선원은 2월 3~7일 대만 불교성지순례를 떠난다. 성지순례단은 대만 불광사, 중대선사, 자제공덕회 등을 순례하며 대승불교의 성공적인 포교법을 보고 배운다. 각 사찰 외에도 정토동굴, 대비전 불교문물전시관, 조산회관, 야류 자항사,용산사 관광, 야시장 관광,국립고궁박물관 등도 방문한다. 1월 20일까지 선착순 10명을 접수 받는다. (019)250-9400

깔야나미따명상선원 위빠사나 인터넷 강좌

깔야나미따명상선원은 1월 13일 밤 9시부터 '고통의 소멸=깨달음의 대중화' 인터넷 공개강좌를 실시한다.

담당 지도 법사인 아눌라 스님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법문은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서 진행된다. 그밖에도 1월 18~22일 위빠사나 사띠 집중수행, 25~29일 5계 집중수행도 실시한다. cafe.daum.net/kalyanamitta

대한불교교사대학 어린이법회 교사 12기 모집

조계종 특수교육기관인 대한불교교사대학은 어린이법회 교사 양성을 위한 어린이지도사과정, 전문지도자과정(자격증반), 정규반(학교에 직접 와서 강의를 청강하는 반), 사이버반(본교에 오지 않고 교사대학 홈페이지에서 강의를 청강하는 반)을 모집한다. 1년 교육과정으로 교육비는 분기당 15만원. (051)852-0852

불교교육단체련 연합포교사 고시 합격자 발표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회장 안동일)는 1월 11일 제8회 연합포교사 불교교육능력평가고시 합격자를 발표했다. 수석합격자는 박해서 (동산불교대), 차석합격자 박상태(만불불교교양대), 최고령합격자 김선욱씨 등 56명이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청소년글모음 '선연' 창간

"최상의 진로지침서"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구체화 하는 청소년 글 모음집 <선연(善緣)>(청소년글모음집 선연 편집위원회 · 서울지부 공동대표 이은선 · 사진)창간호가 구랍 30일 발행됐다.

<선연>은 청소년들이 평소 자신의 생각이나 전공을 꿈꾸는 분야에 대한 논문, 진로적성 탐구활동, 체험활동보고서 등의 묶음집이다. 학생들의 꿈을 글로 표현하면서 구체화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발간됐다.

창간호에 실린 주제들은 학생들이 썼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다. 인문계 논문에는 '현대의 심리 문제를 위한 심리치료' '현대불교에서의 청소년 포교' '21세기 대한민국에서의 게임의 가치' 등 문화, 봉사, 환경, 경제,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논문이 실렸다. 자연계 논문에는 '신종플루' '노화의 원인 세포' '또 따른 우주' 등 논문이, 직업탐구, 체험수기를 비롯해 봉사활동 수기, 소설, 수필 등 총 49편의 다양한 글이 수록됐다. <선연> 편집위원회의 조직 운영은 리더십 배양을 위해 청소년들이 운영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구성은 전국불교종립학교인 능인고등학교,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 보문고등학교, 해동고등학교,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청담정보통신학교 등을 중심으로 향후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지부, 지회, 분회조직을 연계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모임활동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다. 또 청소년학술상을 제정해 법회활동과 대학진학의 연계성을 확보해 나가며 모음집은 300쪽 내외로 연 2회 발간된다.

파라미타 중앙위원 박영동 법사는 "학생들이 객관적인 자기 이해도 없이 주변의 권유에 의해 진로를 선택하며 대학을 입학하지만 대부분이 만족을 못하고 있다"며 "<선연>을 통해 학생들이 직업의 사회적 역할을 이해하고 희망 직종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최상의 진로지침서로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대원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지도자의 산실 대원불교대학이
보다 편리해진 교통(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2번출구)으로 불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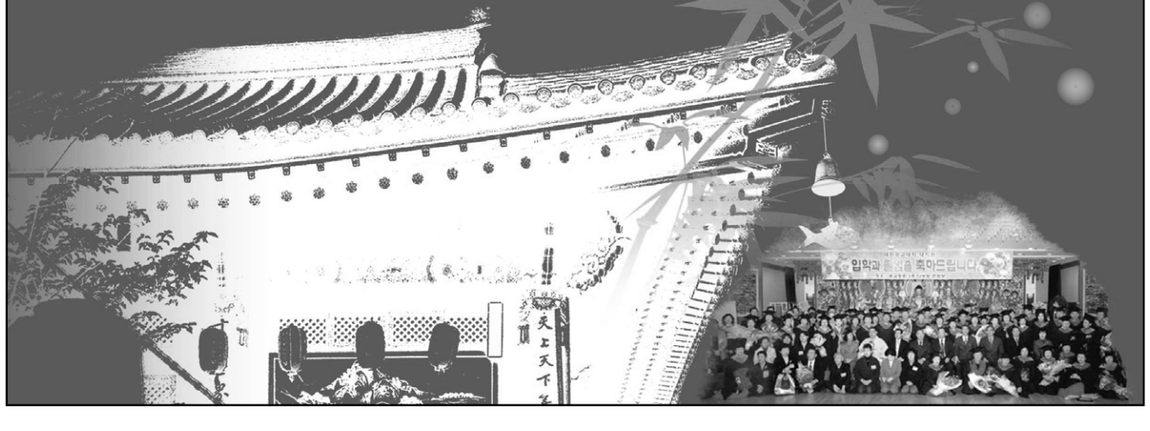
모집과정
불교학과, 불교상담심리학과
대학, 대학원 과정 주 · 야간 각 00명(주2회 출석/4과목)
명상심리치유학과
대학과정 주 · 야간 각 00명 (주2회 출석/4과목)
✚ 특전 : 각 학과를 수료 후 소정의 자격고시를 실시하여 불교상담사, 명상치유사, 법사 자격증을 드립니다.

지원자격
대 학 과 정 : 각 과정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를 원하는 자
대학원과정 : 불교학과, 불교상담심리학과 졸업자 및 해당 학력이 인정되는 자

원서접수
2010년 2월 28일까지
*전화 신청 시 입학원서 및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입 학 식
2010년 2월 28일(일) 오후 2시 대원정사 큰법당

문 의
대원불교대학 T. 02)773-9171 FAX. 771-6796
서울 용산구 갈월동 59번지 8호 대광빌딩 3층




'3일간의 실천보기' 토론에 열중하고 있는 공심팀 교사들.

한마음과학원 교사를 위한
마음공부과정

얘들아, 불켜진 선생님 마음이 너희를 밝게 할 거야

한마음과학원 5년 전부터 심성교육 연구
인성교육 우선이고 궁극, 그 안에 교과교육

#마음공부에 시간을 던진 선생님들

1월 12일 오전 10시. 어느새 방학도 중반인데 21명의 선생님들이 안양 한마음선원 국제회의실로 모여들었다. 1주일 전인 5일부터 시작된 '교사를 위한 마음공부과정'에 등록한 선생님들이다. 선생님들이 공부를? 그것도 마음공부를?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출세에 도움도 안 될 것 같은 마음공부 프로그램에 21명의 선생님들이 금쪽같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다. 한마음과학원이 5년 전부터 연구해 온 심성교육의 다양한 과정 가운데 교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 온 선생님들, 도대체 선생님들은 어떻게 마음공부를 할까?

#누가 나를 묶었나요?

10시. 목탁이 길게 한 번 내려지고 선생님들이 조용히 합장 인사를 나눈다. 그리고는 의자에 앉아 입정. '딱' 죽비소리와 함께 자동으로 다음 순서로 넘어간다.

'3일간의 실천보기' 시간. 지난주 토요일에서 어제(월요일)까지 자신의 생활 속에서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다. 지난주의 주제였던 '믿고 맡기기'가 얼마나 잘 됐는지 발표하는 시간, 슬쩍 공생팀의 빈자리에 파고들었다.

"두 살 된 마음이를 위해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몸이 따르지 않는다. 오랜만에 남편과 영화를 봤다. 전에는 몰랐는데 사소한 대화에도 매우 민감한 것 같다."

선생님, 엄마, 아내의 3역쯤은 기본이지만 그게 힘든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인가 보다. 딸 이름이 한마음이라는 이 젊은 선생님도 가족과 직장, 집안 일 등이 삶의 기쁨이자 고통이라고 털어 놓는다. 그래서 이 공부과정을 거치고 나면 기쁨이 더 많은 삶이 될 것을 믿고 있다고.

"토요일(9일) 탑뉴스는 교원평가제였다. 안 그래도 나이 들며 조금씩 위축되는 느낌인데 걱정이 앞섰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래, 내가 두려울 게 뭐 있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주인공에게 믿고 맡기고 나는 내 할 일 열심히 하면 될 것을 뭐 그리 걱정이야' 하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편해졌다."

그리 연세가 많아 뵈지 않는 이 선생님은 발표를 하면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 주신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아들을 훈련소로 보내는 장면에서는 눈물이 그렁그렁 했다.

다른 팀들도 발표 열기가 뜨거웠다. 박수를 치는 곳도 있고 큰 소리를 지르는 팀도 있었다. 메뚜기처럼 옮겨 다니며 발표 내용을 들어 봤다. 대부분이 자식과 남편, 아내, 집안 일, 학교 일을 주제로 발표하고 그 일들에 자신이 묶여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누가 묶었을까? 역시 선생님들은 달랐다. 자신을 묶은 것은 자신이란 걸 빨리 알아차렸으니까.

#심성교육, 그 꿈과 현실 사이

초등학생들에게 복식 호흡을 가르치면 학습능률이 상당히 올라간다는 선생님으로부터 복식호흡법을 배우고 곧바로 다음 과정이 이어졌다.

'교과 지도와 인성교육' 교육현장의 가장 큰 딜레마이기도 한 주제다. 선생님들은 받아 든 종이에 그래프를 그렸다. 자신이 생각하는 인성교육과 교과교육의 관계. 대부분이 인성교육이라는 원 속에 교과교육이라는 원을 그려 넣었다. 인성교육이 우선이고 궁극이라는 얘기다. 그렇지만 현재 자신이 교실에서 하고 있는 교육의 상태를 그릴 때는 달랐다. 인성교육이 쭈그러들고 교과교육이 커져 있다. 인성교육과 교과교육의 교집합 부분의 크기도 제각각 달랐다. 역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알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을 보여주었다. 자신이 그린 그래프를 설명하는 토론 시간은 사뭇 진지했다.

"컴퓨터 그래픽을 가르치니까 당연히 교과교육이 위주가 되죠. 기능 교육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처음엔 내가 저걸 해? 하다가 조금씩 배워가면서 자신감을 갖는 아이들을 보면 그 속에 인성교육이 있다는 것을 느껴요."

모두 공감을 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도덕 교사라고 밝힌 한 선생님은 "인성교육은 실천"임을 강조했고 고3 영어를 담당한다는 선생님은 "담임을 맡지 않으면 교과학습에 더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초등학생은 달라요. 모든 게 인성교육에서 시작돼요. 인사하기, 뛰어다니지 않기, 떠들지 않기, 남 얘기 끝까지 듣기 등 모든 생활이 인성교육이고 그게 안 되면 수업도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이 초등학교 선생님은 "교실에 있어보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좋은 자료가 있어도 다 적용할 수는 없다"며 아쉬움도 드러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인성교육이라는 꿈과 교과지도라는 현실 사이에서 좀 더 인간적인 교육을 위해 고민하고 있었다.

#뽕망치로 되돌려 넣는 내 망상

오후 과정은 흥겨웠다. 즐거운 놀이 속에 자성을 밝히는 뜨거운 촛불이 타오르는 시간이었다. 옛날 팥죽을 쑤는 수좌가 끓어오르는 팥죽 방울을 보면서 '요것도 문수지, 요것도 문수지'하면서 팥죽 방울을 눌렀다는 대행큰스님의 법문을 응용한 놀이였다.

자신이 적은 자신의 번뇌와 고민 갈등 소원 등등을 팀원들이 골고루 나눠 갖고 앉아 있다. 그리고 자신은 뽕망치를 들고 서 있다. 놀이가 시작되면 팀원들이 자신의 갈등 번뇌 소망 등을 외치며 일어선다.(두더지 잡기를 연상하면 됨) 뽕망치로 일어서는 두더지를 내리치며 '네가 하는 거잖아' '나온 곳으로 되들어가라' '용광로에 넣으란 말야'를 외친다.

뽕! 뽕! 뽕! 놀이가 진행되는 동안 실내는 왁자지껄 했다. 그러나 발표는 진지했다.

"이렇게 솟구치는 번뇌 망상들을 그때그때 되돌려 넣으며 청정한 자성을 지키고 살면 교실에서도 늘 행복할 것 같아요."

8회 동안 진행되는 교사를 위한 마음공부과정은 믿고 맡기기, 지켜보기, 실천궁행하기, 참구하기를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한 선생님들은 "회를 거듭하면서 나의 존재 이유와 가치, 학생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다가가는 방법 등을 깨우치게 된다"며 "새 학기는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한 선생님이 보여주는 리플릿에는 이런 글귀가 써져 있었다.

'내 마음에 불이 켜지면 그대로 밝은 교실이 됩니다.'



참가 교사들이 각종 실천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마음공부를 진행하고 있다.

글=임연태 기자/사진=박재완 기자

특수 기술로 개발 조성한 부처님


개금불

비취옥불

백옥불

대나무숯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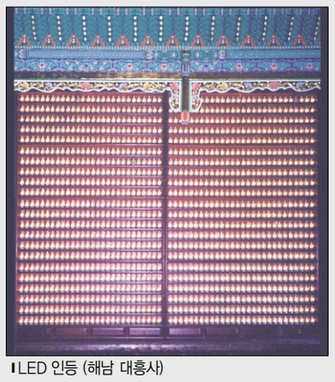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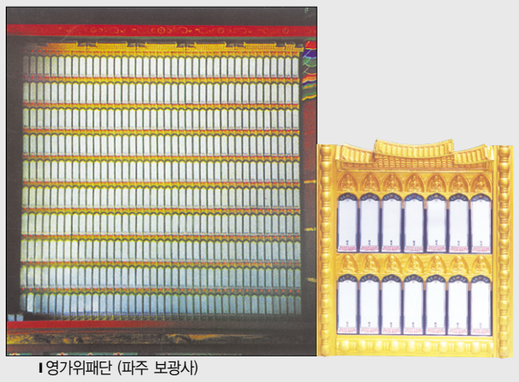
대나무숯불

▪ 규격 :
소불 - 5치. 7치. 9치. 1자(108-1,000불)
대불 - 2자. 2자반. 3자. 3자반(법당 內)

정우불교예술원(구. 정심원) 취급품목
▪ 각종불상. 특수불. 옥불.
▪ 대나무숯불. 영가위패단.
▪ LED인등. LED전구(연등용).
▪ 옥촛대.

正宇불교예술원(구.정심원) www.jeongwoo.info

LED인등 및 영가 위패단
디자인 등록 제 30-0477206호
실용신안등록 제 20-0439285호


LED 인등 (해남 대흥사)

영가위패단 (파주 보광사)

• 안전하고 편리하며 누전이 없습니다
• 화려하고 장엄합니다
• 전기료가 기존인등의 1/10 미만입니다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설치해 드립니다

정우불교 등

공단등 바리등 영가등 금 등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 1474 전화 031)969-6310 / 직통 011-724-0455 대표 이정옥(진성) 합장
※ 전화주시면 전국 어디든지 방문하여 상담하여 드립니다.

해 외 WORLD

보드가야 채식지역 형성 지원

채식 30년 리차드 기어 언론에 호소

불자로 잘 알려진 헐리웃 스타 리차드 기어(61)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던 인도 보드가야시를 채식인의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채식주의자로 지낸지 30년이 되는 리차드 기어는 올해 초 인도를 방문해 "보드가야 지역을 채식주의 구역(zone)으로 만드는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차드 기어는 1월 4일 언론을 통해 보드가야 지역 채식주의화(化) 운동에 뜻을 밝히면서 지역 주민 뿐 아니라 방문객들에게도 채식하는 삶을 살도록 호소했다.

티베트 수도원 관계자는 "리차드 기어는 1월 4일 보드가야에 와서 달라이 라마를 만난 후 마하보디사원에서 예불을 올리고 5일간 달라이 라마의 법문을 들었다. 달라이 라마를 추종하는 일반 신도들과 다를바 없이 행동하는 그는 신자들을 지원하느라 정신없이 바쁠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 '사관과 신사' '프리티 우먼' 등으로 잘 알려진 리차드 기어는 1980년대 초 티베트 불교문화에 흥미를 갖기 시작, 그 후 몇 년간 여러 차례 인도 등지를 방문하며 독실한 불자가 됐다.

또한 리차드 기어는 '티베트 독립'을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어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만들어 티베트 독립 운동의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 리차드 기어가 방문한 마하보디사원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곳인 보드가야에 있으며 불교 4대 성지 중의 하나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다.

달라이 라마의 신년법회가 열리는 기간 중인 1월 6일 리차드 기어는 수백 명의 비구, 비구니 스님 및 불자들과 보드가야에서 열린 촛불행렬에 참여해 대중에게 채식에 동참하기를 호소했다.

촛불집회는 비영리단체인 '채식주의 사회를 위한 티베트인 모임 (Tibetans for Vegetarian Society, 이하 T4VS)'에 의해 기획된 것이다.

이 모임을 이끄는 텐진 쿤가 루딩(Tenzin Kunga Luding)은 "리차드 기어의 채식화 운동 지지 후원이 지역 뿐 아니라 보드가야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캠페인에 동참하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모임은 또 니티시 쿠마르(Nitish Kumar) 비하르 주(州) 총리에게 보드가야를 채식주의 지역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서를 올리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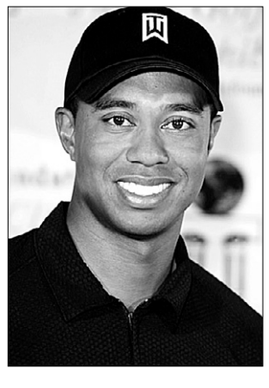
T4VS는 2006년부터 종교적으로 신성한 지역을 순례하는 동안에는 어떠한 육류도 소비, 판매, 섭취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는 포스터, 팜플렛, 스티커 등을 만들어 캠페인 홍보를 시작해왔다.

루딩은 "T4VS는 사람들에게 비하르주도인 파트나로부터 110km 떨어진 보드가야 지역안에서는 채식만 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며 "보드가야가 채식주의 지역으로 지정된다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성지가 된 이래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곳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나은 기자

"타이거 우즈 기독교 개종하라"

美 폭스뉴스 브릿 흄, 폭스뉴스선데이서



폭스 뉴스(Fox News)의 유명 앵커가 외도로 구설수에 휘말린 타이거 우즈(사진)에게 기독교로 개종해야 한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브릿 흄(Brit Hume)은 1월 3일 시사대담프로그램인 '폭스뉴스 선데이'에서 "우즈의 외도는 2010년에도 스포츠계 최대의 화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즈가 외도로 인해 가족을 잃게 돼 개인적으로는 비극"이라고 말했다.

이어 흄은 우즈가 정상의 기량을 되찾으려면 종교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흄은 "타이거 우즈는 골프선수로서 분명 재기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회복할 수 있는데에는 그의 신앙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는 불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신앙에는 기독교의 구속과 용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폭스 뉴스의 간판 앵커 중의 한 명인 흄은 1998년 아들이 자살한 이후 기독교 신자로 거듭난 유명 방송인이다.

그는 은퇴후 성경공부에 전념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이러한 그의 발언이 논란을 빚게 되자 흄은 "불교를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한발 짝 뒤로 물러섰다.

타이거 우즈의 어머니는 태국 출신의 독실한 불자로 알려져 있으며, 우즈 또한 어머니의 영향으로 자신도 불교에 심취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나은 기자

장기기증 2500명 모집할 터

생명나눔 2010 일반인 참여 확대 등 신년계획 발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0년에는 공익광고, 릴레이 장기기증을 통한 홍보활동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생명나눔은 나와 내 이웃의 일입니다. 2010년은 '동체대비'의 보살정신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1월 12일 2010년 신년계획을 밝히는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다짐했다.

일면 스님은 간담회에서 "생명나눔실천본부가 16년째 생명나눔운동을 실천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기기증은 두려운 것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올해는 거리캠페인, 릴레이 형식의 장기기증 등 보다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일반인들의 참여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2009년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장기기증희망자 모집인수는 2020명. 목표보다 500여 명을 초과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불교계 유명인사의 장기기증 희망등록 릴레이 등을 통해 불교계의 장기기증 움직임을 확산시키는 등 새해에는 장기기증 희망자 2500명과 조혈모세포기증 희망자 3500명을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정복자 사무총장은 "혜국 스님(석종사 금봉선원장)을 시작으로 매달 1명씩 희망등록 릴레이를 이어가며 인터뷰를 통해 장기기증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생명나눔 회원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조계종 신도등록을 신청 받아 후원금을 모연한다. 조계종 포교원과 협의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재적사찰이 없는 단체 특성상 서울 불암사를 본부 신행도량으로 선정해 진행된다. 생명나눔 회원이 조계종 신도로 등록할 경우 지불하는 교무금 1만원 중 반액은 생명나눔실천본부에 기부금으로 후원하게 된다.

홍보대사를 활용한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펼쳐진다. 본부는 우선 이세은, 김병조씨 등 불자연예인을 홍보대사로 공익광고를 제작해 불교방송, 불교텔레비전에 방송할 예정이다. 불자연예인의 스케줄에 맞춰 연등축제기간 등을 포함해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거리캠페인을 진행한다.

거리캠페인 등은 지난해와 비슷한 횟수로 진행된다. 지난 해 △대중 △환자 △정서 △기관 △온라인의 다섯 영역으로 나눠 활동을 펼쳐온 생명나눔은 올해에도 장기기증 및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모집 캠페인을 각각 70~80회 실시한다. 또 후원환자들을 위한 음악회, 걷기대회, 세미나, 천도재 등도 꾸준히 진행한다.

이와 함께 생명나눔은 기탁금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키로 했다. 2009년 4월, 70대 노보살이 시력을 잃은 어린 환자들을 위해 치료비로 써달라고 기탁했으나 아직 기금이 남아있는 5000만원이 그 예다.

일면 스님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환자들의 각막이식수술비를 지원해 희망을 주고자 한다"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각막이식수술로 시력회복은 가능하나 수술비 마련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마련된 지원금이니 만큼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02)734-8050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골프 수영 난타 논술 등 강좌 '다채'

신흥사 어린이 아카데미 1월 9일~2월 말



신흥사는 사교육을 접할 기회가 없는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해 수강료 없이 강의를 진행하며 교육기간 동안 무료 점심 급식을 제공한다.

속초 신흥사(주지 우송)는 겨울방학을 맞아 사교육에서 소외된 지역 내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 · 체육 · 교양 강좌를 개설했다.

신흥사는 '신흥사 어린이 겨울방학 아카데미'를 열고 설문조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골프 · 수영 · 풍물, 난타 · 독서, 논술 · 미술교실 · 클레이(점토를 이용한 창작교실) · 노래교실 · 풍선아트를 개설했다.

강좌는 2010년 1월 9일~2월 28일 매주 토요일 열리며 교육은 지역 내 전문 강사와 대학 교수들이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우송 스님은 "신흥사는 각종 문화체험과 교양, 체육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빈곤층 자녀 및 홀로 방학을 보내는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해 강좌를 마련했다"며 "개학 후에도 놀토를 활용해 신흥사 어린이 아카데미를 지속 ·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33)637-7044

이나은 기자

여성긴급전화 1366 직지사 복지재단

직지사 복지재단(대표이사 성웅)은 가정폭력 · 성폭력피해 또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재단은 11월 9일 경상북도로부터 '여성긴급전화 경북 1366센터(소장 진원)'를 수탁받아 김천시 대광동에 자리를 잡고 운영 중이다.

경북 1366센터는 국번 없이 1366을 누르면 위기 · 긴급상황에서 여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진원 스님은 "여성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상담과 긴급보호, 의료 · 법률지원뿐 아니라 관련기관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장애인 산행원정대 영주장애인복지관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도륜)은 2010년 지적장애인의 신체기능강화 및 도전 성공을 위한 산행원정대 '1박 2일 우리는 간다' 사업을 실시한다.

'1박2일 우리는 간다'는 산행등반을 통해 지적장애인의 신체기능강화, 대인관계강화 및 성취감 획득과 장기적인 재활을 도모할 계획이다.

참가자격은 15~35세의 지적장애인 남성을 대상으로 하며, 선발기준에 의해 최종 10명이 산행원정대에 참가할 수 있다.

선발된 원정대원들은 2월부터 11월까지 매주 2회 △수영, 축구, 기초체력 신체관리 △야외캠프활동 △지리산, 설악산 산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참가자 모집은 1월 29일까지며 프로그램 전 과정 참가비는 무료다. (054)633-6415

이나은 기자

봉녕사 승가대학 2010학년도 신입생 · 편입생 모집 공고

본 승가대학에서는 2010학년도 신입생 · 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명

◆ 지원자격
•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타 강원생인 경우 1년 이상 휴학한 스님)

◆ 전형방법
• 면접 및 필기시험
(초발심자경문, 염불실기, 불교기초지식)

◆ 도착일시
• 2010년 2월 2일 화요일 오후 4시까지
(음력 12월 19일)

◆ 시험일자
• 2010년 2월 3일 (음력 12월 20일)

◆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4) 건강진단서(종합병원 用)
5) 최종학력 증명서
6) 사진(3×4) 3매

◆ 준 비 물 : 만의, 장삼, 필기도구

◆ 버스운행 : 수원역 앞에서 봉녕사 승가대학 버스를 오후 1시 ~ 4시까지 운행함.

◆ 연 락 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48 봉녕사 승가대학
• 전화 031)256-4127
• 팩스 031)254-3371, 253-3877
• 홈페이지 (www.bongnyeongsa.org)에서 원서 다운로드 가능

봉녕사 승가대학 학장 묘 엄

봉녕사 금강율원 2010학년도 신입생 모집 공고

봉녕사 금강율원에서는 2010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인원
○ 명

◆ 지원자격
• 강원을 졸업하고 비구니계를 수지한 자.
(타 강원 졸업생 스님들의 입방도 가능)

◆ 전형방법
• 면접 및 필기시험(불교교리, 범망경)

◆ 도착일시
• 2010년 2월 2일 화요일 오후 4시까지
(음력 12월 19일)

◆ 시험일자
• 2010년 2월 3일 (음력 12월 20일)

◆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 율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은사스님 추천서
4)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5) 건강진단서(종합병원 用)
6) 승가대학 졸업증명서
7) 사진(4×5) 3매

◆ 준 비 물 : 가사, 장삼, 필기도구

◆ 연 락 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48 봉녕사 금강율원
• 전화 031)256-4127
• 팩스 031)254-3371, 253-3877
• 홈페이지 (www.bongnyeongsa.org)에서 원서 다운로드 가능

봉녕사 금강율원 율 주 묘 엄
율원장 대 우

북한 박물관 등 미공개 자료 눈길

한국박물관 성립부터 정리한 '한국박물관 100년사' 출간

한국 박물관 100년 역사가 한권의 책으로 집대성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과 한국박물관협회(회장 전보삼)는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을 기념해 <한국 박물관 100년사>(사회평론 刊)를 발간했다.

책은 '본문편'과 '자료편' 2권으로 구성됐다. 집필진으로는 최광식 관장을 비롯한 박물관 연구 · 종사자 등 전문인력 40여 명이 대거 참여했고, 지건길 前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12인의 감수위원이 감수를 맡았다.

'본문편'은 한국 박물관 성립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4부에 걸쳐 편년순으로 편찬했다. 제1부에서는 근대적 박물관의 기점이 되는 1909년 제실박물관 개관에서부터 1945년 광복 이전의 박물관 · 미술관사를 중심으로 기술됐다. 제2부에서는 광복 이후 한국전쟁의 시련을 이겨내고 현재까지 발전해 온 국 · 공 · 사립 · 대학박물관 역사가, 제3부에서는 미술관사, 제4부에서는 한국박물관협회를 비롯한 박물관 관련 단체, 학술단체의 활동과 ICOM한국위원회의 활동을 게재했다. 또, 부록으로는 북한의 박물관과 미술관, 우리문화재의 해외전시, 국외한국실, 한국 박물관 100주년 기념사업, 한국 박물관 연표 등을 수록했다.

'자료편'은 본문의 서술을 보완하기 위한 1차 사료와 각종 사진, 도면, 구술자료 등을 본문 체재에 맞춰 3부로 정리했다. 제1부는 1945년 광복 이전 제실박물관, 조선총독부박물관, 이왕가미술관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2부는 광복 이후 국립박물관 초기의 각종 통계 · 구술자료 및 국외전시와 지방 국립박물관 자료를, 제3부는 전국의 공 · 사립, 대학박물관 및 미술관 현황자료와 지도가 수록됐다.

특히 '본문편'에 수록된 북한 지역 박물관 자료와 '자료편'에 담긴 조선총독부박물관의 박물관 사업 관련 각종 고문서 등은 지금까지 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미공개 자료로 눈길을 끈다. 이외에



지난해 11월 2일 열린 한국박물관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최광식 국립중앙박물관장이 박물관사를 소개하고 있다.

도 책에는 40여 편의 학술논문과 그 논문과 연계된 고문헌 자료, 일제 강점기 사진과 미 군정기 문서, 일본의 반환문화재 목록 등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자료들이 원색 이미지로 수록됐다.

이어령 한국 박물관 100주년 추진위원장은 축사에서 "랜드마크라는 상징적인 건물보다 마인드마크가 되는 박물관이 더 중요하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마인드마크로서 박물관은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한국 박물관 100년사를 책으로 정리하고 편찬한 것은 미래 100년의 길을 묻는 데 매우 중요한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광식 관장은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학술적으로 정립하고 박물관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취지와 더불어 향후 한국 박물관과 미술관의 발전 역량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편찬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1909년 11월 1일 제실박물관이 창경궁에서 문을 열며 시작된 한국 박물관은 현재 국립박물관 27개관, 공립박물관 258개관, 사립박물관 222개관, 대학박물관 115개관, 국 · 공립미술관 31개관, 사립미술관 98개관, 대학미술관 8개관 등 800여 박물관과 미술관이 등록돼 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학술프로그램 · 아동센터 등 운영

개관 3주년 불교영어도서관 신년사업 계획 발표



개관 3주년을 맞는 불교영어도서관이 불교학 관련 목록 제공 등 학술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불교영어도서관(Buddhist English Library of Seoul, BELS, 관장 이승욱)은 1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술활동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신년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새로 도서관장이 된 이승욱 관장(사진)은 "불교영어도서관에서 가장 알맞은 일은 무엇일까를 고민했다"면서 "우선 불교영어도서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알리는 한편, 도서관의 역할에 걸맞는 학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을 신년 목표로 삼았다"라고 밝혔다.

불교영어도서관의 학술 프로그램은 국내 불교학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학술정보 제공에 초점이 맞춰진다. 동국대 · 서울대 등 국내 대학의 불교학 · 선학 · 인도철학 · 종교학과 등 불교학 관련 전공에서 연구 중인 연구자를 대상으로 도서 목록과 학술자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영어권의 불교학 관련 우수 논문을 선별해 메일링 서비스 등을 통해 국내외 불교학계의 교류에 힘쓰기로 했다.

불교영어도서관이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해 마련한 국내 우수논문의 영역화 사업도 눈에 띈다. 불교영어도서관은 매년 국내 불교학자의 우수논문 10여 편을 선정해 영역화하고 이를 책으로 만들어 외국 불교학자와 불교단체, 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목록의 데이터베이스화 작업과, 홈페이지 검색 기능 추가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승욱 관장은 "정보화 시대의 도서관은 단순한 서적류 대출업무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며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불교영어도서관의 영역을 확장시켜가겠다"고 강조했다.

불교영어도서관은 학술 관련 프로그램 외에도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외국인 스님 등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지역사찰 및 아동센터, 공부방 등에서 어린이 ·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펼친다.

또, 불교영어도서관 인근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불교 영어와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독서치료 · 글쓰기 치료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승욱 관장은 "불교 논문 영어번역 사업 등을 시행하려면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도서관 수익사업으로 불교와 명상, 정신분석을 접목한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이 관장은 호주 등 해외에서 10여 년 넘게 생활한 국제통으로 정신분석학 석 · 박사과정을 전공했다. (02)730-0173

조동섭 · 이은정 기자

국사암 인법당 벽화 등 415점 담겨

문화재청 · 성보문화재연구원 '한국의 사찰벽화-부산 · 경남2' 발행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최근 성보문화재연구원(원장 범하)과 함께 한국의 사찰건축물 벽화에 대한 정밀조사보고서 <한국의 사찰벽화 - 부산광역시 · 경상남도 2>를 간행했다.

이번에 간행된 <한국의 사찰벽화 - 부산광역시 · 경상남도 2>에는 부산 범어사 대웅전(보물 제434호), 산청 율곡사 대웅전(보물 제374호), 창녕 관룡사 대웅전(보물 제212호), 하동 쌍계사 대웅전(보물 제500호) 등 2009년 진행된 부산 · 경남 동부지역 12개 사찰건축물 415점에 대한 조사 결과가 수록됐다.

조사 결과, 부산 · 경남 동부지역 사찰벽화 주제로는 여래와 나한을 비롯해 악기를 연주하며 하늘을 나는 선인, 신령스러운 동물이 다수였다. 이외에 꽃과 새, 보살, 신중 등 다양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특히, 이번 조사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국사암 인법당 벽화(1875년)가 11점 발굴된 것도 중요성과로 평가된다.



부산 범어사 대웅전의 약사삼존도(위)와 <한국의 사찰벽화-부산광역시 · 경상남도2>.



문화재청은 성보문화재연구원을 통해 2006년 인천 · 경기 · 강원 지역 사찰을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사찰건축물 벽화에 대한 현황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는 2009년까지 51개 사찰건축물 1776점을 완료했다.

문화재청은 올해에는 경주 불국사 등 대구 · 경북지역 23개 사찰건축물 벽화 600여 점을 선정해 정밀조사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조사보고서는 벽화의 보존 · 관리 및 원형보존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그동안 조사된 벽화들 중 중요한 가치를 지닌 벽화를 대상으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관음사 목조보살입상 전북도문화재 지정

전북 익산시(시장 이한수)는 1월 11일 "갈산동 소재 관음사 목조보살입상을 전북도유형문화재 제218호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2008년 10월 목조보살입상 이운과정에서 발견된 불상조성기에 따르면 이 불상은 의암 스님이 만력33년(1605)에 최초 조성했다. 1597년 임진왜란으로 불에 타 소실된 것을 1601~1605년간 법당과 삼존불 등 불상을 새로 조성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조선 중기 조성된 관음사 목조보살입상의 보존상태도 좋고 시대성이 반영된 양식적 특징을 지닌 점, 정확한 제작연대, 제작자, 유래 등을 알 수 있는 문화재로 복장유물과 함께 전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적 시각으로 본 '삼국유사'

김영태 명예교수 '자세히 살펴본 삼국유사' 출간



불교적 시각으로 한국 고대 역사서인 <삼국유사>가 풀이됐다.

원로 불교학자인 김영태 동국대 명예교수는 최근 <자세히 살펴본 삼국유사>(도피안사 刊)를 출간했다.

<삼국유사>는 저자가 일연 스님이었을 뿐만 아니라, '왕력'과 '기이' 편을 빼고는 모두 불교에 관계된 내용으로 구성됐다. 내용뿐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압축해 요점만 기록했기에 불교사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 없이는 <삼국유사>를 온전하게 연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발간된 책은 단순히 불교학자에 의해 서술된 <삼국유사> 이상의 의미를 넘어 불교계 인사가 처음으로 일연 스님의 후손된 도리를 다한 것이라는 찬사가 끊이지 않는다.

김 명예교수는 서두의 '보각국사님께 올리는 글월'을 통해 "(일연) 국사가 힘들여 수집하고 알뜰히 엮은 그 숱한 이야기와 많은 옛일들을 첫 장부터 차례로 자세히 살펴서 그 바른 뜻이 진실되게 드러나도록 풀이하려 애썼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태 명예교수는 1932년 출생해 일생을 불교사상사 연구에 매진해 왔다. 대표저서로는 <신라불교사상연구> <한국불교사> 등이 있다. (02)419-8704

조동섭 기자

불교학연구회 워크숍

28~30일 약천사서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는 1월 28~30일 제주 약천사와 제주대에서 동계워크숍을 개최한다.

행사는 '제주 불교의 과거 · 불교 · 미래'를 주제로 한 특강과 '중국 언어와 불교' 주제의 학술세미나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강은 28일 오후 3시 약천사에서 전통문화연구소 문부병 이사장과 제주불교사연구회 한금순 연구원이 각각 '제주민속과 불교'와 '제주불교 신앙형태의 역사적 고찰'을 주제로 특강한다.

29일 오전 9시 제주대 제주국제교류회관에서 열리는 학술세미나에는 '불전 상용어휘의 중국언어학적 고찰'(안재철 제주대 교수) 등이 발표된다. (031)980-7775

조동섭 기자

세상을 위한 불교

대한불교진흥원 부설

대원불교문화대학

| 2010학년도 신입생 모집 |

(구 대원불교대학)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대원불교문화대학 학사관리처**
-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3층

▶ **제출서류** | 최종학교 재학 및 졸업증명서 1부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www.daewoncollege.kr에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 **전형방법** | 서류전형(심사 후 개별통보)

▶ **모집기간** | 2010년 1월 4일 ~ 2010년 2월 28일

=> 자세한 사항은 **대원불교문화대학 학사관리처**
(전화 : (02) 707-10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학 원

【 모집 학과 】

■ **불교심리상담학과정** [대학원 PRE-CERTIFICATION COURSE] (00명)

※ 교과과정 (2년 4학기제 / 한 학기 3과목 수강)
- 유식학과 상담 / 심신통합 이론과 실제 / 상담 및 심리치료이론
- 자아초월심리와 상담 / 부부 및 가족상담 / 대승불교경전과 상담
- 집단상담Ⅱ / 명상과 심리치료Ⅰ (MBSR · DBT · ACT · MBCT · MBSC)
- 개인상담 실습 및 지도 / 상담사례연구 및 지도 / 선심리 상담실습
- 명상과 심리치료Ⅱ (음악 · 무용 · 표현예술)
- => 졸업자에 대한 특전 : 불교심리상담사 1급 자격을 수여

※ **강의시간** | 1교시 : 19:00 ~ 20:30 / 2교시 : 20:40 ~ 22:10)
※ **수 업 료** | 1학기당 400,000원
※ **장학혜택** | 성적우수장학생, 근로장학생, 승려 50% 할인 등
※ **입학자격**
① 본 대학 불교심리상담과정을 이수한 자
② 정규 대학 과정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에서 상담관련학을 전공하여 졸업을 하거나 졸업 예정인 자

불교심리상담사 전문가 자격코스 [POST-CERTIFICATION COURSE]

=> 국제적 대학원 수준의 '명상심리상담사' 양성
(국제적인 불교심리상담 · 치료 전문가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 연계)
=> 불교와 심리상담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워크숍 위주의 토론 강의
※ 불교상담이라는 새로운 학문분야의 이론과 실제를 확립하고, 교계 사찰 및 단체, 불교상담 관련 교육기관 등에서 불교심리상담에 관한 교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 소양과 전문적 능력을 갖춘 불교심리상담 전문강사를 육성하고자 함.
※ **지원자격**
- 불교 관련 학과 및 심리상담 관련 학과 대학원 석 · 박사 과정 재학 중이거나 졸업자
※ **모집인원** | 00명
※ **이수자에 대한 특전**
- 불교심리상담이론 교재 및 자료집 개발 및 발간 참여
- 교계 상담 현장 지원
- 교계 사찰, 단체, 불교상담 관련 대학 · 대학원, 불교교양대학에 강사 지원
※ **수업료** | 1학기당 500,000원 (전원에게 장학금 및 연구비 등을 별도 지원함)

대 학

【 모집 학과 】

■ **불교인문문화학과** (00명)
불교와 사회철학 입문 / 불교문화콘텐츠의 이해 / 불교와 사회생물학
동양철학의 이해 / 민족문화 속의 불교문화 / 불교미술의 이해
불교의식과 현대음악 / 동서불교문화교류사 등

■ **불교심리상담학과** [대학 PRE-CERTIFICATION COURSE] (00명)
불교심리학 / 상담심리학 / 발달심리학 / 심리검사의 이해
불교상담학 / 성격심리학 / 집단상담Ⅰ / 아비담마와 상담
이상심리학 / 선심리와 상담 / 미술치료 · 음악치료
위빠사나수행과 상담 / 상담면접 및 기술 등
=> 졸업자에 대한 특전 : 불교심리상담사 2급 자격을 수여

■ **불교학과** (00명)
근본불교의 이해 / 중관유식 / 불교의 현대적 이해 / 아함경 강독
원효사상의 핵심 / 불교사회경제론 / 선불교의 이해 / 동서문화교류사
현대의 불교의례 / 불교교리발달사 / 전법교화론 등

※ **강의시간** | 주간반 - 1교시 : 14:00 ~ 15:30 / 2교시 : 15:40 ~ 17:10
야간반 - 1교시 : 19:00 ~ 20:30 / 2교시 : 20:40 ~ 22:10
※ **학과목 이수** (2년 4학기제)
- 학년 구분 없이 한 학기에 총 6과목 이내 수강 가능
(공통 필수 수강 2과목, 전공 필수 수강 2과목, 자유 선택 수강 2과목)
※ **수업료** | 1학기당 300,000원
※ **장학혜택** | 성적우수장학생, 근로장학생, 승려 50% 할인 등
※ **입학자격** | 정규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일주문



태국명예불교학박사수여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1월 3일 태국 방콕 캘리포니아 담마까이 대학으로부터 불교학 명예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동화사 약사여래 12대원 기도 입재

대구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은 1월 1일부터 약사여래 12대원 12만배 120일 기도를 입재했다. 기도는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하나원 새터민 수계

천안 만일사 주지 마가 스님은 1월 3일 계사로 안성 하나원 불자교육생 100여 명에게 수계했다.



27보병사단 민간성직자 위촉

옥천 대성사 혜철 스님은 1월 11일 육군 제37보병사단(사단장 소장 이상욱) 민간인 성직자로 위촉됐다.



국제법왕추대법위봉행

대구 법전사 주지 혜륜 스님은 1월 26일 오전 11시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국제승가 법왕추대법위선포 대법회를 봉행한다. (054)972-5545



IBC 올해의 의학자 선정

동국대 경주캠퍼스 한의학과 신흥묵 교수는 IBC 2010년판 '올해의 의학자(International Health Professional of the Year)'에 선정됐다.



공불련 · 병불련 합동 신년하례법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하복동 회장은 2월 27일 저녁7시 30분 조계사에서 병불련과 함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초청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한다.



청소년 디지털 사진공모전

한국불교사진협회 조현숙 회장은 2월 20일까지 제4회 청소년 디지털 사진 공모전 출품작을 공모한다. (010)5477-0498



원심회 수화 초급과정 보조강좌

엄재면 조계사 원심회 회장은 원심회 사무실에서 1월 14~28일 저녁 7~9시 총 5회에 걸쳐 수화 초급과정 보조강사 양성 심화학습을 실시한다.



석관실버복지센터장 임명

김기현 성북구 석관실버복지센터장은 1월 1일 진각복지재단으로부터 센터장으로 임명받았다. (02)957-9923

"생활불교 정립 위한 교육 집중"

불교아카데미 신성기 신임 이사장

"물질적 사회가 끝나고 정신문화 사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흐름에 가장 적합한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아카데미의 제3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신성기 이사장(54 · 법무법인 양지 대표)은 1월 11일 만해 NGO센터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불교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신 이사장은 "정신문화 사회가 도래하고 있는 이 시점에 가장 적합한 것이 불교"라며 "사람들이 불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정립할 수 있는 형태의 생활불교를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이사장은 "리더스클럽을 수료한 350명 동문회원분들이 전문교리과정에 대한 욕구가 많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심화과정을 늘려갈 계획"이라며 "일반인을 포함한 불자들의 교육을 통해 불교 사상과 불교적인 삶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교육을 전개하겠다"고 구체적 방안을 밝혔다.

사법고시 22회 출신인 신 이사장은 1985년 강릉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원 수석부장판사 등 판사로 22년간 재직하다 2007년 변호사로 전업했다.



신성기 불교아카데미 신임 이사장.

신 이사장은 강릉지원 판사 시절 당시 강원도 백담사 오현 스님을 만나 불교와 인연이 시작됐다.

그때부터 불교에 빠져들었다는 그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강릉시 발왕사 자비회(신도회) 회장도 역임하는 등 지역 신행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신 이사장은 "중 · 고교 10여년 간 미션스쿨을 다녀서 기독교 공부도 많이 했다"며 "불자로서의 정체성은 약했지만 변호사 개업 후 '불교아카데미 MY 리더스클럽' 6기생으로 들어가고 불교 법조인 모임인 서초반야회와도 인연이 닿아 불교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한편, 불교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 컨설팅 전문기관인 불교아카데미는 2010에 학술연구 대중화와 현대화된 불교교육 체계의 표준화를 위해 콘텐츠 개발 보급, 지역 MY리더스클럽 확대 운영 등을 사업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불교수행사' 교재 발간 및 '불교교리사' 강좌 마련과 10월 9일 리더스 지원봉사 대축제 등을 계획하고 있다.

박선주 기자 sunjoo0802@naver.com

전신마비 막기위해 항암치료 절실

생명나눔, 1월의 환우 선정 안병권씨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1월의 환우로 다발성경화증을 앓고 있는 안병권(남 · 27세)씨를 선정했다.



안병권씨.

5년 전 군대를 제대한 후 1초 간격으로 딸꾹질을 하기 시작한 안 씨는 다발성경화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발성경화증은 중추신경계의 탈수초성 질환(신경세포의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절연물질인 수초가 탈락되는 질병)중 가장 흔한 것으로, 주로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다발성경화증에 걸릴 경우 감각증상과 운동장애로 무감각, 얼얼한 느낌, 화끈거림 등을 느끼며 운동장애가 올 경우 하반신 또는 사지마비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안 씨는 6개월 항암치료와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고, 그 결과 시신경염으로 왼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안 씨는 병원비 8000만 원을 빚졌지만 전신마비를 막기 위해 향후 1회 250만원에 달하는 항암치료를 12회 이상 받아야 한다.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 (02)734-8050

이나은 기자

아이들 꿈 위해 10년간 기부 약속

'꿈을담는 틀' 아름다운동행에 치료비 지원

출판사 '꿈을 담는 틀(대표 백종민, 이하 꿈틀)'이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연간 1200만원씩 10년간 기부할 것을 밝혔다. 1월 12일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실에서 진행된 기금 전달식에서 백종민 대표는 "출판사 설립 후 기부를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불교계에 기부재단이 없어 항상 아쉬웠다"며 "아름다운동행에 앞으로 연간 1200만원씩 10년간 동참 하겠다"고 말했다.

동국대 국문과를 나와 2002년 출판사 문을 연 백 대표는 인쇄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자는 회사 창립 당시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 꿈틀의 기부액은 매년 6000만원에서 3억 여 원에 달한다.

백 대표는 "학업은커녕 생활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며 "문제집을 주로 출판하는 회사인 만큼 학생들을 돕는데 주로 기부활동을 피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부금을 전달받은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혜경 스님(조계종 사회부장)은 "경제난으로 각계가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뜻을 모아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백 대표는 "기부하는 사람이 받는 행복감도 크다. 오히려 기부는 자신을 돕는 사업"이라며 겸손을 표했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은 이날 전달된 기금을 초 · 중 · 고생 치료비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선주 기자

대한국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원 개원



대한국불교조계종 스님들이 현판식에서 수행정진을 다짐하고 있다.

대한국불교조계종(총무원장 덕산)은 1월 11일 부산 동해구 명장동 옥선사에서 전국비구니원 개원 · 현판식을 봉행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총무원장 덕산 스님을 비롯해 원로원장 묘현, 중앙선원장 법광 스님 등 종단 중진 스님들과 종도 5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에는 대한국불교조계종이 매월 발행하는 삼보신문 부산지사 현판식과 부산 사하구 괴정동 금강사에서 부산 종무원(종무원장 혜경) 현판식도 열렸다.

경인년 새해 서원불공 회향

진각종, 1주간 서원덕목 발원



행원심인당에 운집한 진언행자들이 서원불공 회향불사에서 자심선행을 발원하고 있다.

진각종은 서울 총인원 탑주심인당과 미국 LA 불광심인당 등 국내?외 각 심인당에서 1월 4~10일 1주 동안 봉행된 2010년도 경인년 새해대서원불공을 회향했다. 진언행자들은 경인년 새해대서원불공에서 진각종 서원덕목인 △인류의 심성정화로 평화공존 △정치와 경제의 발전으로 국민생활 안정 △상생화합의 덕행실현으로 사회의 통합 △교법실천으로 지덕겸비의 도제양성 △참회실천의 신행으로 복락증진 등을 서원했다.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는 1월 10일 오전 주석처인 행원심인당(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봉행된 새해 대서원불공 회향불사에서 "우리의 수행공덕이 국가와 인류 모두에게 미치게 함으로써 만선동귀(萬善同歸)의 가치를 자내증(自內證)해야 할 것"이라며 "경인년 한해 부처님의 가지력과 자심선행의 공덕이 넘치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각종은 새해 대서원불공에 이어 1월 18일부터 3월 7일까지 7주 동안 새해49일불공을 봉행한다.

노덕현 기자

노인 · 청소년 위한 무료 치과진료

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궁플란트 협력병원 조인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과 궁플란트 치과(대표원장 최우환)는 1월 18일 '협력병원 조인식'을 개최했다.

궁플란트 치과는 매월 은정불교문화진흥원에서 추천한 무의탁 독거어르신 1명, 가정형편이 어려워 치과진료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 2~3명에게 무료 치과진료를 실시한다.

최우환 대표원장은 장학금 기부와 관련해 "어린 시절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에 매진하기 어려웠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부와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상언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톤대학교 최면학 교수
국제 임상 최면 전문가(ICHT)
공인 심리 상담 전문가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경찰관서, 기업체 등 에서 최면 특강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 2010년 2월 1일(월)오전 10시 ~ 오후 5시 까지
(개강 당일 1회에 한하여 무료수강 가능)
▶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가능

삶을 바꾸는 경이로운 최면의 세계!!

전생 요법 :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몸은 왜 이렇게 아픈것일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 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 치유 : 내안에 누가 있는것 같아요... 누군가 내 머리속에서 뭐라 이야기하는것 같아요 내가 나를 조종 할 수 없어요. 등 환청, 환각에 시달리거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상 행동, 괴벽, 정서불안, 악몽, 가위눌림 등의 증상으로 고통 받는 경우

사주 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 다니니 횡사 악사요...

미국 스탠톤대학교(Stanton University)부설
안내자료 전생요법, 빙의 치유 및 명리학 강의내용 등 자료 비디오 테잎을 보내드립니다.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대사동 248-301(청운빌딩2층)
042) 255-07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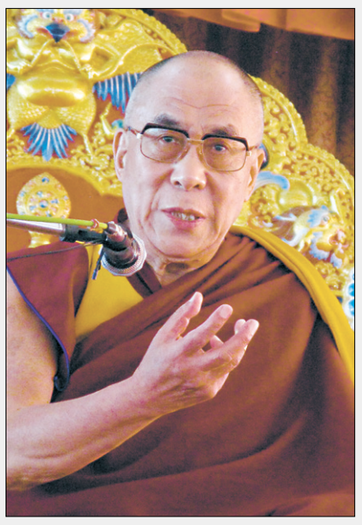
"행복의 뿌리는 정직한 마음"

달라이 라마 인도 보드가야 신년 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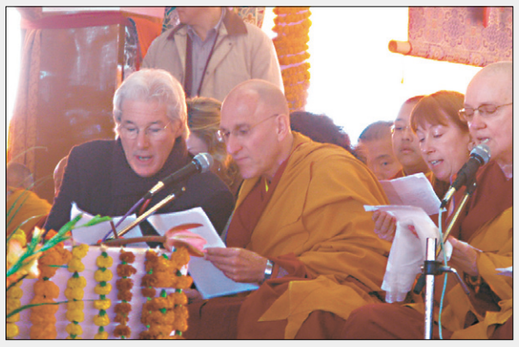
2010년 달라이 라마의 신년 법회가 석가모니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룬 성지 인도 보드가야에서 거행됐다. 1월 5~9일 5일간 개최된 이번 법회는 전 세계 불자 4만여명이 운집, 불법의 대향연을 펼쳤다.

이번 법회에서 달라이 라마는 '21세기 종교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종교인의 바른 자세'를 주제로 "불교도는 불법승 삼보에 진심으로 귀의하고 일상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설하고 "자신이 바로 자신의 스승임을 자각하라"고 강조했다.

법회는 용수보살의 <출세간찬탄문>, 인도의 대학자 아티샤 존자의 <보리도등론>, 롱첸 린포체의 <마음 그 자체를 쉬어라>, 쫑카파 대사의 <도차제설의>를 주제로 했다. 다음은 법문의 요지.



보드가야 칼라차크라 광장에서 신년법문을 설하는 달라이 라마.



미국불자를 대표한 영화배우 리차드 기어(좌측 첫 번째)가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있다.

#진실한 마음 · 행동에 행복 있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자비와 자애심이야말로 마음 치유의 튼튼한 뿌리입니다. 기만하지 않고 모든 행동에 성실하게 진심으로 행동하십시오. 자신의 행위와 마음이 진심에서 우러나야 할 것이며 타인에게 의심을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의심의 극단은 죽음입니다. 정직과 진실을 담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위는 항시 평온을 선사합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줄어들 때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감동합니다.

<입보리행론>에서는 "어디를 가건 중생의 무리에서 항시 자신을 낮춰 보고 중생을 받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부(富)를 얻기 원한다면 주변인에게 자애심을 일으켜 보십시오. 사랑과 자비는 절대 돈과 물질로 얻을 수 없습니다.

종교는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인가' '나의 시작이 있는가' '나의 끝이 있는가' 부처님은 오온(五蘊)을 다스리는, 항상 주재하는 '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온에 의지해 있으며 오온과 따로 분리된 '나' 또한 없습니다. 이제부터 사랑을 명상하십시오. 빈곤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한 명상이기에 쉽지 않은 수행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연기(緣起)의 실상을 다룬 불교

반야 공성(空性)의 기둥인 사성제(四聖諦)는 명료하게 불교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고제(苦諦)와 집제(集諦)는 수행의 근간이 되고, 도제(滅諦)와 멸제(道諦)는 닦아서 성취해야 할 바입니다.

우리가 현재 겪는 불행은 무지(無知)에 의해서입니다. 무지한 의식을 없애기 위해서는 실상(實相)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를 확신할 때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생을 널리 구제하고자 하는 보리심을 향해 귀의하십시오.

인과의 연기(緣起)를 깊이 들어다 보면 <중관>에서 말하듯 서로의 부분들이 서로 의지해 연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행복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원인과 결과 그 자체는 이름 붙여져 존재하는 것이지, 자성(自性)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을 수행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바로 알고 난 후에 마음을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실상이라고 말하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무명(無明)을 없애고 전도된 견해를 끊어서 실상을 바로 보는 지혜를 깨닫는 것이기에 최우선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경계 없는 불법의 가르침

용수 보살의 <출세간찬탄문>의 가르침 처럼 적멸의 지혜로서 연기를 바로 알지 못하면 결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거울에 비춰진 모습과 같습니다. 눈은 결코 생겨남을 완벽하게 인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느끼고 이것으로 느끼며 이것에 느끼는 것'. 그 대상과 행위자 사이에서 무엇을 느낄 때 느껴지는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해 있는 것이지, 독자적이지 않습니다. 이름과 뜻은 둘이 아닙니다. 자성으로 존재하는 행위와 행위자는 없지만,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는 행위자와 행위, 그리고 행위 대상은 있습니다.

법문을 듣고 깊이 사유하며 수행하십시오. 들음으로써 듣고 이해해 꾸준히 생각하게 되면 사유의 지혜가 생겨납니다. 청정한 공성이 바로 중도(中道)입니다. 무명의 훈습조차 완전히 끊기 위해서는 연기로서 존재하는 진여(眞如)를 알아야 합니다. 공을 깨치기 위해 가장 미세한 의식을 일으켜야 합니다. '사물은 독립적으로 있지 않다'고 함은 비할 바 없는 사자후입니다.

<도차제설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유로운 인간의 몸은 보배로운 여의주보다 뛰어남을 알아서 석가모니부처님의 행적을 따라 그와 같이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속히 정진의 옷을 입고 지혜라는 정광명(淨光名)의 배에 오르십시오.

인도 다람살라 = 가연숙 객원기자
omflower@gmail.com

굴곡 없는 새로운 삶 살기를…

청원 석문사, 소년원 방문 위문공연 펼쳐

한국호국불교효예종 청원 석문사(주지 혜전)는 1월 11일 청주 소년원을 찾아 '새 희망 새 출발 새해맞이 초청공연'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청주소년원에서 어머니 스님으로 통하는 혜전 스님과 자비실천운동본부 단장 해광 스님, 지도위원인 조권섭 대양산업 사장, 김연우 감사, 청주 자비실천어머니회 봉사단 등이 참석했다.

위문공연은 웃음치료사 송미자 선생과 김현식 불자가수의 노래에 이은 학생들의 장기와 노래자랑으로 진행됐다.

혜전 스님은 "성의껏 간식거리와 선물을 준비 했다"며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시간이므로 노래와 장기자랑을 하며 마음껏 즐기고 상품도 받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진남 교무과장은 환영사에서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프로그램이어서 의미가 더 깊다"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밝고 희망차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즐거운 생활을 하는 학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권섭 지도위원도 "부디 여기서 나가면 굴곡 없는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청원 석문사의 청주소년원 위로공연 모습.

웃음치료사 송미자 선생과 불자가수 김현식 씨가 노래를 선사했으며 이어 학생들의 장기와 노래로 한껏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위문공연에 이어 석문사 부설 미혼모 지원센터인 자비원 조권섭 운영회장은 청소년 비행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고영종 소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독실한 불자인 조 회장은 울산에서 조선소 기자재를 제조 납품하는 협력업체인 대양산업을 경영하면서 청주교도소 교정위원, 청주소년원 지도위원 등을 맡고 있다.

조권섭 회장은 "앞으로 나 혼자보다는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주위 사람을 모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혜철 충청지사장

한국불교대학 동대문구 분원 개원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회주 우학)은 1월 23일 오후 2시 서울 제기동에 동대문구 분원을 개원한다.

동대문구 분원은 제기동 불로장생타워 4층에 위치한다. 420여 평 규모에 법당과 종무소, 서점, 공양간 등을 갖춘 분원은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중국 청도에 이은 것으로 회주 우학 스님의 1000 분원 건립 불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우학 스님은 1000 분원 건립 불사를 통해 재가 불자들이 손쉽게 사찰을 찾아 불법을 배우고 기도 · 봉사 · 수행 · 공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님은 "불교는 산속에 사찰이 위치해 재가불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며 "산중 사찰에서 벗어나 도심 속 중생 곁으로 다가가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원식에 앞선 22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 30분에는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공식 다음까페 '불교인드라망' 정모법회를 연다.

동대문구 분원은 불교기초교리반을 모집하며 26일(화)에는 오전반을, 28일(목)에는 저녁반을 개강한다.

한편,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뉴욕 도량 확장 및 광주 등에 분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굳건한 정신'의 표상 교수되다

산악인 박영석 대장 東大 석좌교수 임용

동국대(총장 오영교)는 "3월 1일자로 산악인 박영석 대장을 동국대 석좌교수로 임명한다"고 1월 15일 발표했다.

박영석 대장은 1985년부터 산악인으로 활동해 온 동국인으로, 동국대 체육교육학과와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을 각각 1991년과 2003년 졸업했다. 박영석 대장은 2005년 인류 최초의 산악 그랜드슬램(한 산악인이 세계 8000m급 14좌(座)와 7대륙 최고봉, 세계 3극점을 모두 등반하는 것을 일컫는 말)을 달성했다. 또한 2006년에는 에베레스트 횡단등반, 2009년 세계최고봉 에베레스트 남서벽에 코리안 루트를 개척했으며, 2003년에는 체육훈장 청룡상을 수훈하기도 했다.



박영석 대장.

동국대 홍보실 관계자는 "박영석 씨는 끝없는 도전 정신을 통해 후배들에게 목표를 향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정신의 표상이 되어 왔기에, 이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석좌교수로 임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향일암 화재 미궁속으로…

전남 여수경찰서, 14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구랍 20일 발생한 여수 향일암 화재 원인이 화재 한 달 여가 되도록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1월 14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로부터 '향일암 화재의 발화지점과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감정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처음 불이 번진 대웅전 지붕과 벽체가 대부분 소실돼 붕괴됐고 대웅전 내부도 심하게 연소돼 발화지점을 판단하기 어렵고, 화재원인도 인적화원, 불꽃 등에 의한 발화로 추정될 뿐 연소잔류물 만으로는 알 수 없다"고 경찰에 알렸다.

여수경찰은 "국과수 감정결과와 현재까지 수사결과를 분석 · 검토해 화재원인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삼라만상이 모두 베푸는 것"

사암련 · 백제불교회관 신년하례법회



1월 8일 거행된 대전불교신년하례법회서 참가귀빈들이 대전불교 발전을 기원하는 떡 절단 후 건배하는 모습.

대전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안)와 백제불교회관(관장 장곡)은 1월 8일 대전 오페라컨벤션센터에서 대전불교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과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을 비롯한 대전지역 100여 스님과 주호영 특임장관과 대전광역시 박성효 시장 등 500여 관계 기관장이 참석했다.

혜총 스님은 법문에서 "삼라만상 모든 존재는 소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베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며 "내 존재의 이유와 진리가 베풂에 있다. 대전 · 충남 시민이 모두 베푼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 길에 행복이 온다"고 설했다.

법회에 이어 지난해 불교발전에 공이 큰 불자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충남도청 불교회 조항민 부회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표창을, 둔산경찰서 불교회 고대윤 불자와 시청불자회 송민섭 총무가 포교원장 표창을 받았다. 또, 대전사암연합회 신도회 정광태 회장이 대전불교사암연합회장이 수여하는 공로패, 백제불교회관장 표창패는 대덕구청 불자회 최혜화 불자와 대전지방경찰청 불교회 최양선 총무, 대전 운불련 오용환 불자 등이 수여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한국불교 세계화 '최전방 활약'

국제포교사 부산 · 울산 · 경남지부 창립법회 갖고 본격활동

우리 절에 찾아온 푸른 눈의 외국인이 다가와 '삼귀의'가 무엇이냐고 물어온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불(佛) · 법(法) · 승(僧) 삼보(三寶)를 믿고 따른다는 뜻의 한자로 이뤄진 삼귀의(三歸依)는 영어로 'The three refuges'다. 'refuges'는 피난이나 도피, 은신처나 보호막 등을 일컫는 단어로 종교적 의미로 쓰일 때는 마음의 위안 등으로 표현된다.

한국 불교문화를 알고자 사찰을 찾은 외국인을 안내하고 포교할 수 있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어, 제2외국어 등으로 포교하는 이들이 있다. 국제포교사이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박상필) 부산 · 울산 · 경남지부(지부장 김성림, 이하 부울경지부)는 1월 10일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 대웅보전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2007년 10월 부처님 가르침을 영어로 배우고자 열렸던 부산 영광도서에서 '불교영어교실'을 모태로 처음 모였던 국제포교사들은 2009년 7월 국제포교사 양성과정 설립에 이어 응시자 전원합격이라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창립회원은 제14기 국제포교사 22명과 기존의 국제포교사 6명 등 28명이다. 이들 가운데 일어 가능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6명은 영어 전문 국제포교사다.

법회는 전회원이 참여한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국제포교사들의 모임답게 삼귀의와 보현행원을 영어로 봉송하고, <반야심경> 독송, 홍종욱 14기 대표의 지부 경과보고, 김성림 초대지부장 임명장 수여, 감사패 증정, 격려사 및 축사 등의 순으로 여법하게 진행됐다.

김성림 초대지부장은 "이제 막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전법의 길로 나아가려 하는데, 부디 신입국제포교사들에게 신심과 원력, 그리고 불퇴전의 용심에 가피를 내려 불법을 널리 펼칠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부산 · 울산 · 경남지부 국제포교사들이 부처님 전에 정성스레 육법공양을 올리며 불법홍포를 발원한 후 기념촬영했다.

감사패는 2008년 7월 제14회 국제포교사고시에 응시하기 위한 첫 국제포교사 양성과정에 공부장소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과 3개월의 짧은 교육과정임에도 훌륭한 성적을 거둔 이두석 강사(11기 국제포교사)에게 전달됐다.

이날 행사에는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과 제14교구본사 범어사 포교국장 일광 스님, 제15교구본사 통도사 포교국장 선해 스님 및 박상필 조계종 국제포교사회장, 우성연 대구 · 경북지부장 , 서울지부 회원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범어사 포교국장 일광 스님은 "마음으로 포교해야 감동을 줄 수 있고, 내면의 본질적 울림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포교를 해도 소용없다"며 "불교 영어에 관한 지식과 함께 자기 생활의 완성을 이루는 수행에도 더욱 매진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부산불교가 무너지면 한국불교가 위태로울 만큼 불심이 깊은 도시의 국제포교사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불교가 미래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울경지부 회원들은 앞으로 홍법사 국제부에서 매월 셋째 주 일요일마다 주최하는 외국인 문화체험 행사에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근간에 깊숙이 자리한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고 나아가 부처님 가르침을 포교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1월 사물놀이, 2월 연 만들어 날리기, 3월 김밥과 만두 만들기, 4월 태권도, 5월 등 제작과 제등행렬 체험, 6월 다도, 7월 서예, 8월 템플스테이, 9월 송편 만들기, 10월 남산투어, 11월 탈춤, 12월 김치 만들기 등 월별 프로그램을 갖추고 신입 국제포교사들을 기다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사찰의 외국인 템플스테이 행사를 지원하고, 사찰 주요 문화재의 영 · 일어 안내문 정비, 기존 포교사 영어법문 교육, 부울경 국제포교사 양성과정의 지도강사 등 한국불교 세계화의 최전방에서 활약하게 된다.

지난 해 부산 대표 사찰인 범어사의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외국인은 432명으로 내?외국인 총 방문객 2008명 중 20%를 넘어섰다. 이는 단순한 관광지로 사찰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불교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의 절을 찾아온 외국인들이 법당을 배경으로 기념사진만 찍고 돌아서서는 안 된다. 국제포교사들이 먼저 다가가 참선, 다도, 예불, 발우공양, 절 등 우리 불교문화의 단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소개해나간다면, 고국에 돌아가서도 불교와의 인연을 놓치지 않고 불자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부산은 우리나라의 불교수도이자 전 세계에 불법을 홍포하는 소통의 허브인 만큼, 부산 · 울산 · 경남지역의 국제포교사들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 본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근검절약해 베풀어야 진정한 회향"

통도사 53일 화엄산림대법회 성료


1월 14일 통도사에서 봉행된 화엄산림대법회에서 사부대중이 정근하는 모습. 맨앞이 주지 정우 스님.

53일간의 구법여행 통도사(주지 정우) 화엄산림법회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마지막 화엄산림대법회가 봉행된 1월 14일 통도사 설법전은 회향 법문을 듣기위한 불자 3만여 명이 설법전과 지하 선방, 공양간, 대웅보전 앞마당 등 경내를 가득 메웠다.

이날 前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화엄경>의 의미와 참다운 회향을 주제로 법문했다.

지관 스님은 "경주 최 부자집은 9대가 부자로 살았는데 이들은 부를 독점하지 않고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물질적 · 마음적으로 회향해왔기 때문에 오랜 세월 부자로 살 수 있었다. 부자는 아니어도 항상 근검절약하고 검소하게 생활해 남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아낀 것을 내어주는 습관이 진정한 회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통도사에서 해마다 화엄산림대법회를 통해 살아가면서 공덕을 짓는 지름길을 알려주는 만큼 오늘부터 일상으로 돌아가면 부처님과 보살님, 화엄신장과 본인 스스로에게도 환희심이 넘쳐나는 회향을 통해 공덕을 쌓고, 내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설했다.

지관 스님은 작년 5월 서거한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추모제에 참석했던 소회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스님은 "갑작스럽게 노 前 대통령님이 떠나고 보니, 간 곳도 온 곳도 머무른 곳도 없었다. 우리도 언젠가 떠나갈 때 후회 없도록 선근공덕을 많이 지어놓자"고 당부했다.

이번 화엄산림법회는 하루 평균 1만여 명, 주말 2만여 명, 입재 및 회향일마다 3만여 명이 참석해 55만 여 불자들이 통도사를 다녀갔다. 지관 스님의 법문이 끝난 후 이어진 회향 법회에는 故 오근섭 前 양산시장의 49재 막재도 더불어 봉행했다. 박지원 기자

어린이포교 위한 특별한 하루

23일, 하루찻집과 특별한 법석 개최

동련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부산지구(회장 효선, 공덕원 주지)는 1월 23일 부산불교회관 일원에서 어린이 포교를 위한 하루찻집과 특별한 법석을 개최한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부산지구 주관, 부산시불교연합회와 부산시불교연합신도회, 동련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해맑은 어린이, 희망찬 우리 미래'를 캐치프레이즈로 어린이 포교 기금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 당일 오전 11시~오후 8시까지 부산불교회관 2층에 위치한 전통찻집 보송에서는 '어린이포교 기금마련을 위한 하루찻집'이 운영된다.

오후 3시 불교회관 8층 여여선원(주지 정여) 대법당에서는 '부산시불교연합회장 정여 스님 초청, 어린이 포교를 위한 나눔의 법회'가 봉행된다. 본 법회에는 동련 이사장 심산 스님의 격려사와 설동근 부산시연합신도회장의 축사, 정여 스님의 법어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법륜유치원 관음반 어린이 18명이 꾸미는 동극(童劇) '부처님의 전생(부제 아기부처님 오셨네)', 보리동이의 인형극 '하얀눈썹 호랑이', 공덕원 연화합창단의 찬불가 합창 등 다채로운 특별공연도 선보일 예정이다. (051) 864-4569 박지원 기자

"지혜의 돛단배로 성불의 큰 바다를"

사하구불교련, 경인년 신년하례회 봉행

부산시 사하구불교연합회(회장 상연, 극락암 주지)는 1월 11일 감천동 약수사(주지 혜우)에서 경인년 신년하례회를 봉행했다.

행사는 삼귀의례 및 <반야심경> 봉독을 시작으로 발원문 낭독(부회장 혜원 스님, 성불사 주지), 회장 상연 스님의 신년사, 내빈 축사, 축원(감사 현각 스님, 서림사 주지), 축하떡컷팅, 불우이웃돕기 쌀 전달식 등의 순으로 여법하게 이어졌다.

상연 스님은 신년사에서 "정치인은 나라의 살림을, 기업인은 회사를, 선생님은 학생을, 국민 개개인이 저마다의 위치에서 충실히 소임을 다할 때 대한민국의 희망이 보일 것"이라며 "새해에는 자비의 문을 열고 지혜의 돛단배가 되어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한다면 성불이라는 큰 바다를 성취할 것"이라고 설했다.

신년하례회에 이어서는 지역 내 불우이웃에 쌀 100포의 전달식도 함께 가지며 새해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눴다.

이날 법회에는 회장 상연 스님, 수석부회장 상범 스님(금강정사 주지), 상임부회장 법인 스님(약천사 주지),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자인 스님(길상사 주지) 및 조경태 국회의원, 김흥남 사하구의회의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051)291-9681

박지원 기자

社告

현대불교신문 부산지사장을 모십니다

제출서류 및 기한 :
■ 구비서류: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포교활동 계획서, 추천서(스님 및 단체장), 주민등록 등본 각 1통 및 사진 2매
■ 제출기한: 2010년 1월 30일(토)
■ 제출방법: 우편(30일까지 도착분 유효) 또는 본사 방문 접수

활동분야 :
지역내 구독확장,
광고수주 및 수익사업,
기사제보 및 취재 지원

제출처 :
(우)110-734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87 6층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지원팀 (02)2004-8200 팩스: (02)737-0697

화제의 불화

■ 후손까지 번영하게 축원불공 마쳐
■ 재난과 액운을 쫓고 소원성취 영험


「세존이시여 무슨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 보살에게 이르시길」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설사 큰 불속에 있어도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헤매도 물이 얕은곳으로 인도하고, 폭풍을 만나도 그들이 탄배는 침몰하지 않으며, 도적과 강도가 들어도 해하지 못하고, 여인이 자녀를 낳기를 원하면 원하는 아들 딸을 낳을 것이고, 부귀영화와 명예를 얻을것이며, 죽을병에 있어도 나찰귀의 액란에서 벗어나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게 된다.

수월관음도

불자가정에 꼭 있어야할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

여의주를든 수월관음도는?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자재한 신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노닌다. 그대는 잘 들어라 관세음보살의 행은 시방 어느곳에나 잘 응할수 있다.」<관세음보문품경에서>

수월관음도는 바다물속에 비친 달속 여의주를 든 관세음보살의 밝은 모습으로 중생들의 근심, 걱정 고통과, 액란을 소멸하고 세상사는 동안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키고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워지는 신비의 구슬로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영험을 지닌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약속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불화다.

우리나라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에 왕실과 귀족 가문에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모셨으며 조선시대에는 명문 불자 가문에서 관세음 부처님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는 수월관음도를 그려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하고 가문의 수호신으로 집안에 모시기 시작했다.

■ 만가지 부적이 필요없는 영험!

조선시대 불화를 한국불화의 佛母金成浩화백께서 불력으로 재현한 영험의 명작으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를 보는 순간 누구나 영험을 느끼게 된다. 수백년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방, 또는 거실, 사업장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다. 3단 최고급 액자와 100% 천연 전통 한지에 판화 인쇄된 수월관음도는 특별 제작한 불화로 액자 뒷면에는 불광사 보증서와 대대로 물려주게 소장인란이 있다. 전화로 신청 하시면 특급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린다.

규격 : 가로 67Cm×세로 85Cm 가격195,000원
문의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신용카드분할가)

2010년 드는 삼재시작 용띠, 쥐띠, 원숭이띠, 조심

삼재소멸과 닥처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묵는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쥐띠,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뱀띠,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드리며 지갑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금액 45,000원
문의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입금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 공급가격 별도 상담요)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쳐!

자동차용호신불

■ 신차출고시 사고예방의 필수품!
■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 호신불을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45,000원. 신청전화 :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30%할인)

안승현 대령 취임 환영법회 봉행

제6탄약창 호국장영사(지도법사 이성강 포교사)는 1월 10일 '무사고 부대달성 및 제19대 창장 안승현 대령 취임 환영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前 포교원장 송광사 주지 도영 스님, 남원 선원사 운천 스님을 비롯해 안승현 창장, 서유현 서기관 등 부대간부와 불자장병, 포교사, 남원 선원사 신도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도영 스님은 법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책임지는 삶,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삶 속에 능동적으로 사바의 세계를 살아야 한다" 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군생활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 했다.

이날 도영 스님과 남원 선원사 신도회는 준비해간 햄버거와 떡, 과일, 음료수를 불자장병들 과 함께하며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도, 문화재 관리 만전

국보 · 보물 새로신청

전북도(도지사 김완주)는 "새로 구성된 전라북도문화재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도내 문화재 관리 · 보존 · 활용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월 13일 발표했다.

2009년 전북도는 무주 관음사보살상, 남원 용주암 석불 등 4건의 문화재를 새로 지정했다. 또, 미륵사지 출토 금동향로는 국보로, 선운사 비로자나삼불좌상과 선운사 비로자나삼불벽화는 보물로 지정할 것을 문화재청에 신청했다.

미륵사지출토 금동향로는 한국에서 처음 출토된 수족형(獸足形) 향로이자 출토지가 확실한 향로이다. 중국에서 일본으로 이어지는 중간고리에 해당하는 8세기경의 수작 문화재로 손꼽힌다.

선운사 비로자나삼불좌상은 조각승 무염의 최고 걸작으로 평가되며, 선운사 비로자나삼불벽화는 국내 유일의 삼불 후불벽화이자 대형 후불벽화이다. 유기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향후 보존가치가 뛰어난 문화유산 발굴작업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문화재 보존관리의 질적 향상과 관리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문화재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묵빈대처하며 화합해 나가자"

태고종 종정 신년하례법회 선암사 대웅전서 봉행



1월 12일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봉행된 태고종 종정 신년하례법회 모습.

태고종도들의 화합과 중흥발전을 서원하는 신년하례법회가 봉행됐다.

태고종(총무원장 인공)은 1월 12일 태고총림 선암사(주지 경담) 대웅전 앞마당에서 종정 혜초스님을 배알(拜謁)하고 신년하례를 드리는 경인년 종정예하 친견 신년 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승정원 · 원로회의 · 총무원 · 중앙종회 · 중앙사정원 · 전문종무기관 · 전문위원회의 원로중진 간부스님과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및 교구 간부스님 · 전국 각 사암 주지스님 · 전국비구니회 · 전국교임전법사회 · 전국신도회 · 청년회 · 봉원사, 선암사 대중스님 등 200여 종도스님을 비롯해 노관규 순천시장 등 순천시 주요기관장 내빈이 동참했다.

법회는 지철 스님과 선암사 합창단의 연주로 시작된 식전공연에 이어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선조사 스님에 대한 묵념, 상축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종정스님에 대한 신년하례와 법어, 인사말, 사홍서원이 이어졌다.

혜초 스님은 법어를 통해 "말세에는 모든 종단이 혼란스럽더라도 묵빈대처(默賓對處) 해야 한다. 제각기 입이 있다고 설왕설래하지 말고 묵빈대처하며 화합해서 종단의 대내외적 일을 잘 해나가야 한다"고 신년교시를 내렸다.

이어 스님은 <금강경오가해>에서 함허(涵虛) 대사가 말한 "멈출 줄 모르고 흐르는 쓰레기 같은 시간과 끝없는 들판 같은 공간, 그 사이에 우리 인간은 존재하고 있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허망을 내어 새해니 묵은해니 하는 말을 한다(歷千劫而不古 亘萬歲而長今 多經海岳相遷 幾見風雲變態)"는 말을 인용해 "시간은 어느 누가 주는 것도 무엇이 보내온 것도 아님을 자각해 정견(正見)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또, 상단축원문을 인용해 "중생이 부처님께 고하면 다 이뤄지는 것이 빈 골짜기에 메아리가 들리는 것 같고, 중생이 부처님께 원을 세우면 소원대로 이뤄지는 것이 맑은 물에 달이 비춰지는 것 같다"며 종도들의 정진을 강조했다.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인사말에서 "용맹과 부지런함의 상징인 호랑이처럼 종도들도 확고한 자신감과 굳은 각오로 종단의 위상을 드높이고, 안으로는 내실을 다져가는 한 해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오늘 신년하례를 계기로 종도 모두가 단합하고 화합하여 종단의 발전과 중흥의 원력이 모아지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도 환영사에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위한 종단화합으로 분열과 투쟁을 종식하고 본래의 위상을 회복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불자들과 순천시민의 품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을 실시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선 9일, 익산불교신도연합회(회장 박중근)도 익산 관음사 대웅전에서 경인년 신년하례 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익산 사암연합회장 백운사 우성 스님과 대용화사 혜산 스님, 정각사 정산 스님 등 지역 사암연합회 스님들과 김완주 전북도지사, 이춘식 국회의원, 이한수 익산시장과 각 사암 신도회 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익산불교신도회 박중근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미륵사지 사리장엄이 나투시면서 지역불교발전의 계기가 마련됐다" 며 "서로 화합하며 성숙한 신행활동을 통해 불교의 위상을 높이도록 한층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용화사 주지 혜산 스님은 법어를 통해 "익산지역의 불자들은 큰 복을 받고 태어난 불자들이다" 며 "지난해의 묶은 때를 벗고 새해 원대한 뜻을 세워 열심히 수행정진해 지역의 모범이 되는 불자들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장애인 위한 고용사업장 운영

재활사업 모델로 20억 투입 건설 중

광주지역 중증장애인을 위한 고용사업장을 불교계 사찰이 운영하게 됐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구랍 29일 광주 남구에서 건립중인 '광주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이하 사업장)' 운영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지원사찰로 광주 무등산 증심사(주지 지장)를 선정했다.

사업장은 대규모 일자리의 창출을 통해 다수의 장애인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개념의 장애인 재활사업 모델로 20억원(국비 10억, 구비 10억)이 투입돼 광주 남구 송하동에 전체면적 2126㎡, 지상 1층 3개동으로 건설 중이다.

사업장이 완공되면 주로 농산물과 김치 등으로 생산농가와 계약을 맺고 농산물의 가공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게 된다.

지장 스님은 "장애인을 비롯해 이주여성, 일할 수 있는 노인 등 일자리 소외계층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사회참여와 소득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대 스님들 유지 받들어…

선운사, 13일 기념비 제막식 봉행



고창 선운사 부도전에서 봉행된 부도비 제막식 모습.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태허 스님 열반 12주기를 맞아 연곡 · 금곡 · 태허 스님 부도와 태허 스님 부도비 제막식을 1월 13일 선운사 부도전에서 봉행했다.

행사에는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을 비롯해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 관음사 재곤 스님, 연곡문도대표 재연 스님, 금곡문도대표 성락 스님 , 태허문도 대표 법경 스님 등 1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법만 스님은 "선대 스님들께서는 아무런 표식도 남기지 말라하셨으나 문중 스님들의 배려로 연곡 · 금곡 · 태허 스님의 부도와 비를 모시게 돼 감사하다"며 "스님들의 유지를 받들어 서로 화합하고 수행 정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운사는 제막식에 앞서 내소사 선원장 철산 스님은 포살법사로 모시고 경인년 동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지구촌공생회 전북지부 공생봉사단

그늘진 곳 찾아 대비원력 실천

한창 눈보라가 몰아치던 구랍 11일,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에 솜이불과 전기매트를 짊어지고 전북불교회관으로 들어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활동을 펼치는 지구촌공생회 전북지부 공생봉사단(지부장 원광, 봉사단장 정진열) 단원들이다. 이들은 지난주 후원자 대회에서 마련한 비용으로 전북불교회관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어려운 처지의 이웃들에게 전달할 솜이불과 전기매트를 전달하러 왔다.

지구촌공생회는 2003년 금산사 회주 월주 스님의 원력으로 창립됐다. 이곳에서 활동하던 전북지역 회원들은 보다 활발하고 내실있는 활동을 펼치기 위해 2008년 7월 지구촌공생회 전북지부를 결성했다. 해외활동과 함께 국내 복지활동에도 힘써 보자는 회원들의 뜻에 따라 금산사 부주지 원광 스님을 지부장으로 모시고 정진열 공생봉사단장, 정상권 대외협력단장, 강만곤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전북지부가 결성됐다. 전북 공생봉사단도 조직해 기존의 지구촌공생회 활동 외에도 지역의 경로복지사업과 자원봉사활동 후원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중이다.

전북지부는 지구촌공생회가 중점적으로 후원 · 참여하고 있는 미얀마, 라오스 등 제3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사업은 물론 제3세계 우물파기 사업 등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현재 48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전북지부 공생봉사단은 매월 정기적으로 전북불교회관 경로식당에서 예쁜 미소와 함께 급식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서원노인복지회관에서의 자원봉사활동도 이들의 빼놓을 수 없는 활동중 하나이다.



구랍 2일 후원자대회때 공생봉사단 사진. 일감 스님(지구촌공생회 전북 공생봉사단 운영위원, 옥련암 주지)과 함께.

노인양로시설인 김제 희강원과 군산 보현요양원에서는 다른 이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진 곳까지 빼놓지 않고 청소하고 살피는 것도 잊지 않는다.

지역의 사찰에 대한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이어서 공생봉사단 조직과 함께 김제 흥복사와 완주 옥련암의 연밭을 조성하고 정비하는 한편 주변에 녹차 나무를 심어 차밭을 조성하는 일에 일조하기도 했다.

장마나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여름철에도 만사를 제쳐두고 사찰로 달려 나와 진입로나 배수구가 막힌 곳은 없는지 살피고 잡목과 잡초를 제거 하는 것도 공생봉사단의 몫이다.

인종과 국경을 초월한 지구촌 복지공동체 실현과 인류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지구촌공생회의 설립정신에 걸맞게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관음보살의 대비원력을 실천하는 지구촌공생회의 공생봉사단이 있음으로 지역사회 불교봉사활동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차게 된다. (063)275-0037

조동제 전북지사장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 석가모니 부처님 |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 대 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2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스스로 언제, 어디서나 쑥뜸과 지압을 간편하게

신개념

쑥뜸 지압봉 (특허 및 디자인 출원)

황토재질의 금도금 수제명품! 뜸 자국, 화상 걱정 없는...



일반형 99,000원 | 고급형(음각) 128,000원 | 고급형(양각) 148,000원



쑥뜸목



쑥(30개입)



일체형 쑥뜸지압봉

■구성
쑥뜸 지압봉 (16.5cm)
휴대용쑥 (2개입) +
쑥뜸 목 + 쑥 (30개입)
쑥 - 추가 별도구매 가능



이런 분께서 사용하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수행 정진할 때 또는 경전 읽을 때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
- 무릎통증, 허리통증이 있으신 분.
- 노안이 시작되었거나 진행중이신 분.
- 시력저하로 고민이신 분.
- 손발이 차신 분.
- 코가 자주 막혀 고생하시는 분

쑥뜸지압봉은 휴대가 간편하여 여행이나 출장시에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며, 온가족이 함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선물용으로 구입하실 때는 이름을 새겨 드립니다.

국제품질경영시스템 ISO9001 / 14001인증업체
다우정밀 서울시 중구 입정동 168-1
구입문의 02)2263-6853 / 011-348-6853

극락세계 갈 시간을 돌려놓고 20년을 더 살았으니…

26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보원사지

우리는 왜 시간이 흐른다고 표현할까? 물이 흐르듯 시간도 졸졸졸 흐르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꽝꽝 얼어붙은 계곡에서는 시간이 흐름을 멈추고 있을까? 얼음장 밑에서 흐르는 물처럼 시간도 흐르고 있는 것일까?

신년벽두 시간의 흐름을 두고 망상을 피워댑니다. 불현듯 시간이 멈춰 선 곳은 없을까?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그런 곳이야 없겠지만 그런 의미를 간직한 곳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충남 서산으로 달려갑니다. 솜이불을 덮은 듯이 포근한 백제의 미소가 있는 곳, 드넓은 옛 절터에 큰스님의 법향이 남아 있는 곳을 찾아 갑니다. 보원사지(普願寺址, 사적 제361호) 가는 길이 바로 시간이 멈춰선 것 같은 곳입니다. 한파 주의보가 내린 겨울날이라서 길은 미끄러워도 마음결은 단단하기만 합니다.


보원사지에 오롯이 남은 법인국사 부도와 탑비.


옛 보원사의 규모를 짐작케하는 당간지주.

발굴중인 보원사지 당간지주 석탑 등 보물 즐비
너른 절터 눈 덮인 법인국사 부도와 탑비 세월의 흐름 멈추게 한 듯
광종의 전폭적인 귀의로 당시 백성들 불심 강화

보원사지 그 넓은 터가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인 옛 절터를 뒤덮은 눈은 이곳의 시간도 덮어서 흐름을 정지시킨 듯합니다. 높다란 당간지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당간대를 지탱하고 있는 듯하고 5층 석탑의 옥개석마다 천상의 신들이 걸터앉아 미묘한 음악을 연주하는 듯합니다. 당간대 꼭대기에서 펄럭이는 깃발의 소리와 석탑에 걸터앉은 천상 신들의 주악이 한 줄기의 겨울바람으로 불어 멈춰진 시간을 가마득한 과거 속으로 몰고 가는 느낌입니다.

당간지주와 5층석탑 뒤편에 네모나게 다듬어진 반듯한 터에 훤칠한 부도가 하나 서 있고 그 옆에 탑비가 서 있습니다. 고려 태조의 귀의를 받고 그 아들 광종의 존경을 한늘같이 받아 왕사와 국사를 지낸 법인국사(法印國師, 900~975)의 영롱한 삶이 전해지는 공간입니다.

현덕 2년(955) 여름에 대사는 법체가 정상을 어겨 불편하여 찡그린 얼굴로 질병을 보였다. 어느 날 밤 꿈에 거사 30여 명이 배를 몰고 와서 "대사를 배에 모시고 서방극락세계로 가려고 왔습니다."고 하였다. 대사가 이르기를 "이것이 내가 타고 서방으로 갈 반야용선이구나." 하고 다시 말하기를 "정성껏 천교(天敎, 불교)를 펴서 널리 고해중생을 제도하려 하였으나, 내가 세상을 떠나는 때가 어찌 그다지도 급히 왔는가." 하였다. 이 말을 들은 거사들이 다음시기로 미루고 배를 되돌려 갔다. 그 후 수명이 오래 연장되어 화엄종지를 더욱 왕성하게 폈으니 이는 정신이 몽매에 통하고 영혼이 유명(幽明)을 경험 한 것이다.

현인 국사가 입적한 시기는 975년이고 위 비문의 내용에서 극락세계로 가려다가 시간을 유예시킨 시기는 955년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앓아 극락세계로 반야용선을 타고 가려다가 '몽매에 통하여' 다시 이승의 삶을 이은 것이 20년이나 되는 셈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사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경지를 수행의 높은 곳에서 찾으려 합니다. 물론 그것이야말로 탐착이며 망상이란 것을 알지만, 마음의 구름을 걷어내고 생사를 자유자재하게 하는 대도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하기만 합니다. 법인국사는 바로 생사의 길에 놓인 시계 바늘을 자유자재로 돌렸던 분이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연일 한파가 몰아치니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도인의 경지가 새삼 부럽기만 합니다.

경인년, 호랑이의 해를 말하자니 법인국사의 비문에 나오는 호랑이와 관련된 이야기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천불도량에 들어가 향을 사르고 기도하던 중 7일째 되는 날 밤 꿈에 500명의 스님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스님의 소원을 부처님께서 들어 주셨음을 알려드리니, 화사(畵師)를 청하여 오백나한의 탱화를 그려 안선보국원(安禪報國院)에 모시도록 하십시오"라고 권했다. 대사가 꿈에 이 같은 지시를 받고 말하기를 "옛날 내가 보원사에 있을 때 3본(三本) 화엄경을 봉지하고 날마다 중야(中夜)에 불상을 모신 법당에서 경행(經行) 하기를 몇 년을 계속 하였다. 홀연히 어느 날 밤 삼보전 객실 앞에 한 스님이 있기에 '스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다. 대답하기를 '성주원(聖住院)에 주석하는 오백승(오백나한)인데 인연 따라 제각기 지나게 되어 이곳을 경과하게 되었으니 원컨대 여기에 머물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입방을 요청하였다. '지객(知客)인 삼보에게로 가라' 고 하였는데 발을 씻고 내 방 쪽으로 가기에 내가 먼저 방으로 돌아가서 들어오라고 청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어디론가 가버렸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 고 하였다.

다음 날 아침 지객에게 "어제 밤에 객스님이 온 적이 있었는가?" 라고 물었더니 지객은 "밤새도록 아무스님도 온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다만 뜰에 가득 범의 발자국만 있을 뿐이므로 "내가 십만게인 잡화경(雜華經, 80화엄경)을 봉지하고 옥상(玉像, 불상)에 귀의한 탓이며 오백나한이 연궁(蓮宮, 사원)에 강림한 까닭으로 영자(靈姿, 꿈에 나타난 나한을 가리킴)를 감득하게 된 것이다" 하였다.

다소 긴 이 이야기는 법인 국사가 보원사에서 겪은 불가사의한 일화입니다. 밤에 찾아 온 객승이 인근 성주사의 오백나한 가운데 한 분이었고 그가 다녀간 흔적을 무수한 호랑이 발자국으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은 법인 국사가 화엄경을 지극하게 연구하고 봉지한 까닭이라고 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인국사의 부도(보물 제105호)는 키가 훤칠합니다. 높이가 4.7m인 이 부도는 팔각원당형의 전통을 잘 계승하고 있습니다. 옥개석을 두껍게 덮은 눈과 지대석까지 덮어버린 눈이 부도의 화려한 전모를 감상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눈이 덮인 모습을 볼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하니, 눈에 덮인 부도의 맵시는 겨울 부도밭 여행의 또 다른 맛으로 다가옵니다.

탑비의 이름은 '가야산 보원사 고국사 제증시 법인삼중대사지비' 입니다. 흔히 '해미 보원사 법인국사 보승탑' 이라고 합니다. 대사를 왕사로 모시다가 입적 직전에 국사로 모신 고려 광종이 내린 시호가 보승탑(寶乘塔)입니다. 비문은 한림학사 김정언(金廷彦)이 왕명을 받들어 지었고 글씨는 한윤(韓允)의 솜씨입니다.

법인국사 탄문(坦文) 스님은 신라말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꿈자리가 심상치 않았으니, 한 스님이 황금빛 과자를 주는 꿈을 꾸고 잉태했다고 전합니다. 법인국사는 일찍이 출가를 원했는데 어머니가 태몽을 생각하며 흔쾌히 출가를 허락했다고 하니 전생부터의 지중한 법연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라의 원효대사가 살던 향성산 옛 절터에 암자를 짓고 수행했으며 스승 신엄대덕에게 화엄경을 배웠습니다. 화엄종의 승려였던 법인 국사는 925년에 태조의 왕후 유씨가 임신을 하자 왕명을 받고 아들을 낳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태어난 왕자가 후일의 고려 4대 왕 광종입니다. 광종은 지방 호족 세력 중심의 초기 고려를 왕권 중심의 강성한 국가로 변화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만큼 그의 시대는 정치적으로 복잡한 일이 많았을 것이고 정신적 귀의처인 법인국사의 조력이 필요했을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광종의 절대적인 신임과 법인 국사의 흐트러짐 없는 수행이 결부되어 한 시대의 정신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럼 법인 국사의 법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어린 아이 같은 궁금증을 비문의 한 대목이 풀어줍니다.

천복 7년(942년 태조25) 7월 황해도 연안지역에 해충인 황벌레가 농작물의 싹을 마구 뜯어 먹고 있었다. 그리하여 퇴충기도를 위해 대사를 법주로 모시고 <대반야경>을 강설하기로 하였다. 스님이 여시아문 운운으로부터 일음(一音)으로 법을 연설하자마자 모든 해충들이 물러갔으며 그 해에 풍년이 들어 태평을 이루었다.

세상에 벌레 쫓는 기도가 있을 수 있느냐고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퇴충기도' 를 올려야 할 정도로 급한 일이었을 겁니다. 천지신명에게 비는 것이 아니라 <대반야경>을 강설하는 법석을 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사정이 급하다고 하여 기복에만 떨어지면 지혜는 어디서 구한다는 말입니까? 법인 국사는 기복을 반야의 지혜로 승화시킨 대덕인 것입니다.

보원사지에 서면, 눈 덮인 보원사지에 서면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합니다.

거기 깊은 침묵으로 서 있는 당간지주와 5층 석탑 그리고 법인국사 부도와 탑비가 시간을 자꾸만 뒤로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사실 아득한 과거 속에 빛나는 법성(法性)은 오늘의 보원사지에 하얗게 쌓여 있습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태성전기난로
Tae Sung Power Heater
주문당일배송
불자님을 위한 특별할인 보급
300대 한정판매
TS 7300 (1.2kW) = 68,000원 ➡ 58,000원
TS 7200 (2.0kW) = 78,000원 ➡ 68,000원
TS 7000 (3.0kW) = 88,000원 ➡ 78,000원
강력한 화력 / 저렴한 유지비 / 잔고장이 없는 강력난방
실내전체가 훈훈한 태성전기난로 유지비까지 저렴하고 정말 좋네요!
초강력 난방으로 전기료 절약!!
1일 8시간 사용시
3kW 기준 1,668원
(누진세 미적용)
실내전체가 훈훈해지는 태성전기난로
일반히터는 히터주변만 따뜻하지만 태성히터는 실내온도를 상승시켜 실내공기를 훈훈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스토브가 넘어지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전도 안전스위치 부착"
태성전기난로 이런 곳에 사용하세요
■ 24시간 쾌적한 난방이 필요한 곳과 지속적인 연료 주입이 어려운 장소
■ 상주 인구가 많아 산소결핍으로 자주 환기를 해야 하는 곳
■ 이동 인구가 많아 시설물 손상에 의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곳
■ 대형매장이나 식당 등 주난방은 있으나 사각지대가 있어 보조난방이 필요한 장소
100% 국내산/중국산과 비교불허!
●복고풍 디자인의 안전한 전기히터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한 소형본체
●전도 안전 장치로 쓰러지면 자동으로 전원차단
●이동이 간편하고 온도조절이 용이
●상판위에 물을 데워 실내가습효과
●360도 전방향 적외선 열기전달
●무소음 / 무취 / 무연
1년 무상 A/S보장!
저렴한 유지비로 초강력 난방
전국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중
주사용처 : 사무실 등 협소한 장소, 이동이 잦은 곳, 접객업소(식당/주점/팬션)
구입문의 : 080-810-8800
입금계좌 : 농협 302-0127-6837-61 양유정 (택배비 2,500원 소비자 부담)
고구마, 떡도 익히는 고열량 방출
가습기 기능
주전자에 물을 담아 올려 놓으시면 건조한 겨울 실내의 습도를 유지하여 가습기 역할을 합니다.
특별할인가 58,000원
▲TS-7300 적용면적 : 10.56㎡ (3.5평형)
열량/ 1.2kW • 사이즈/325×540mm • 무게 / 3.2kg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9.50×1.2kW×8=667원
●TS 7300 안전인증번호 SH07345-8002A
특별할인가 78,000원
◀TS-7000/ WJ3000 적용면적: 24㎡ (7~10평형)
열량/ 3.0kW • 사이즈/355×660mm • 무게 / 4.1kg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9.50×3.0kW×8=1,668원
●TS 7000 안전인증번호 SH07345-8001
특별할인가 68,000원
◀TS-7200/ WJ2000 적용면적 : 16.5㎡ (5평형)
열량/ 2.0kW • 사이즈/325×540mm • 무게 / 3.3kg
최대화력 1일8시간 사용시 @69.50×2.0kW×8=1,112원
●TS 7200 안전인증번호 SH07345-8002
※가정용 전기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사무실, 상가 등 일반전기, 산업용전기 사용은 제외)
360° 강력한 화력! 저렴한 전기료!
편리한 이동성! 전기 난로의 진정한 强者!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49

몸·정신이 조화이뤄야 신심 생겨

[원문]
천금지석산위침(天衾地席山爲枕)
운병월촉해작준(雲屛月燭海作樽)
거연대취잉기무(據然大醉仍起舞)
각혐장수괘곤륜(却嫌長袖掛崑崙)
–진봉산 망해사 낙서전

[번역]
하늘은 이불, 땅은 자리, 산은 베개로다
달은 촛불, 구름은 병풍, 바다는 술동이라
잔뜩 취해 한바탕 일어나 춤을 추니
긴 소맷자락 곤륜산에 걸릴까 저어하노라

[선해(禪解)]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으로서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는 남다르다. 지난해 우리 불교계는 총무원장 선거 등 안팎으로 참 많은 일을 치렀다. 지금 불교계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교육과 포교이다. 이는 얼마 전 법전 종정 예하께서 종문(宗門)의 양대 화두로 삼아 함께 정진하라는 교시(敎示)이기도 하다. 돌이켜 보면, 교육과 포교는 결코 빼 놓을 수 없는 과제이다. 불교정화 운동의 선구자인 금오스님이나 청담 스님 등도 중시한 것이 도제양성과 포교였다. 이중에서 교육은 부처님의 제자를 길러내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뛰어난 불교 학자를 양성하는 데 필요하다. 포교 역시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강한 신심이 있어야만 한다.

신심은 몸과 정신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만 생긴다. 믿음이 허약한 사람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려 온전히 이 세상을 버티고 살아갈 수 없다. 비단 이는 불자들뿐만이 아니라 승가(僧家)에 몸을 담은 모든 출가자들에게도 해당 된다. 불교의 미래는 교육과 포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60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한국불교는 옛날부터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민족 종교였다. 하지만, 현재는 다종교 다문화 다민족의 세계에 들어선 민족 종교라는 것이 무색하다. 이미 교육과 포교의 허점으로 인해 많은 불교인들을 잃었으며 또 잃어가고 있다. 원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러나 오늘날 서구(西歐)는 오히려 불교신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참선과 절 수행법은 웰빙 문화를 타고 급속하게 번지고 있다. 불교가 다양한 몸짓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희망은 없지 않다. 사찰 템플스테이에 참석하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3년 전 시작한 '선묵 혜자 스님의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순례 기도회'의 힘도 결코 빼 놓을 수 없다. 이러한 것도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포교의 절대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젠 우리 불교계도 열려 있어야 한다. 사찰에서도 스님과 신도, 큰 스님과 제자, 모든 이들이 마음을 열어 소통하고 조화를 이루어야만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젠 불교는 더 이상 구복(救福) 형태의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된다.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고 다툼을 말리고, 낮은 곳과 약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종교가 되어야 한다.

지난 해 연말, 크리스마스 때 서울역에서 구세군과 선묵 혜자 스님이 선행 보시를 하는 것을 TV뉴스를 통해 보았다. 새로운 형태의 따뜻한 종교적 화합의 장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흐뭇하였다. 더욱이 불자들이 날마다 일백 원 씩, 선행 보시금을 모아 어려운 이들을 돕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코미디언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아오다가 사업실패로 인해 병원비조차 제대로 못내는 등 큰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는 배삼룡 씨와 병신춤으로 서민들을 울리고 웃긴 공옥진 여사의 치료비에 보태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선행보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불교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선행 베푸는 종교
모두가 낮은 곳 · 약한 사람들 보살피며 베풀어야

불교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몸으로 선행을 베푸는 실천적인 종교이다. 이젠 절 안에서 목탁을 두드리고 염불만을 읊어서는 안 된다. 모든 대중이 진정으로 수행자의 마음으로 돌아가 스스로 자신을 닦아야 하며 또한 대중 포교를 위해 일선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불교계의 시대적 사명이다.

오늘의 주련 여행은 진봉산 망해사 낙서전(樂西殿)이다.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는 절이라는 뜻을 가진 망해사는 이름만큼 아름다운 곳으로서 서해에 접해 멀리 고군산 열도를 바라보며 자리 잡고 있는데 비록 규모가 작지만 많은 사연을 안고 있다. 백제 642년(의자왕 2) 때 부설 거사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는 말로 유명한 인도의 유마 거사(維摩居士), 전재산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대바구니를 엮으며 살았던 중국의 방온 거사(龐蘊居士, 740~808)와 함께 불교의 3대 거사로 꼽히는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묘화라는 벙어리 소녀 때문에 끝내 출가를 하지 못했다. 묘화의 나이 20세 되던 어느 봄날 먹장삼을 입고 배낭을 맨 수도스님 세분이 탁발 걸음으로 이 마을에 당도하여 묘화의 집에 이르렀을 때 느닷없이 내리기 시작한 소나기로 스님들은 가도 오도 못하고 머물게 되었다. 그분들이 바로 부설(浮雪), 영희(靈熙), 영조(靈照) 라는 수도자들이었다. 해가 저물었으나 비는 개지 않고 계속 내려 부득이 이곳 구무원의 신세를 지기로 하고 행장을 풀었다. 그날 밤 구무원의 집에는 큰 경사가 났다. 말을 못하던 묘화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부설 스님과 소녀는 전생에도 인연이 있었고 금생에도 인연이 있으니 인과를 따르는 것이 바로 불법이라 하겠습니다. 소녀 삼생연분(三生緣分)을 이제야 만났으니 죽기를 맹세하고 부설 스님을 남편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부설은 묘화를 어찌 할 수가 없었다. 자신도 자작자수(自作自受)와 인(因)으로 하여금 과(果)가 따른 법이며 자기를 만나기 위하여 생후 20년간 말을 안했던 묘화의 간청을 차마 뿌리칠 수 없어서 결국 두 도반(道伴)과 작별하였다. 영희, 영조 두 스님은 오대산(五臺山) 문수도량(文殊道場)으로 공부를 하러 떠나고 부설은 스스로 거사라 자칭하고 묘화의 집에 머물러 백년해로를 했다.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등운(登雲), 딸은 월명(月明)이다. 그 후 그는 서해백강(西海白江)변에 초려를 지으니 이곳이 바로 망해(望海)사이다.

서해 바다를 즐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낙서전은 1589년(선조 22)에 전라북도의 고승인 진묵 스님이 지은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1977년에 고쳐 지은 기록이 있고 1986년에 해체 복원을 하여 보존하고 있는 아름다운 건물이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주심포 형식에 맞배지붕으로 지은 'ㄱ'자형 목조기와집으로 작지만 안온한 분위기여서 그 정취를 더한다. 낙서전의 주련은 진묵 대사가 읊은 게송으로 유명하다.

'**천금지석산위침 운병월촉해작존** : 하늘은 이불, 땅은 자리, 산은 베개로다 .달은 촛불, 구름은 병풍, 바다는 술동이다.

'**거연대취잉기무 각염장수괘곤륜**: 잔뜩 취해 한바탕 일어나 춤을 추니 긴 소매자락 곤륜산에 걸릴까 저어하노라.

진묵 대사는 27세인 이곳에 와서 이 게송을 읊고 낙서전을 지었다고 한다. 당시는 임진왜란 때 였다. 그는 서산 대사가 73세의 노구를 이끌고 전장에 나간 것을 두고 '권세와 명리를 좇은 권승(權僧)이요 명리승(名利僧)'이라 힐난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정작 죽음을 앞두고서는 '나는 서산의 제자'라 했다고 초의 선사의 <진묵대사유적고>는 전한다. 이 게송을 보면 그의 자유자재한 성품이 한 눈에 보이는 듯하다. 어쩌면 이 땅의 수행자들이 한번 쯤 가슴에 담고 읊어 보아야 할 게송이다.

■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관심론 4

무명이 삼독(三毒)의 뿌리

[원문]
又問曰 上說眞如佛性 一切功德 因覺爲根 未審無明之心 一切諸惡 以何爲根 答曰 無明之心 雖有八萬四千煩惱情欲 恒沙衆惡 無量無邊 取要言之皆因三毒 以爲根本 其三毒者 卽貪嗔癡也 此三毒心 自然本來具有一切諸惡 猶如大樹根 雖是一 所生枝葉 其數無邊 彼三毒根 一一根中 生諸惡業 百千萬億 倍過於前 不可爲喩 如是三毒 於一本體 自爲三毒 若應現六根 亦名六賊 六賊者卽六識也 由此六識 出入諸根 貪着萬境 然成惡業 障眞如體 故名六賊 一切衆生 由此三毒 及以六賊.

또 물었다. "위에서 말씀하신 진여불성(眞如佛性)의 모든 공덕은 깨침이 뿌리가 됨은 알았으나, 어떤 것이 무명의 마음과 모든 악의 근본(뿌리)이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동성 스님 作 달마도.

이에 달마 대사가 대답하셨다. "무명의 마음이, 팔만사천의 번뇌와 정욕(여러 가지 욕망)이 있어서 항하의 모래수 같은 온갖 악이 한량 없고 끝이 없지만 요점만을 말한다면 모두 삼독이 그 근본이 되느니라. 이 삼독이라는 것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이니라. 이 세 가지 나쁜 마음이 본래부터 일체의 악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큰 나무가 뿌리는 하나이지만 생겨나는 가지와 잎은 그 수가 끝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삼독의 뿌리에서 하나 하나의 뿌리마다 온갖 악업을 생겨나게 하는 것은 앞서 말한 것보다 백천만억 배이므로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 이와 같이 삼독이 하나의 본체에서 삼독으로 있다가 육근에 응하여 나타나면 육적이라 하느니라. 육적이란 것은 곧 육식이니라. 육식(안 · 이 · 비 · 설 · 신 · 의 육근이 색 · 성 · 향 · 미 · 촉 · 법의 육경에 대하여 알음알이를 냄)이 여러 감각 기관을 드나들므로 인하여 온갖 경계에 빠져 자연히 나쁜 업을 만들며 진여의 바탕을 가리우기 때문에 육적(六賊)이라 하느니라."

[해설]
나쁜 법의 원인은 탐, 진, 치 삼독(三毒)이랍니다.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말하는데 어리석음이 가장 문제입니다. 어리석음 때문에 욕심을 내고 성을 내는 것이거든요. 어리석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매달리고 집착하며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에 속고 결국 자기가 본래 갖추고 있는 불성을 더럽히는 순간이에요. 점점 고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삼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실상을 바로 보고 끊임없는 정진을 통해 무명을 밝음으로 전환시키는 데 있습니다.

삼독은 모든 악을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탐심은 무지에서 오는 것인데 실상에서 보면 모든 경계가 다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색즉공(色卽空)이요 공즉색(空卽色)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지에서 일으킨 욕심은 진심을 일으켜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과 고통을 안겨 줍니다. 한번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주와 같은 큰마음이기 때문에 욕심의 뿌리는 끝이 없다는 얘깁니다.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정진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불성을 오염시키면서 고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는 얘깁니다.

달마 대사께서는 삼독의 파장을 큰 나무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무지와 탐심이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자신과 이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쳐 스스로 악의 구렁으로 떨어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삼독심을 끊어야만 자신과 이 사회를 맑힐 수가 있습니다.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정진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물러남이 없어야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다음 하고 미루는 마음으로 인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억겁 전에나 지금의 나는 과연 누구입니까?

삼독은 무지에 의하여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일체 현상이 청정불성의,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모르고 무지의 눈을 통해 색(물질)을 보고 분별을 일으켜 탐심이 일어나며, 무지의 마음이 귀를 통해 소리를 듣고 분별을 일으켜 탐심이 일어나고, 무지의 마음이 코를 통해 냄새를 맡고 탐심을 일으키며, 무지의 마음이 몸을 통해 감각을 일으켜 욕심을 일으키며, 무지의 마음이 법(法)을 통해 분별함으로 인해 욕심을 일으켜 온갖 경계에 빠지며, 어리석은 마음은 탐심과 진심을 일으켜 청정 진여불성을 어둡게 만듭니다. 이리하여 마음이 여섯 가지 기관을 통해 육경(六境)에 끄달려 더욱 더 무지하게 하며 여섯 가지 기관이 마음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육적(六賊)이라 말합니다. 수행은 여섯 도적을 물리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대각교단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공 고

본 종 종정예하 석가산대종사께서는 3.1독립운동의 민족대표인 용성조사의 은, 법, 강, 율 상좌이며 11.3 광주학생독립운동의 학생대표였던 봉암선사로 부터 유일하게 은, 법, 강, 율을 이어받은 상수제자이시며 가야산해인사와 금강산장안사의 양대 강맥을 전강한 대강백입니다.
또한 대은율사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한국불교율맥의 원조인 조선불교중흥률 제6조인 용성조사로부터 유일하게 전계율연원계법을 전수받은 제7조 봉암선사에게 제8조로 전계율연원계법을 전수받은 한국불교율맥의 전통계승자이시기도 하며 가산대종사께서는 특히 600여년전에 단절되었던 점찰참회법을 중흥해 모악산금산사, 팔공산동화사, 속리산법주사에 전수해 점찰중흥조가 되어 이 시대의 선지식이라 하겠습니다.

본 종 임원 종도 들은 종정예하 중심으로 전통법맥과 율맥을 잇고자 아래와 같이 종도 모집을 하고자 합니다.

◆ 본 종은 종정예하의 전통 법맥을 유지 계승하여 종도화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본 종에 입종하시는 스님께서는 재적종단의 승납과법계를 인정하겠습니다.
◆ 본 종에 입종하여 건당하실 스님께서는 법계증서를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 본 종에 입종하시는 법사님과 불교대학 2년이상 수료하신 분의 법사 신청을 받습니다.
◆ 본 종에서는 개인사찰의 사유재산을 종법에 의거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찰등록시 1년 분담금 없음)
◆ 본 종 종정예하 추대식에 동참해주신 각 종단 종정예하 및 총무원장 큰스님들께 지면으로 통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석가여래부촉법제 77세 조선불교중흥율제 8조
총컬 예하 태화당 석가산 대종사

본 종도들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각교단 대한불교전통조계종이 한국불교의
중흥에 앞장서서 불조의 원맥을
이어 나갈 것을 불타전에 기원 드립니다.

대각교단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임원 및 종도일동

■ 종정예하주석사찰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신통리 484 원융사 ■ 총무원 :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1122번지 대승사
■ 접수문의 : 053)325-5288. 053)325-0400 / 팩스 053)325-4848

大覺敎團 僧伽大學院 開設
승정(宗師)학과 학인모집

본 원에서 제1기 승정(大宗師, 宗師) 風光敎育을 실시하게 됨을 공고하오며 교육기간 동안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僧正學科

1. 僧正之 儀法(전법게송, 오도송, 등)
2. 僧正之 法行(종사의 행주좌와, 등)
3. 儀式之 法行(점안, 천도, 수계, 건당, 등)
4. 僧正之 法物(불자, 여의, 무척, 주장자, 등)
5. 点察懺悔法 傳授 (600年間 단절된 점찰법 再現)
6. 宗務行政.

僧正學은 宗師가 지녀야 할 禪과 敎와 儀式行政, 品行 등 高度의 법상을 宣揚하고자 하는데 있음.

1.입학자격 : 각 종단 종정, 총무원장 및 대승정(대종사) 승정(종사)
2.구비서류 : 본원 소정의 입학 신청서 1통, 법계증사본 1매, 사진 2매.
※3개월 후 졸업시 종사법물 증정 및 졸업장수여.
※법계증 없는 분은 각 종단 총무원장 발행 재직증명서 1통

▶ **수강기간** : 3개월 기간 중 5회만 실시(1일 5시간 교육)
▶ **개강일시** : **불기 2554년 1월 21일 오전 10시 30분.**
개원 입교식 및 1차 교육 (항시 점심공양제공)
▶ **수강장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594번지
대각교단 승가대학원 중앙연수원 ☎ 043)233-0924
▶ **접 수 처** : ☎053)325-5288, 053)325-0400 대승사 불교대학
팩스 053)325-4848, 핸드폰 010-3900-3050

大覺敎團 僧伽大學院 院長 圓堂 大宗師



생활 속에 '선'이 없다면 불교는 생명력 잃은 것

동국대 선학과 교수 현각 스님

지식에 대한 욕망으로 속리산 찾아 법주사서 출가

선학 학문으로 체계화… 한국선학회 창립 저변 넓혀

현각 스님은 …
전북 정읍 출생. 혜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2년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동국대 석·박사 과정 후 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각원장, 불교대학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선학회 초대 학회장과 美 하버드대 세계종교연구센터 초청 연구교수 등을 지냈다. 〈선학의 이해〉 〈선어록산책〉 〈행복에 이르는 뗏목〉 〈날마다 좋은 날〉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한파와 폭설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지역 강설량 25.8㎝. 기상관측 이래 최대라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지 10여 일이 지났건만 서울시내 곳곳은 여전히 하얗다. 수온주도 곤두박질 쳐 이래저래 예사롭지 않은 겨울이다. 날씨가 춥다.

연일 TV 등 매스컴에서는 세종시와 관련한 보도가 끊이지 않는다. 처마에 매달린 고드름 만큼이나 민심도 곤두선 때다. 나그네가 길을 나선 때는 총리가 바싹바싹 타는 입을 적시며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던 날이었다.

600년 전 조선 태조 이성계가 민심을 혁파하고 새로운 정치를 펼치기 위해 찾은 서울은 나라의 중앙에 자리한 명당이었다. 서울은 음인 용이 백두산에서부터 온갖 변화를 하며 내려오고, 양인 물은 남한강 북한강이 양수리에서 만나 한강을 이뤄 서울을 휘감은 산수교합, 음양교합의 터다. 북쪽으로는 북악산과 서쪽의 인왕산, 남쪽의 목멱산(남산), 동쪽의 낙산(동대문 근처)에 둘러싸인 곳이 경복궁이다.

청와대를 지나 부암동 고개를 넘었다. 고개 위로는 서울 시내 드라이브 코스 중 하나인 인왕스카이웨이가, 고개 아래로는 자하문 터널이 지난다. 명당을 논할 때 말하는 '좌청룡 우백호' 중 내백호(內白虎)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세검정 인근에 다다라 대원군의 별장이었던 석파랑이 보인다. 그 뒤가 마니사이다. 마니사는 인왕산의 깎아지른 듯한 산세에 인접한 곳으로 부암동 고갯마루 길과 세검정 사이에 위치한다.

나그네는 석파랑에 차를 대고 바로 옆 골목을 걸어 올랐다. 가파른 경사지만 다행히 사람이 다닐 만큼의 폭 이상 눈은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다.

골목의 막다른 곳에 다다랐다. 마니사다. 마니사의 '마니'는 광명진언에 보이는 말로 진주라는 뜻이다. 안에 들어서니 초목이 바위와 어우러지고 설경을 더한 것이 도심 속 절경이 따로 없다. 서울시내 이런 곳이 또 있을까? 문필봉을 중심으로 북한산이 한 눈에 들어온다.

서울 속 산사 마니사는 골목길 50여 m를 사이에 두고 차들이 부대끼는 6차선 도로와 함께 있었다. 이백이 그의 시 '산중답속인(山中答俗人)'을 통해 읊해 "이곳은 별천지이지 인간 세상이 아니라네(別有天地非人間)"라는 말로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곳, 마니사에서 현각 스님을 만났다.

전북 정읍에서 출생한 스님은 선친에게서 "군자가 되어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부끄러운 일이다(君子恥一物不知)"라는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했다. 선친의 가르침은 소년이었던 스님의 지적 욕구를 자극했다. 소년은 무엇인가를 알려는 욕심, 지식에 대한 욕망을 키웠고, 그것은 도와 도인에 대한 막연한 동경으로 이어졌다.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속세를 떠나 깊은 산 속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은 스님을 속리산으로 이끌었다.

속리산(俗離山). 헌강왕 12년(886)에 속리산 묘덕암을 찾았던 고운 최치원은 산세를 보고 시를 읊었다. "도는 사람을 멀리하지 않는데 사람은 도를 멀리하려하고, 산은 세속을 여의지 않는데 세속인은 산을 여의려 하네(道不遠人人遠道, 山非離俗俗離山)." 구봉산이라 불렸던 산이 속세를 떠나는, 속리산이 된 유래다.

스님은 속리산을 찾아 은사인 혜정 스님(법주사 회주)에게 출가했다. 전기불도 없던 시절이었다. 현각 스님은 법당에서 태우다 남은 초를 가져다 생장작을 태우며 부엌데기 노릇으로 출가자의 길을 시작했다.

지적욕구를 채우기 위한 출가였기에 생장작이 타면서 피어난 연기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스님은 책을 보고 싶었다. 그런 공양간 살림을 하면서 스님이 생각한 묘수는 갱두 소임을 맡는 것이었다. 갱두는 국을 끓이는 소임이다. 불을 피우고 찌개를 끓이는 동안 스님은 장작불에 책을 읽으며 지식에 대한 갈증을 달랬다.

"도가 산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처에 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서 공부해서 깨쳐야겠다는 욕심만 가득했지요."

당시 은사스님은 현각 스님에게 수행·포교·역경의 3대 종단사업을 말하며 "역경도 '알아야' 제대로 할 수 있고, 포교·수행도 '배워야' 바로 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공양간 생활을 마치고 스님은 강원에 들어갔다. "이제는 하고 싶은 공부를 실컷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강원에서 처음 배우는 〈치문〉부터 막혔다. 어려운 글이 너무 많아 하루 2줄 밖에 읽지 못했다.

현각 스님의 머릿속은 "이래서 어느 세월에 '팔만대장경'을 다 읽을 수 있을까? 도를 이루면 오도송(悟道頌)을 쓴다는데 이렇게 무식해서야 어찌할까?"라는 생각으로 가득찼다. 그래서 스님은 교학을 공부하겠다고 재발심했다. 오도송을 짓기 위한 도구를 마련하고자 시작했던 공부는 스님을 모교인 동국대에 남게 했다. 스님은 "'업보중생'이라는 말을 실감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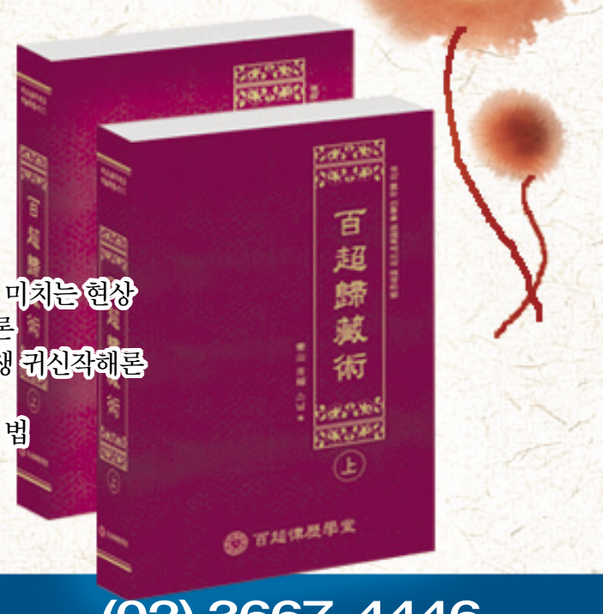
현각 스님은 1987년부터 현재까지 동국대 선학과 교수로 봉직중이다. 20년이 넘는 세월에 학생시절까지 더하면 40여 년을 종립대학 동국인으로 살아왔다. 스님이 반백년에 가까운 세월을 동국대 교정에서 보내는 동안, 교정 곳곳 어느 곳 하나 스님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었다. 어느 나무가 봄을 제일 먼저 알리는지, 또 어떤 나무가 가을을 가장 먼저 알리는 전령사가 되는지 등 스님은 동국대 곳곳을 '부처님 손바닥'처럼 보게 됐다.

학교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스님의 애교심도 남달랐다. 동국대 교내 법당인 정각원 원장 시절 부처님 오신날 3000개의 연등을 교내에 장엄하고, 그 연등비를 후학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학자투, 대정부시위 등으로 최루탄이 매캐했던 교정은 정각원에서 설치한 연등으로 대학생들의 데이트 명소가 되기도 했다. 또, 〈정각도량〉(당시 정각원보)을 창간해 동국대 구성원의 신행생활을 도왔다.

특히 학자로서는 국내에서는 생소했던 선학을 학문으로 체계화시켰다. 2000년 한국선학회를 창립해 선학의 저변확대와 신진학자의 등용문으로 활용했다. (한국선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선학〉은 최근 학술진흥재단에 국내저명학술지로 등재되기도 했다.) 특히 스님의 대표저서인 〈선학의 이해〉는 선학전공자의 필독서일 뿐만 아니라 동국대 학생의 교양과목으로 매학기 강의가 이어지고 있다.

또, 스님은 학교 활동만으로는 광도중생의 출가 본분을 다함에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에 자아완성, 광도중생, 정법교화,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2004년 마니사에 마니불교아카데미를 세우고 〈마니불교〉를 펴내고 있다.

현각 스님은 "'행하거나 머무르거나 앉거나 눕거나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움직이거나 조용히 있거나

귀신뽑는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쾌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귀신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제 권하기가 쉽습니다.!
* 귀장술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귀장술12신궁의 매매·이동운 보는 법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귀장술12신궁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암시록
* 집안 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자녀액운 착귀탈 정단법
* 취직시험·승진시험의 합격 판단법
* 선거 후보당선 벼슬하는 여부 판단법
* 관청·공무원 빈자리 입관가능여부
* 소송·관재사의 승패 판단법
* 보고싶은사람, 기다리는 사람 소식가능일
* 가출자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 잃어버린 분실물 위치 추정법
* 도주·도망간 사람이 어느쪽으로 갔을까?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원귀법
* 12신궁에 암장된 악령귀신
* 귀장술歸藏術로 보는 前生투시법
* 前生의 夫婦인연 원침살이 現生에 미치는 현상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빙의착귀신론
* 귀장술歸藏術로 뽑은 사후死後환생 귀신작해론
* 산소·무덤에 관해서 [음택법]
* 무덤안 유골의 현재상태 알아내는 법
글·백초스님
상·하권 / 720면 / 정가 각 120,000

百超律歷學堂
입금 계좌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비법전수중
(02) 3667-4446
010-3813-4443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라

하는 것 모두가 선(行住坐臥語默動靜)'이라는 말은 <증도가>, <석씨요람> 등 곳곳의 선적(禪籍)에서 보이고 있다"며 "여전히 '좌선만이 선'이라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님은 "장사하는 재가자가 시장에서 내 물건을 사가라고 외치는 곳에 선이 없다면 불교는 생명력을 잃은 것이고, 불교의 생활화는 요원하다"고 강조했다.

평생을 책과 함께 살아온 스님의 가슴에는 어떤 구절이 담겨 있을까? 나그네의 물음에 돌아온 현각 스님의 답변은 놀랍게도 <초발심자경문>의 한 구절이었다.

<초발심자경문>은 현각 스님이 고된 행자 생활 동안 가슴에 품고 짬짬이 봤던 책이다. 스님은 "삼일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요. 백년 탐낸 재물은 하루 아침의 티끌(三日修心千載寶 百年貪物一朝塵)"이라는 구절을 뽑아 수행의 근간이요, 평생의 지표로 삼아 왔다.

지적 호기심이 상당한 현각 스님이 이 구절을 택한 데에는 뭔가 더 이유가 있을 것 같았다. 제자인 나그네가 연이어 물었다. 왜 이 구절인지를.

구절 중의 단 한자, '재(載)' 때문이었다. 스님은 "지금 와서 보면 쉬운 말이지만 당시로는 '재(載)'가 명쾌하게 해석이 안됐다. 경전을 구구단 외듯 하면서도 대부분 그런가보다 하고 넘겼지만 '왜'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재(載)'는 당나라 때의 용어이다. 주나라 때는 연(年)으로, 하나라 때는 세(歲)로, 은나라 때는 사(祀)로 사용됐다"는 스님의 설명이 이어졌다.

"'하늘 천(天)'으로 시작하는 천자문의 끝은 '야(也)'입니다. '이끼 야'라고 쓰여 있는 데 사실 이게 '입겻'의 오자입니다. 녹음기도 없던 시절에 발음이 잘못된 것을 그대로 받아적다보니 오자가 생긴 것이에요."

스님은 "학문도, 수행도 '왜'라는 의문이 없으면 출발이 어렵다. 의문이 이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광야에 서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지루함에 빠져 중간에 좌절하고 만다"고 말했다.

현각 스님은 "불교(학)에서는 '왜'라는 의문만큼이나 믿음[信]의 초석을 쌓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信)은 범어로 'sradha(sra+dha)'이다. 'sra'는 소리(voice, sound)이며, 'dha'는 도달하다(reach)의 뜻을 갖고 있다. 믿음은 대승불교가 출현하면서 신앙의 대상이니 불상을 모시는 형태로 변화했다.

스님은 "'소리에 도달한다'는 말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소리에 이른다'는 말"이라며 "막연하게 산천초목 두두물물에 내 생각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처님의 깨달음의 소리 즉 법에 당도하는 것만이 진정한 믿음"이라 설명했다.



이어 현각 스님은 "부처님에게 기도하며 '돈·출세·건강·합격 등을 달라'며 거래하고, 이뤄지지 않으면 부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데 이는 믿음에 대한 개념이 잘못 선 것"이라며 "올바른 신행생활을 하려면 믿음에 대한 나침반부터 바로 놓여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라는 직업 탓일까? 스님의 법문이 봇물처럼 끊이지 않고 터져 나왔다.

현각 스님은 "중생세계인 사바세계(sahaloka)는 'saha(싸우다)'+'loka(세상)', 싸우는 세상이고, 부처님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적멸의 세계"라며 "<금강경> 제18 일체동관분에서 '이소국토중 소유중생 약간종심 여래실지(爾所國土中 所有衆生 若干種心 如來悉知)'라고 한 것처럼 부처님(여래)은 세상 모든 중생의 가지가지 마음을 모두 알고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부처의 세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스님은 "처음 생긴 자[尺]는 자로 재서 만들 수 없듯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중생교화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움과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며 "부처님께 올리는 최대의 공양은 그 가르침을 수지독송하고, 마음 속에 칠보로 장엄한 왕국을 세우고 항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고, 널리 가르침을 펼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잠시 찻잔이 다시 오가고, 나그네의 시선은 창밖 설경을 향했다. 현각 스님은 "매일 산에 올랐는데 눈이 많이 와서 한동안 못다니고 있다"며 "인왕산에 오르며 자연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한여름 폭풍우에도 떨어지지 않고 나무를 키워야할 의무를 다한 파란 잎이 때가되면 노랗고 빨갛게 물들다 저절로 낙엽으로 진다"며 "떠날 때 떠날 줄 아는 낙엽의 미덕이 있기에 겨울이면 나무는 설화를 피울 수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 "갈대의 속은 비었다. '비운다'면 잃어버린 상실의 의미로 받아들이기 쉬우나 실은 상생의 길이다. 속이 꽉 찬 나무는 겨울이면 쓰러져 설해목이 되기도 하지만, 텅 빈 갈대는 거센 바람에도 부러지지 않고 서로를 지탱하며 상생의 지혜를 일러준다"고 말했다.

현각 스님의 탐구심은 산행 중에도 끊이지 않았다. 산행으로 숨이 가빴던 스님은 '재앙(disaster)'이라는 단어를 생각했다.

스님은 "별(aster)이 자기 궤도에 충실하지 못하고 떨어져나간다면(dis) 우주에 재앙을 초래하게 된다"면서 "중생들은 보이고 잡히고 들리는 것 모두를 갖고 싶어 마음을 헐떡거리며 살고 있지만, 자신의 본분(궤도)을 지키는 삶이 바른 삶이다. 헐떡이는 마음을 돌이키면 모두가 찬사의 대상이 되고 스승"이라고 강조했다.

<임제록>에는 '일기일회(一期一會, 일생의 단 한번 뿐인 인연)'라는 말이 있다. 스님은 "지금이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을지 모른다는 뜻의 '일기일회'를 영어로 하면 'is now or never'"라며 "지금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각오로 '바로 지금' 주어진 매 순간을 감사해 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문이 끝났다. 아까 스님이 말했던 '보이지 않는 부처의 세계'는 정말 중생은 볼 수 없는 것일까?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 나그네는 궁금했다.

현각 스님은 "서구에서 이상향을 뜻하는 유토피아(utopia)라는 말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no place, no where)는 뜻이다. 하지만 'no where'에서 w만 앞에 붙여 놓고 보면 'now here(지금 여기)'가 된다"며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적멸의 자리가 '지금 여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지금 여기(now here)'가 설해진 도량, 도심 속 진주처럼 아름다운 절 마니사가 바로 유토피아가 아닐까?

글=조동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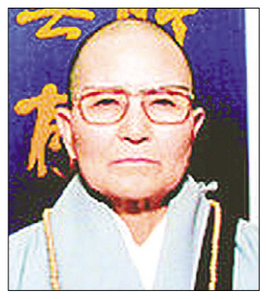
78. 보문종 종정 혜안 스님

혜안 스님은 대한불교보문종 제7·8·9대 종정을 지내신 분이다.

만나면 항상 초대, 2대 종정을 지내신 긍탄 스님과 3·4대를 지내신 명주 스님, 5·6대를 지내신 일조 스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긍탄 스님의 당호는 설월당이고, 성은 이씨인데 서울 왕십리에서 태어나 7세에 어머니의 권유로 보문사에 출가하였다. 그의 어머니도 철원 보개산 석대암으로 출가 하셨거든. 18세에 금강산 장안사에서 벽하 스님에게 사미계를 받고, 이듬해 동학사에서 4집과를 수료한 뒤 1912년 보문사 주지가 되어 자그마치 돌아가실 때 까지 33년간 계시다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비구니종단을 만드시고 80년 8월 96세로 입적하셨어."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장수가 특강을 하지. 우리나라 이름난 스님 치고 전주 정혜사에 와서 법문하지 아니한 분이 없지. 일조 스님도 마찬가지였어. 그렇게 그 정신이 살아서 어린이 집들이 수십 개 운영되고 청년회, 학생회, 나눔마을을 운영하며 전미개오(轉迷開悟: 미혹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열다) 구세도생(救世度生: 세상의 중생을 제도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 그



보문종 총무원장 종정 역임하며 종단 발전 기틀 다져

하셨지만 하신 일이 많았다. 부처님의 이모 마하파자파티를 종조(宗祖)로하고 구원실상(久遠實相)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본존(本尊)으로 하며, 화신(化身) 관세음보살의 행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보문종의 종지(宗旨)였다.

보문사는 고려 예종 10년 담진국사가 창건한 이후 조선 숙종 때 묘첨 스님, 영조 때 보안 스님, 고종 때 금훈 스님 등이 대웅전을 중건, 중수하고 좌우 승당을 건축해 서울 시내 여승방으로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불교의 요람으로 널리 알려진 사찰이다.

"명주 스님은 살아 있는 보살이었어. 어디서 초상이 나면 보따리 보따리 싸들고 가서 상제들의 옷과 초상 일체를 주관하고 잘 곳이 없으면 재봉틀 위에서도 잤거든. 전주 사람들은 산 부처로 섬겨왔지. 돈만 생기면 경전을 편찬하여 인쇄하고, 그 책이 나오면 유명한 스님들을 모셔다 리고 이들 큰스님들이 궁중에 드나들며 법문을 하셨기 때문에 4대문 안에 비구스님들은 얼씬도 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장안불교가 살아 있었어."

생각하면 부처님 당시부터 비구니스님들은 불교를 안팎으로 보호하여 절 안의 스님들 가운데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밖으로 행정, 사법 등 모든 기관을 통해 외호자가 되도록 교화했던 것이다.

1981년 보문종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혜안 스님은 10년 동안 부채탕감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1990년 보문종 7대 종정으로 취임한 이후 8~10대에 이르기까지 종정을 역임하며 보문종 발전의 기틀을 다졌다.

혜안 스님은 무려 반세기도 넘는 55년 동안 보문사에 주석하면서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예불을 하고,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아침마다 대승경전인 <원각경>< 금강경><아미타경> 등을 독송했다.

나는 미타사나 보문사에 강의를 가게 되면 필히 들려 인사를 드리고 법문을 들었는데,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털끝만큼도 하지 않는다.

"내가 뭘 아나요. 학자처럼 공부를 했어, 선사들처럼 참선을 했어. 큰스님들 따라 다니면서 시봉하다가 어깨 너머로 배운 것 밖에 없어."

99세가 되어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다.

"내년이면 100세 기념 행사들을 해 준다고 야단법석이지만, 나는 그런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찮은 일입니다. 남에게 신세만 지게 되니 말입니다. 그래도 옛 스님들이 배고프게 살던 세월에 비하면 많이 좋아져 의식주가 걱정 없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항상 스님은 장삼을 입고 법당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194번지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한방(韓方)치료
파킨스씨병, 치매, 우울증,
치질, 탈항, 고질성 위장병,
전립선염 비대,
해독, 통풍,
백내장, 메니에르 증후군,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예당 한방병원
02)326-3161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3-14
(서울 합정역 6번 출구)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091102-중-6224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수행자들의 정성으로 만든
무색소 무방부제 무화첨가물의 자연 발효 식품
100% 순수 국산콩으로 만들었습니다.
(생산지 : 경북 영주)
우리 땅에서 자란 콩으로 빚은 복메주는,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얼이 베인 순수자연 발효식품입니다.
자연에 의존하여 만들어지는 전통 메주는 햇살과 바람의 숨결에 의해 말려지고 다양한 미생물에 의해 숙성되는 하늘의 기운을 머금은 자연이 만들어 주는 선물입니다.
▶특징
· 국산콩을 가마솥에 장작불로 삶아 나무틀에 한장 한장 정성으로 넣어 만든 수공메주입니다.
· 발효균을 인공적으로 주입하지 않고, 전통 방식 그대로 자연 발효로 띄어져 깊고 깔끔한 맛이 납니다.
금강정사 복식품
· 서 울 법 당 : (02)742-0172 · 대 구 법 당 : (053)425-3063
· 포항금강정사 : (054)261-2231 · 울 산 법 당 : (052)211-2161
· 부 산 법 당 : (051)514-3566 · 대 전 법 당 : (042)862-5539

김옥암 교수가 쓰는
자족의 경제학 <31>

노사는 행복공존 위한 관계, 평등관 바탕

불교는 고용을 쌍무적 인연관계로 이해… "기업은 소불국토"



그림 · 김필헌

한 개인은 소비자인 동시에 노동자이다. 그 노동이 유형 무형의 사회적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을 생산이라 부른다.

불교의 입장에서 노동이란, 불교의 실천행 그 자체이다. 불교의 노동관은 중국의 선승인 백장(百丈懷海) 화상의 '일일부작(一日不作)이면 일일불식(一日不食)'이라고 하는 말씀에 잘 표현되고 있다.

그것은 사회주의의 슬로건인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는 말과 상통할 것 같지만, 정신은 전혀 다르다. 사회주의의 슬로건이 타율적인데 비해서 백장 스님의 말씀은 순수하게 자율적이다. 불교의 노동관에 비해 구미사회의 노동관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노동시간은 여가를 포기한데 따른 '고통'이다.

<성서>에 의하면, 태초의 인간인 아담은 이브와 함께 에덴동산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의 꼬임에 빠져 신이 먹지 말라고 금하고 있었던 선악과(善惡果)인 지혜의 나무열매를 따먹어 버렸다. 그 때문에 신이 노한 나머지 그 벌로서 인간을 에덴의 낙원으로부터 추방함과 동시에 노동하며 살 것을 명했던 것이다.

결국 구미인에게 있어서 노동은 신으로부터 내린 징벌이라고 여겨진 것이다. 잘 사는 인생은 노동하는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가 속에서만이 발견되는 것이다. 흔히 미국인들은 은퇴 하면 플로리더 같은 곳에 별장을 세워 놓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꿈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다. 그래서 정년은 젊을 수록 좋고, 은퇴는 노동자가 가장 대망하는 관문인 것이다. 노동은 고역이므로 어서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미식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사고방식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불교경제학의 노동조합에 관해 생각해 보자. 현대 경제에서 노동조합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의식에 있어서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노동쟁의(strike)라고 하는 인상만을 강하게 떠올리는 것은 아닐까 싶다. 실제로 국내외의 노동운동의 역사에는 노사간에 많은 유혈투쟁이 있었다. 그러나 불교적 입장에서 직장과 노동조합은 인연으로 맺어진 곳으로, 노사 모두 함께 행복하게 공존하기 위한 조직이다.

불교의 기본에는 인간 평등관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두고 싶다.

직장은 어디까지나 쌍무적 노사관계로서 고용관계이며, 일방적인 봉사나 강제는 부정되고 있다. 석가모니부처님의 초기불교시대에도 이미 경제활동이 왕성했기 때문에 불교경전에서 고용관계에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육방예경(六方禮經)>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즉, 여기서는 고용주와 피고용자로서의 '노동자'의 존재가 있는데, 먼저 '고용주의 수칙'을 다음과 같이 설파했다.

(1) 그 힘에 걸맞게 일을 시킨다.
(2) 보다 많은 급여를 준다.
(3) 병이 났을 때는 친절하게 간호한다.
(4) 진기한 것을 나누어 준다.
(5) 때때로 휴양시킨다.

당시의 계급사회에서 이와 같이 '주종(主從)'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쌍무적인 관계로서 일방적인 봉사나 강제는 부정되고 있는 것이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노사관계가 서구의 초기자본주의시대의 노사관계보다도 훨씬 인간적이란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불교는 고용관계를 어느 한쪽만이 아닌 쌍무적 인연관계로 생각하고 있다. 계층적 신분제도가 엄격했던 고대 인도에 있어서 상층신분인 고용주에게도 이와 같이 중요한 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 '피(고)용자의 수칙'은 다음과 같다.

(1) 아침에 주인 보다 일찍 일어난다.
(2) 밤에는 주인 보다 늦게 잔다.
(3) 어떤 일이라도 정직하게 수행한다.
(4) 맡은 일을 잘 숙련한다.
(5) 주인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노력한다.

석가모니부처님 자신은 가뭄 때에 물싸움을 하는 농민들 사이에 들어가 분쟁을 조정하면서, 어떠한 분쟁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신 바 있다.

더욱이 불교 교단내의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서 '7종의 결정법'(七感諍法)을 제정했다. 이와 같은 석존의 가르침은 불교적 조합운동의 기초사상을 이루게 된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 조합원의 마음 밑바탕에는, 자신들이 고용되어 있는 기업에 소불국토를 구축하고자 하는 원(願)이 반드시 없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교경제학의 노동조합과 공산(사회)주의 노동운동과는 어떻게 다를까?

우선, 민주적으로 자유로운 노동조합을 하고자 하는 목표는 똑같을지도 모르지만, 공산주의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 불교도는 합법과 화(和)의 정신을 언제나 중심에 두고 노동운동의 수단이 경제적인 복지에 있는가의 여부를 신중히 가린다.

공산(사회)주의식 조합운동은 평등사회건설이라는 잘못된 정치적 이상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도자는 어느샌가 조합원의 위에 서서 군림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된다. 게다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엘리트 간부의 타락이 발생하는 구조다.

기계적인 '결과의 평등'은 공평과 상반된다. 공평은 '기회의 평등'이지 결과의 평등은 아니다. 공평없이 자유는 없다. 프랑스 혁명당시의 자유와 평등은 서로 양립되지 않는 모순개념으로 나타났지만, 공산주의 노동운동에는 이 모순의 인식이 없다.

무엇 보다도 공산주의에 있어서 반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나 시장경제적 경영자는 적(敵)이지만, 불교에 있어서는 대등한 공생관계이다. 전 종업원의 행복(경제적 복지)을 증진하기 위한 경쟁상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교에서 바라보는 노동과 노동조합의 의미는 서구나 사회주의와는 근본적으로 시각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㉛ 신뢰성

허달의 불교와 코칭

성품 · 역량 갖춰져야 신뢰얻을 수있어

고교 동창끼리 모여 만든 불자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필자가 카페지기를 맡고 있다. 회원수 서른도 안 되는 작은 카페이다. 한동안은 무비 스님이 쉽게 풀어준 해설서를 저본 삼아 <신심명(信心銘)>을 매일 한 구절씩 '한 줄 메모장'에 연재했는데, 호응이 좋았을 뿐 아니라, 옮겨 적는 내 공부도 쏠쏠하였다. 요즘은 현대불교신문에 연재된 '불교와 코칭' 이 글들을 퍼다 올렸더니, 꾸준히 읽어주는 비회원 방문객도 더러 오시기에, 방문객 서비스 삼아 부처님 리더십과 관련된 '한 줄 메모장' 연재를 다시 시작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종교학과 프란츠 메트칼프 교수와 '인도주의 경영'의 전도사라는 갤러거 해틸리 두 사람이 공저한 <부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제목의 책자를 SPR경영연구소라는 곳에서 번역하였는데, 거기 실린 이야기들을 1회 300자 이내로 옮겨 싣는 작업이다. 며칠 전에는 '신뢰성(Trustworthiness)'에 대한 이야기를 실었다.

별로 즐거운 예는 아니지만 참가자 각자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고 가정해보자. 아주 치명적인 병인데 그냥 놓아두면 죽음에 이르는 그런 병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 병은 수술을 받으면 완치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아주 까다롭고 정교한 큰 수술을 성공적으로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여기 두 사람의 의사가 있다. 첫 번째 의사는 비유하자면 천사와 같은 분이다. 환자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 이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모든 능력과 심혈을 기울여서 환자의 병을 치료해 준다. 많은 임상경험을 가졌으니 그런 점에서 또한 안심이 된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분의 연세가 높다는 것이다. 나이가 칠십에 가까워 과연 이 세밀한 수술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뜻이다. 또 이 수술은 최신 장비를 사용해야 성공률이 높은데, 이분은 요즘의 첨단 장비를 다루는 데는 익숙하지 못하다는 견해도 있다.

또 한 사람의 의사는 젊고 야심찬 의사이다. 최근 외국에서 귀국한 사십 대 중반의 의사인데, 최신 장비의 사용에도 익숙하고, 이런 류의 정교한 수술에 대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런 점에서는 최적격 능력 보유자인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분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의사사고(醫事事故)와 관련된 재판에 계류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형사소추(訴追)를 피해 귀국했다는 소문이 있으며, 그 사고의 내용이 꺼림직하다는 것이다. 내용인즉 이 의사가 수술하던 환자의 멀쩡한 다른 장기를 잘라내어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환자에게 불법적으로 이식(移植)해주고 돈을 받았다는 혐의인데, 주위에 수소문해 보니 이 의사는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눈 하나 깜짝 않고 이와 같은 일을 해낼 수 있는 비인간적이고 냉혹한 성품의 소유자라는 것이다.

자! 이제 워크숍 참가자가 선택할 차례이다. 각자의 생사가 달려 있는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독자 여러분이라면 어느 의사에게 자신의 수술을 맡기겠는가?

지난 번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한 삼십 명쯤 되는 수강생들에게 이 질문을 던졌더니 첫 번째 의사를 선택하겠다는 사람이 겨우 두어 명, 두 번째 의사를 선택하겠다는 사람이 대여섯 명쯤 되었다. 그래서 손을 들지 않은 사람들에게 물었다. 나머지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느냐고…. 모두 한바탕 웃었는데, 그러더니 "교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역공(逆攻)이 들어왔다. 시침 뗙 따고 대답했다. "다른 의사를 찾아야지요." 그래서 또 웃음.

그런데 웃어 넘길 일이 아니다. 하나 밖에 없는 내 목숨 아닌가? 신뢰할 수 없는 의사에게 맡길 수는 없는 일. 위의 두 사람의 의사를 우리는 둘 다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망설이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신뢰성을 갖춘 사람만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 신뢰성이란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를 다 구비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좋은 성품(性稟, Character)과 뛰어난 역량(力量, Competence) 둘 중 어느 하나만을 가져서는 신뢰성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없음을 위의 예에서 보았다.

좋은 성품이란 성실성(Integrity), 성숙성(Maturity), 그리고 '승-승(Win-Win)'을 추구할 수 있는 심리적 풍요로움(Abundance Mentality) 같은 인성을 말하며, 역량이란 지식/기술(Knowledge/Technology), 개념화 능력(Conception), 그리고 이로부터 개인과 조직의 창의성(Creativity)을 창출하는 능력 등을 말한다.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사람만을 우리는 신뢰하게 된다.

신뢰성은 리더의 기본적 자질이며, 성공적인 코칭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코치의 덕목이다.

■ 한국코칭센터 고문

21세기 디지털 사찰 대 광 사

www.daegwangsa.com

"구세주 미륵불(대의왕)님은 인간시조 할아버지 신(神)이십니다."

경인년 새해 여러분 가정에 행운을 선사합니다.
대광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종교의학 편에서이론을 배우고 사이버 법당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21세기 후천세계 구세주 미륵불(대의왕)님의 신통도력이 일심으로 기도하면 자동 인간화 시켜줍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이버 법당 기도를 하여 법당에서와 똑같은 신통도력을 받아 쓸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수원 전국 각지에서 이미 실험을 마치고 대광사 기존 신도들은 유용하게 실용화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학으로 가장 빨리 치료가 되는 것은 오래된 두통, 편두통, 가벼운 신경성 질환, 위장병, 신경성 고혈압, 견통, 요통, 생리불순, 생리통, 정상불임부부임신 출산입니다.

전파(電波)로 신통도력(神通道力)을 전달(傳達)하는 방법(方法) 세상(世上)에서 처음일 것 !!
신통도력(神通道力)은 묘법화경(妙法華經) 제바달다품(提婆達多品)에 있습니다.

이 도법 천도선법(天道仙法)을 익혀서 수도하면 11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도는 기도의 생활화 입니다.
※가르치고 배워서 된다면 공자가 다 했을 것입니다. 컴퓨터가 없으신 분은 직접 찾아오십시오.

이 광고는 21년간 실용화 된 경험을 불자들에게 알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Dae Gwangsa is make of Automatic action a human a temple.
재가 불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1세기 디지털 사찰(寺刹) 大光寺 대광사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리 55-1번지 ☎ 041)552-9966, 557-3101, 9004

'유심'이 뽑은 문학 구원자들

유심작품상 김초혜 · 조동화 · 권기호 · 김교한 · 서준섭씨 선정

만해 한용운 스님은 무명(無明)과 혼돈이었던 시절을 불교적인 세계관과 조우하며 문학으로 진리의 빛을 발현했다. 혼돈과 무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자의 역할을 해준 만해 스님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한국현대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한 문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유심작품상이 8번째 수상자들을 선정했다.

불교문학을 대표하는 유심작품상은 이제 문인들에게 있어서 이력서에 꼭 한 번 넣고 싶은 명예로운 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 면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유심작품상 심사위원들은 현대문학을 이끌어가고 발전을 도모하는 작가들을 선출하기 위해 더욱 고심이 많아졌다. 이번 심사위원단은 이근배 위원장을 중심으로 권영민, 김재홍, 김제현, 유자효, 이가람, 이경철, 이상국, 장영우, 최동호, 홍성란 등 중진문인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고심 끝에 특별상, 시, 시조, 평론부문에 걸쳐 5명의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8월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열리는 만해축전 기간 중 각각 1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 현대문학을 이끌며 만해 스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2010년 새로운 문학의 구원의 길을 걷게 될 5명의 수상자와 작품들을 만나보자.


시계방향으로 김초혜, 조동화, 서준섭, 김교한, 권기호.

시 부문의 김초혜 시인은 근작 시인 '길'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초혜 시인의 '길'은 2009년 3, 4월 <유심>에 발표한 시로, 인간 삶의 과정을 보다 관조적인 자세와 절제된 언어로 절절하게 노래한 작품이다. 이는 시인의 서정세계가 현대적인 감각을 통한 시적 대상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높여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심사위원들은 김초혜 시인의 작품에 대해 "시적 성취에서 확인되는 전통적 정서와 현대적 감각의 결합, 언어의 압축과 내성적 시각의 균형, 인간의 삶에 대한 긍정과 사랑 등을 높이 평가해 시 부분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조 부문을 수상한 조동화 시인의 작품은 <대구시조> 2009년 제13호에 발표된 '빛'이라는 작품이다. 소통불능과 자폐증에 빠진 자유시에 대한 우려가 날로 높아져 가는 이때에 시조가 다시금 민족시의 정통과 정체성을 드러내 심사위원들의 찬사를 받았다. 조동화 시인은 정형(定型)이란 민족의 살가운 소통의 틀에 담긴 크고 영원한 세계, 오늘의 구체적인 일상의 시를 보여준다. 현대시조의 이런 본질적 측면에서 심사위원들은 그의 작품을 높이 평가했다. 그의 시 '빛'은 "먼 우주 가로질러 사람들 가슴 가슴에 와 닿는 빛"이라는 구절에서 보여주듯이 밝고 가벼우면서도 순간과 영원, 너와 나의 존재들을 소망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기품 있는 시이다.

평론 부문을 수상한 서준섭의 비평은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견실한 학문적 토대위에 중후한 시선으로 우리근대문학의 생성에 지적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서준섭의 작품들은 불교의 선사상에 깊은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어, 직관이나 불교적 사유 등이 그의 비평에 녹아나 있다. 서준섭의 수상작인 '창조적 상상력'은 이런 그의 사상이 잘 드러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특별상은 전년도와 달리 두 명의 시인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권기호 시인과 김교한 시인이다. 이 둘의 공통점은 중진문인이면서 현재에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권기호 시인의 작품들은 간명한 진술 속에 현대문명을 비판하고 생명의 중요성을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권기호 시인 또한 선불교의 사상이 발원이 돼 초현실주의 시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권기호 시인은 대체적으로 시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선과 하이데거 시론의 차이점을 규명하는 비평적 기여를 했다는 점이 심사위원들에게 높이 평가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이러한 문학적 특징이 현대문학을 이끌어가는 중진문인으로서 결코 과소평가 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교한 시인은 현대시조의 위상정립과 시조단의 형성에 일익을 담당했던 시인이다. 그는 '율(律)' 동인으로서 문학활동을 펼쳐나가며 한 평생 시조의 중흥에 앞장서 남다른 열정을 기울여 왔다. 김교한 시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매화'는 아직도 많은 시인들이 노래하며, 삶의 곡진한 의미들이 베어나는 작품이다. 이근배 위원장은 김교한 시인의 시조를 두고 "자칫 처세의 도에 가려질 뻔한 그의 업적과 성취들이 이번 수상을 계기로 다시금 재조명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용호도로 발견한 한중 교류

고판화박물관 한 · 중세화전 3월 30일까지

목판은 다른 회화작품과는 달리 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다. 그래서 예부터 목판에는 당시 유행하던 그림을 새겨 대중들에게 나눠주는 풍습이 유행했다.

이런 목판의 복제기능을 가장 잘 살려 사용했던 그림이 바로 용호도(龍虎圖)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용호도는 문에 붙여 잡귀를 물리치고 복을 들이는 문배도(門排圖)로 성행해 왔다.

하지만 이런 용호도가 비단 우리나라에만 성행했던 사실이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목판이 발견돼 주목되고 있다. 원주 고판화박물관(관장 선학)은 한국의 용호도가 중국에서 전래됐음을 입증해 주는 희귀목판을 공개했다.


고판화박물관 소장 용호도.

용호도는 우리나라 일부 민화학자들에 의해 민족 고유의 자생적인 풍습에서 나온 그림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었다. 하지만 고판화박물관에서 공개한 이 목판은 현 상황을 반증해 주는 사례이다. 용호도 중 하나인 호작도(虎鵲圖, 까치와 호랑이 그림)의 경우를 보면 중국에서는 보희도(報喜圖, 까치와 표범 그림)가 성행했는데, 이 그림이 우리나라에서 호작도로 발전됐다는 주장이다.

보희도의 경우 우리나라의 호작도와 달리 소나무 대신 오동나무가 그려져 있고, 표범이 원숭이, 까치와 함께 등장한다. 고판화박물관에서 공개한 중국 호작도는 이런 보희도에서 호작도로 넘어가는 중간단계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 명나라때 작품으로 추정되는 이 호작도는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날 한국과 중국이 긴밀한 교류가 있었음을 추정해 주는 자료가 된다.

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 정병모 교수는 "이 판목은 호랑이의 무늬를 도식적이면서도 섬세하게 표현했는데, 이러한 특징은 중국 산동성 량자부에서 간행한 민화의 양식"이라며 "그러한 점으로 봤을때, 이 판목은 산동성 지역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세화 문배도인 용호도의 원형을 살펴볼 수 있는 '경인년 새해맞이 한 · 중 세화전'은 3월 30일까지 고판화박물관에서 열린다. (033)761-7885

이은정 기자

불상·사경·불구 등 한 자리에

호림박물관 '불멸의 빛 금과 은'展

화려하고 매혹적인 빛깔로 꺼지지 않는 욕망의 대상인 금과 은이 불교의 대표 예술인 불상 · 사경과 만나 사람들에게 선보여 진다.

성보문화재단 호림박물관(관장 오윤선) 신사분관에서는 2010년 새해를 맞아 3월 28일까지 '영원을 꿈꾼 불멸의 빛, 金과 銀'을 전시한다.

전시는 '찬란한 진리의 빛 -불상(佛像)과 사경(寫經)' '지극한 공덕(功德)의 빛-불구(佛具)' '화려한 삶의 빛-장신구(裝身具)와 생활용품(生活用品)'으로 구성돼, 옛 미술 속에서 금과 은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자리이다.

특히 이번 전시의 메인전시인 불상과 사경 작품은 벌써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금과 은은 불교의 세계를 화려하고 정교하면서도 장엄하게 표현하는데 탁월했던 소재이다.


보물 752호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 보현행원품 권34>.

사경작품 같은 경우, 금과 은을 이용해 일자일배(一字一拜)의 지극한 정성으로 경전의 내용을 그리고 써 내려간 작품으로, 이번 전시에는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국보 211호 <백지묵서묘법연화경 권1~7>과 보물 752호 <감지금니대방광불화엄경보현행원품 권34>를 감상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에 몇 점 남아 있지 않은 고려불화인 보물 1048호 '지상시왕도'도 함께 선보여진다. 또 불교미술의 정수를 잘 보여주지만 그동안 미공개 됐던 금속공예의 핵심인 소탑, 향완, 금강령, 금강저, 석장두, 사리기 등도 대거 출품된다.

전시는 이밖에도 일상생활의 각종 장신구와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 영역에서 금과 은의 화려함과 예술성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성보문화재단 호림박물관 신사분관은 '영원을 꿈꾼 불멸의 빛, 金과 銀'과 함께 설치미술 작가 지니 서(Jinnie Seo)를 초대해 'Metal Soundscape-울림' 전시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02)541-3523

이은정 기자

'아! 성도 생명의 빛이어라!'

성도절 기념 신작 찬불가 초연… 1월 30일

불교의 탄생을 뜻하는 성도절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음악회가 열린다. 1월 30일 오후 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는 '아! 성도 생명의 빛이어라!' 공연이 개최된다. 이번 음악회에는 국내 최고의 작곡가들이 화엄경, 대장엄경 등 성도관련 내용의 신작찬불가 10여 곡을 초연한다. 이날 공연은 강이슬 외 10명의 정상급 불교성악가와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 · 무용단, 보광사합창단, 진관사합창단, 청계사합창단이 함께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이번 성도절 기념 음악회에 기획연출을 맡은 황학현 감독은 "성도절은 불교의 근본정신과 가장 밀접한 기념일"이라며 "그러한 이유에서 성도절 의미의 확산과 문화브랜드 구축을 위해 성도절기념 음악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석 3만원. (02)725-7849

이은정 기자

선칠 용맹정진
(7일 용맹정진)

◆ 결재일 : 2010년 1월 24일(일요일) 오후 7시 결재

◆ 해재일 : 2010년 1월 31일 (일요일) 사시회향

대한불교조계종 묘실상선원
042)585-0778 / 010-6555-6696

신수비결 (효타비결서)
2010년 경인년의 운세 (25,000원)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중에서 선별
• 작명,개명,상호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성씨 별로 2천-3천개의 이름들을 수록하였으며, 한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자와 한글을 함께 사용하였음
※ 회원님께는 1개월 동안 40% 할인해 드립니다. (3만원 착불)

역학(효타비결 전수생 모집)
아직도 5년 10년씩 역학을 공부하십니까?
(개인지도 2주에 완성 해 드립니다)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 010-7121-9406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수제화 고무신코 만행화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 동안거 결재중 법공양 올리실 사부대중님의 전화상담 받습니다 ◆

삶과 수행 둘이 아니니 일상에서 닦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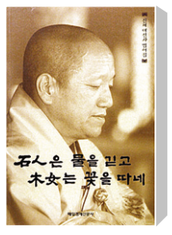
진제 스님이 권하는 바른 참선법 '석인은 물을 긷고 목녀는 꽃을 따네'

"시간이나 여건을 탓하지 말고 자기 직분에 충실하면서 화두를 잡으면 그 순간만큼이라도 세상 모든 시비 분별이 떠나고 크고 밝은 지혜가 계발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디에서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공부이면서 세세생생 행복을 누리는 공부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선사인 동화사 및 해운정사 조실 진제 스님이 일반인에게 참선의 중요성과 바른 화두 참선법을 소개한 <석인은 물을 긷고 목녀는 꽃을 따네>를 출간했다. 제 1부 언론과의 대담, 2부 2002년 국제무차선대법회 법거량, 3부 국내외 고승과의 법거량 및 선원 결제 법어, 4부 전법의 원류와 용어풀이 등으로 구성된 이 책은 진제 스님이 40여 년간 참선을 지도해 오면서 세상을 향해 던진 깨침의 메시지가 오롯이 담겨있다.



진제 스님.



특히 이번 어록은 스님의 기존 법어집과 달리, 일반인에게 눈높이를 맞춘 생활선의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바쁜 현대인들은 앉아서 참선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참선은 꼭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어떤 것이 참나인가?'라는 의심을 품고 생활하면 마음속의 번뇌와 갈등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 게다가 참선은 실생활에도 도움을 주니 삶과 수행이 둘이 아닌, 일상속의 마음 닦는 법을 제시한다.

"세상의 출세와 성공은 지혜에 달려있습니다. 참선으로 지혜를 계발하면 출세와 성공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지요."

책에 따르면, 참선은 사람의 그릇을 키워준다. 마음의 온갖 분별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나만 옳고 남은 그르다'고 하는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 상대를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 자연히 마음이 밝고 긍정적으로 바뀌어 대인관계도 원만해진다. 게다가 참선을 하면 직장인이나 학생들의 이러 저러한 잡념을 없애줘 업무에 충실해지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참선을 하면 노인이 돼도 허리가 굽지 않고 치매에 걸리지 않으며, 죽음에 다다라도 화두에 집중하고 있으면 고통 없이 몸을 벗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참선은 산속의 스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해야 한다는 것이 스님의 생각이다.

남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보고 우리는 '복이 많아서' '부모를 잘 만나서'라고들 하지만, 진제 스님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한다. 지혜가 없으면 남들 보다 뛰어난 부와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지키지 못해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설법이다.

진제 스님이 이 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길은 모든 사람들이 참다운 수행을 통해 본래성품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 수행은 출가자의 전유물도, 고행도 아니기에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 수행의 결과로 깨달음을 얻었을 때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것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진제 스님은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 바른 지도를 받아 일상생활에서 바르게 참구해 나간다면, 누구나 잃어버렸던 '참나'를 만나게 되어 모두가 영원히 꿈꾸는 자유와 행복을 만끽하는 참다운 삶을 된다"고 말한다. 우리의 본래성품에는 써도 써도 다함이 없는 무량한 지혜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참나를 찾는 수행은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잘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수행법입니다."

간화선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바른 선지식을 만나 바르게 참구하면 가장 빠른 성불의 지름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스님의 경험담이다. 설사, 이번 생에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마음 닦는 수행을 실천해 나간다면 남들보다 앞서는 지혜를 갖추게 돼 원하는 대로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안심 법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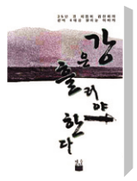
새해를 맞아 진제 스님이 제시하는 다음 화두로 생활속에서 마음 닦는 습관을 들여보자.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석인은 물을 긷고 목녀는 꽃을 따네
진제 스님 | 매일경제신문사 | 1만5000원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강이 흘러야 사람이 산다



강은 흘러야 한다
김상화 지음
미들하우스 펴냄|1만2000원

중국 고대의 치수책임자인 '곤'이라는 사람은 홍수를 막으려고 둑을 쌓았다. 그러나 물의 양이 너무 많아 둑은 터져버렸고, 곤은 홍수를 막는데 실패했다. 반면, '우'라는 왕은 강의 굽이마다 물길을 파서 홍수가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줬다. 결국, 우는 상습적인 홍수를 막는 데 성공한다.

이처럼, 막은 것은 언젠가는 터져버리고 말기에 강을 계속 흐르게 해야 한다며 호소하는 이가 있다. 낙동강공동체 대표, 운하백지화국민운동 공동대표인 이상화씨는 35년간 낙동강을 짝사랑해 발원지인 태백에서 낙동상 하구까지 1300리 길을 도보로 1370차례나 답사한 이다. 그가 쓴 <강은 흘러야 한다>는 강에서 퍼올린 사람, 문화, 자연의 이야기를 섬세한 묘사를 통해 가슴 뭉클하게 풀어놓는다.

저자는 "강 살리기의 본질은 인간과 자연 생태계가 공존하는 데 있으며, 그 바탕에서 오염원과 상습 침수 혹은 물 부족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은 흘러야 한다
김상화 지음 | 미들하우스 | 1만2000원

김성우 기자

서로 아껴야 '행복열쇠' 발견할 수 있어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 '요령소리' 펴내





"이 세상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왔으면서/ 어쩌다 탐욕의 노예가 되어/ 온갖 것을 다 가지려 하는가?/ 혼신을 다하여 쌓아놓았던 것이/ 천만 년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세연이 다해감에 이 모두가 헛일인 줄 알았네/ 무엇을 가져 갈꼬/ 무엇을 두고 갈꼬/ 생각 좀 해보세/ 참된 내 것이 무엇인지?"(자광 스님의 시 '공수래 공수거')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자광 스님(용인 반야정사 · 사진)이 구도자의 삶을 에세이 형식을 빌어 쓴 <요령소리>를 펴냈다. 그동안 부처님 법을 알리는 일에 헌신해온 스님이 삶 속에서 만난 만 가지 경계와 만상을 글로 옮겨낸 법어집이다.

책에서 자광 스님은 "우리의 삶 자체가 우주, 허공, 자연, 그리고 중생의 희생과 도움으로 살고 있으니 하루하루 나 외의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자"고 당부한다. 스님은 귀한 인연으로 세상에 나온 모든 생명이 부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 속에 '행복의 열쇠'가 들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고 설명한다. 참선수행에 대한 스님의 안목은 '알았네(覺)'라는 다음 시에서 엿보인다.

"마음에서 허공이 나왔고/ 시간과 공간이 나왔고/ 중생과 부처가 나왔고/ 천당과 지옥이 나왔으니/ 과연 삼라만상을 창조하였도다/ 항상 나와 함께 하는 진법계의 실상이여/ 만상이 들락거리는구나."

출가수행기간이 무려 50년(1960년 경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에 이르는 스님은 오늘도 군포교 현장에서 당신만의 '화두(話頭)'를 챙긴다.

"나는 너/ 너는 나/ 나와 너는 하나/ 그 하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요령소리 | 자광 스님 저 | 사유수 | 1만2000원

김성우 기자

북한불교의 문화 현황 한눈에

'북한의 사찰' '오늘의 북한불교' 발간



해방 전 북한 지역에는 총 31본산 중 8개의 대본산과 430곳의 사찰이 있었다. 8개 대본산인 황해도의 패엽사와 성불사, 평양 영명사, 평남 법흥사, 평북 보현사, 강원도의 유점사와 석왕사, 함남의 귀주사 가운데 패엽사, 영명사, 유점사, 석왕사가 1950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폐사가 되는 등 많은 사찰과 성보문화재가 훼손됐다. 2000년대 들어와 남북 협력으로 북한 지역의 사찰과 불교문화유산이 복원돼 현재 64곳의 사찰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불교문화를 종합적으로 엿볼 수 있는 안내서와 북한 사찰 화보집이 나란히 출간됐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이 펴낸 <북한의 사찰>(서유석 외 공저)은 북한의 현존 사찰, 북한의 주요 사찰(폐사지 포함), 북한의 불교문화재, 북한불교의 이해, 북한의 사찰재산 등을 컬러 사진과 함께 수록했다. 1993년 사찰문화연구원에서 출간한 <북한사찰연구>를 현재 상황에 맞게 대폭 수정, 보완한 이 책은 70여 사찰의 현황과 역사, 남북분단 이후 북한불교의 변화 흐름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전국 폐사지 순례기 <인혀진 가람탐험>의 저자로서 '문화재 보호 기금법' 제정운동과 폐사지 보존운동에 앞장서온 장용철 시인이 펴낸 <오늘의 북한불교>(진각종해인행 刊)는 북한 사찰64곳에 대한 본격적인 컬러 화보집이다. 10여 년간 북한불교와의 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현존사찰 전체에 대한 현황과 500여 매에 달하는 필름 자료를 게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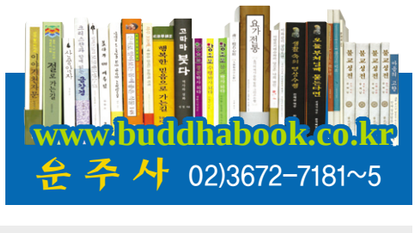
장용철 시인은 서문에서 "단청은 벗겨지고 도리는 좀먹었어도 한번 전통문화재라는 이름으로 자리잡은 불도량은 이데올로기라고 해도 함부러 밀쳐내기 어려운 것"이라며 "이 시대의 불자로서 변했으나 변하지 않은 부분의 실상을 추적하고, 변한 부분에 대한 이해와 섭수의 노력이 진행될 때 민족 구성원으로서의 불화고의 매듭은 풀릴 수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김성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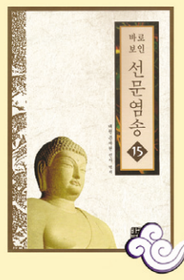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누구 없는가	법전	김영사
2	행복도 내 작품입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석인은 물을 긷고 목녀는 꽃을 따네	진제	매일경제신문
4	건널 강이 어디 있으랴	대행	한마음선원
5	선사들의 삶과 깨달음	방경일外	솔바람
6	운명을 바꾸는 법	정공	불광출판사
7	사는 즐거움	보경	뜰
8	생활 속의 참선수행 이야기	권영두	운주사
9	금강경 이야기	김동규	금강경독송회
10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	법정	문학의 숲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신간! 선문염송 15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15권 출간! 앙산, 향엄, 임제 선사의 주옥같은 공안을 한 치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원문을 새길 수 있도록 직역한 초발심자경문

법회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1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거제도 총명사 신중탱화


거제도 총명사 칠성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011-743-5167

사찰 건축의 얼굴 門 "문"
확! 바꿔드립니다



홍송으로 만들어집니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조각이 섬세합니다. 문화유산이 되도록 견고합니다.
◆문짝의 종류 : 사살 꽃살문, 육살 꽃살문, 빗살문, 사천왕문 금강역사문, 33관음문, 16나한문, 동자문, 조각문 주문제작
◆1,250나한 그림책 1권 – 판매금액 180,000원
◆입금계좌 : 농협 174392-56-064352 (예금주 : 이애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178-1 성불사내
◆불사상담문의 041)567-2600 / 011-421-5337
인터넷 주소창에 고건축 검색어 삽입
www.ehanok.com
목조 · PC고건축 · 사찰문 · 나한 문화재수리기능보유등록 제 1853호
한국고건축 금호 임영창 합장

“공부해도 성취하지 못하거든 노승의 머리를 베어가라”

정찬주 구도 소설 – 혜암 스님 이야기

가야산 정진불 〈55〉

제14장 사자후1



그림 · 최문정

혜암의 사자후는 새해 첫날부터 세간에 화제가 됐다. 전국의 주요 신문들이 혜암의 신년법어를 받아 기사화했고, 신문을 펼쳐든 국민들이 불가의 최고 어른인 혜암이 무슨 법어를 내렸는지 궁금해 했기 때문이었다. 조계종 종정 혜암이 내린 2000년 신년법어는 다음과 같았다.

〈미래는 오지 않고 과거는 가지 않으며, 현재는 머무르지 않으니 삼세(三世)는 텅 비어 미묘합니다. 이 도리를 알겠습니까. 알 수 있다면 해와 달이 새롭고 하늘과 땅이 특별하여 전쟁, 질병, 흉년, 환경파괴, 생사윤회 등 천만 가지의 재앙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새해 새날을 맞이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참나를 완성하십시오. 누가 이 세상에 신선이 없다 합니까. 모름지기 항아리 속에 딴 천지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인간 외에 남을 맹신하는 사상이 계몽되어 있으므로 인간 자신의 진리적인 참나를 깨닫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문화와 물질문명이 병행하여 발전되는 것이며 나아가서 물질문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일체 만물은 일심동체(一心同體)의 한 뿌리이기에 이쪽을 해치면 저쪽도 따라서 손해를 보고, 저쪽을 도우면 이쪽도 따라서 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알면 남을 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허망한 나를 버리고 우리의 모든 힘을 상호 협조하여, 힘차게 전진하되 원수를 도와주며 남의 고통을 대신 받으면 평화와 행복이 넘쳐 지상낙원이 됩니다.

마음속에 둥근 해가 높이 떠올라 삼라만상을 밝게 비추니 광명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있네.〉

혜암의 얼굴 사진이 세간에 알려지자, 법문하려고 도회지로 나가면 스님을 알아보고 합장하는 사람이 많았다. 대구의 한 포교당에서 혜암을 어렵게 초빙했을 때였다. 혜암은 약속한 법문 시간보다 일찍 대구로 나가 포교당 주지를 당황케 했다. 포교당 주지는 생각 끝에 혜암을 유명한 대중목욕탕으로 모셨다. 목욕탕은 대구에서 시설과 물이 좋기로 소문이 난 ‘덕산탕’이었다.

덕산탕에는 직업적으로 때를 미는 사람도 있었다. 포교당 주지는 때 미는 총각을 불러 말했다.

“해인사 큰스님이시니 잘 모시게.”

“어느 큰스님이십니까.”

“혜암 큰스님이네.”

“아이고, 영광입니다.”

“자네가 어떻게 큰스님을 아는가.”

“우리 어머니가 해인사 신도입니다.”

“아, 그런가. 잘 됐네. 이것도 인연이구만.”

포교당 주지는 때 미는 총각에게 돈을 주고 돌아갔고, 혜암은 목욕탕으로 들어갔다. 혜암이 목욕탕에 들자마자 때 미는 총각이 합장하고 말했다.

“큰스님,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 것이야.”

그래도 때 미는 총각이 달려들자, 혜암이 손사래를 쳤다. 두 사람이 알몸으로 옥신각신하자 목욕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킥킥 웃어댔다. 그러나 때 미는 총각은 포교당 주지에게 이미 돈을 받았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었다.

“큰스님, 누워서 한숨 주무셔도 됩니다.”

“그만 둬!”

혜암이 나지막하게 소리를 쳤다. 목욕을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가와 때 미는 총각을 꾸짖었다.

“이봐, 총각. 노스님께서 싫다고 하시는데 왜 귀찮게 하는가!”

“사실은 포교당 주지스님께서 큰스님을 잘 모시라며 돈을 주고 갔습니다.”

그러자 총각을 나무라던 사람이 물러섰고, 총각은 다시 혜암에게 말했다.

“큰스님, 수도꼭지가 있는 이쪽으로 오십시오.”

혜암이 답답하여 큰소리를 쳤다.

“그만 두라니까! 내 손발이 멀쩡한데 왜 남 빌어서 때를 밀어. 그러면 내생에 조막손 과보를 받게 되는 거여. 쓸데없는 소리 말고 저리 가!”

“큰스님, 그러시면 제가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단 말입니다. 얼른 미세요. 어서요.”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네, 큰스님.”

“그렇다면 제자로서 절 삼배하고 밀어. 그냥은 할 수 없어.”

목욕탕 사람들이 총각 주위로 다 몰려왔다. 목욕하던 중에 색다른 구경거리가 생긴 것이었다. 그런데도 혜암은 조금도 개의치 않고 그거 다 내놓고 결가부좌한 채로 앉았다. 그러자 총각이 삼배를 했다.

혜암이 총각에게 삼배를 받고 자신의 등을 맡긴 것은 다 홀랑 벗은 목욕탕에서도 수행자이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포교당으로 돌아와 목욕탕에서의 일을 법문하자 법당 안이 웃음바다로 변했다. 보살들이 웃음을 그치지 않자 혜암이 한 마디 했다.

“지금 웃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이뭣고’ 하란 말이오. 그걸 알아야 참으로 산 사람이거든.”

초파일에도 혜암은 조계종 종정으로서 법어를 내렸다. 이도 역시 불자뿐만 아니라 세간의 국민들에게 주는 법어였다.

〈산과 들에 꽃이 피고 나무마다 새가 울며 벌 나비 춤추니 좋을시고 사월이라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모든 중생 생일잔치 얼씨구 좋고 좋다.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본래 천진불임을 깨우쳐 인간의 절대적 존엄성을 가르쳐 주시며 오직 생사 일대사를 위하여 연극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의 본분사는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나 오신 뒤에라도 추호도 변함이 없는 진리이며 근본 원리입니다.

아무리 귀천한 사람이라도 인간은 모두 천진불이니 부처와 같이 부모와 같이 모셔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며 가진 자는 남을 도와주고 권위자는 공심을 써야 합니다.

중생들이 서로 싸우고 침해하는 것은 일심동체의 본연성을 모르기 때문이니 서로의 본연성을 알고 보면 싸울래야 싸울 수 없으며 해칠래야 해칠 수 없습니다.

본래 성불의 이 진리는 만고에 변함이 없어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행복입니다. 본분사로 말하면 내 본심 밖에 부처가 따로 없는 것이니 일체 중생이 다 함께 자기들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바다 밑에 등불 켜니 온 세상이 밝아지고 허공으로 북을 치니 중생들이 잠을 깨네.

아 악!〉

멀리 서울 진관사로 시자를 데리고 올라가 서울 신도들을 위해 ‘자성을 밝히는 길만이 살 길’이라고 법문하기도 했다. 서울 신도들이 절에 가서 대부분 참선보다는 기도와 염불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과 조사들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상경했던 것이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설사 억천만겁 동안 나의 깊고 묘한 법문을 다 외운다 하더라도 단 하루 동안 도를 닦아 마음을 밝힘만 못하느니라. 멀고 먼 전생부터 같이 도에 들어왔지만 아난은 항상 글을 좋아하여 글 배우는 데만 힘썼기 때문에 여태껏 성불하지 못했느니라. 나는 그 반대로 참선에만 힘썼기 때문에 벌써 성불하였다.”

옛 도인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본래 깨끗하여 명경(明鏡)과 같이 밝다. 탐진치 망상의 티끌이 쌓이고 쌓여 그 밝음을 잃고 캄캄하고 어두워서 생사의 고를 받게 된다. 모든 망상의 먼지를 다 털어버리면 본래 깨끗한 밝음이 드러나 영원히 어두움을 벗어나서 대자유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학문에 힘쓰는 것은 명경에 먼지를 자꾸 더하는 것이어서 생사고(生死苦)를 더 깊게 한다.”

육조 스님께서는 나무장사로서 글자는 한 자도 몰라도 도를 깨친 까닭에 그 법문은 부처님과 다름없고 천하 없이 학문을 많이 한 사람도 절대로 따를 수 없었습니다.

천태 스님이 도를 수행하다가 크게 깨치니 그 스승 남악스님이 칭찬하여 말했습니다.

“대장경을 다 외우는 아무리 큰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너의 한없는 법문은 당하지 못할 것이다.”

역(易) 선사는 고봉선사의 법제자입니다. 출가해서 〈심경〉을 배우는 데 사흘 동안 한 자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스승이 대단히 슬퍼하니 누가 보고 “이 사람은 전생부터 참선하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하여 참선을 시키니 과연 남보다 뛰어나게 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크게 깨쳐 그 당시 유명한 고봉선사의 제자가 되어 널리 법을 폈습니다. 99세에 입적하여 화장을 하니 연기는 조금도 나지 않고 사리가 무수히 쏟아져 사람들을 더 한층 놀라게 하였습니다.

영명 선사가 말씀하시되, “널리 세상에 참선을 권하노니 설사 듣고 믿지 않더라도 성불의 종자는 심었고, 공부를 하다가 성취를 못하여도 인간과 천상의 복은 훨씬 지나간다.”라고 하였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들이 총림에 있으면서 10년, 20년 말하지 않고 공부하여라. 그래도 너희를 벙어리라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공부하여도 성취하지 못하거든 노승의 머리를 베어가라.”

필요한 말을 할 때도 화두가 항상 계속되어서 간단이 없어야 합니다. 자성을 밝히는 선문(禪門)에서 볼 때는 염불도 마구니며, 일체 경전을 다 외워도 외도이며, 대비심으로써 일체 중생을 도와 큰 불사를 하여도 귀신입니다. 모두 다 생사법이지 생사를 벗어나는 길은 되지 못하니 필경 송장단장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자성을 밝히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동산 스님이 “부처와 조사 보기를 원수같이 하여야 바야흐로 공부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올빼미는 다 크면 그 어미를 잡아먹나니 공부인도 필경 이와 같이 부처와 조사를 다 잡아먹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가 참으로 부처님의 은혜를 갚게 되는 때입니다.〉

혜암의 법문을 들은 신도들 가운데는 발심하여 당장 원당암으로 내려와 화두를 받고 난 뒤, 재가불자 선방인 달마선원에 입실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때마다 혜암은 공양 중에서 가장 큰 공양은 참선하면서 자성을 찾는 자성공양(自性供養)이라고 당부하곤 했다.

〈계속〉

부처와 조사 보기를 원수같이 하여야 바야흐로 공부하게 된다

혜암의 사자후는 새해 첫날부터 세간에 화제
도회지에 나가면 합장하는 사람많아져
법문듣고 발심하여 곧장 입실하는 불자도
“오직 자성을 밝히는 것이 살 길” 참선 수행 독려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철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 안 거 결 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재

매년 설날, 중양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 (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www.wondangam.org
감원 벽산 원각 |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60 밥은 '잘 놀기' - 신 화백 편2 <끝>

소 뒷걸음치다 쥐 잡은 김치비법

한 지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일 년 만에 만난 신 화백님은 여전했다. 재치 넘치고 유머러스한 말투나 특유의 입담은 분위기를 압도해 그가 함께한 자리는 늘 웃음이 넘쳐났다. 한쪽에서 그의 얘기를 경청하던 나는 전날 피곤이 가시지 않아 한숨 자볼 요량으로 테이블에 엎드렸다.

"얘는 오늘 먹고 한숨 자고 먹고 한숨 자고 계속 이러네."

원실 언니의 말을 받아 신 화백님이 뜬금없이 누에가 다섯 번 잠을 자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누에가 다섯 번 잠을 자는데 다섯번 잠을 잔다는 건 다섯 번 허물을 벗는다는 거야. 인간이 공부하고 해탈하려는 것도 허물을 벗는 거야. 하물며 누에도 다섯 번 자고 여섯 번째 나방이 되는데 그러면 인간은 얼마나 많은 허물을 벗어야 되겠어. 부처는 팔만사천 번뇌라고 그랬지. 팔만사천번의 허물을 벗어야 한 인간으로서 날아가는 거야. 영이 너는 몇 번 잠자고 허물을 벗었냐?"



선경 언니의 김치담그는 법은 '대충 대충' 이다. 오히려 신경 써서 하면 맛이 이상한데 대충하면 맛있다는 것이 그녀의 지론이다.

피곤과 식곤증이 겹쳐 솔솔 쏟아지던 잠이 순간 달아나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던 내게 신 화백님은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그러니까 팔만사천 번뇌를 벗어야 제대로 한 인간이 되고 부처가 되니까 허물 벗는걸 두려워하면 안 되겠지? 그런데 허물을 팔만사천 번 벗으려면 얼마나 바쁘게 벗어야겠냐? 그래서 바쁜 거야. 인생이…. 그래서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그러지 않던."

신 화백님의 이야기에 소위 기센 여자로 통하는 미경 언니가 "철학적인 얘길 하시니까 술이 깨네 깨"라며 딴지를 걸고, 신 화백님은 이에 질세라 "아니 누에가 허물 벗는 게 철학적이냐?"라며 응수를 한다. 두 사람이 옥신각신 정을 나누는 사이, 한쪽에서 다소곳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선경 언니가 "제가 절에 김치를 담그러 가야 돼서요"라며 먼저 일어섰다. 절집 김장을 담글 정도면 그 실력이 만만치 않을 듯싶어 "무슨 비법이 있어요?"라고 물으니 돌아오는 답이 너무 싱겁다.

"그냥 대충 하면 되는데…. 정말로 신경 써서 하면 맛이 이상한데 대충하면 진짜 맛있어요."

헤어지기가 못내 서운한 신 화백님이 이번에는 선경 언니의 발목을 잡기위해 다시 장황한 해설을 잇는다.

"그러니까 소가 뒷걸음치다 쥐 잡은 꼴인 건데, 그게 대충 어떻게 하다 보니 수십 년간 그렇게 잘된 거지. 그런데 거기에 대고 비법을 물어보니 순간 불안증세가 온 거야. 이 불안증세가 나중엔 사람을 한자리에 오래 못 있게 하거든. 오늘 김치 간보러 간가는 것도 실은 거짓말인지 몰라. 오래 있으면 뭔가 내 불안이 표출될 것 같으니까 자리를 빨리 뜨는 거지. 안 그래?"

간다는 사람을 잡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순진한 선경 언니는 "실은 김치를 많이 담아보진 않았어요. 간을 잘 보는 거지. 그런데 저번에 밴댕이젓을 넣고 해봤더니 맛있더라고요"라며 자백 아닌 자백을 한다.

"무슨 소리여. 배추는 생새우하고 새우젓하고 멸치젓 조금 넣고 하는 게 맛있어. 아니면 황석어젓이라고 있어. 그걸로 담가도 좋아. 우리가 흔히 황새기젓이라고 하는데 원래 표준말은 황석어가 맞아."

요리라면 한 솜씨 뽐내는 명숙 언니가 한마디 거드는 사이, 출판기념회의 본 행사가 시작되었다. 식순 중반쯤, 시인이자 싱어송라이터인 한초대자의 축가가 이어졌다.

"나는 작은 꽃이 좋아. / 왜냐고? / 작은 꽃은 풍경을 덜 가리거든."

'겸양'이라는 짧은 시가 마음에 콱 박혔다. 신 화백님의 '네버엔딩' 잔소리가 다시 시작된 건 그 무렵에서다.

"세상은 쓸모없는 데서 생긴 거야. 실은 쓸모없는 게 나를 살찌우지, 쓸모 있는 게 나를 살리지는 못해. 쓸모없는 땅에서 나무가 뿌리를 내려고 자라서, 쓸모없는 인연이 쓸모 있는 인연을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 쓸모 있는 것도 쓸모없는 것도 원래 없는 거야."

너무나 간결해 아름다운 싯 구절이나 쉼 없이 이어지는 신 화백님의 잔소리나 짧은 이야기도 긴 이야기도 가슴에 꽂힐 때 "거기 분위기 흐리고 있는 두 사람, 칠판에 '떠든 사람' 이라고 적을 거예요"라며 사회자의 제재가 가해졌다. 멀쑥해진 신 화백님이 한마디 한다.

"야, 김치 간보러 언제 떠날지 모르는 아줌마는 그새 갔냐?"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불교와 무술이야기

2 무술은 왜 생겼나?

'무예' 생존위해 필수적인 '기술'

그냥 서로 화합하며 좋게 살면 무술 같은 것은 필요 없지 않을까요? 삶에 있어 한 가지 괴로운 것은 너무나도 많은 이상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불교 교리에서 '사성제'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뜻은 '고통은 집착이 원인이고, 그 집착을 놓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하며, 수행을 통해 욕심을 버리면, 열반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필자는 처음 승려가 되었을 때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 길을 갔습니다. 쉽게 말해 '도(道) 통하기 위해서'지요. 하지만 정작 道가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절에 열심히 나갔지만 스님들께 "스님 도가 뭐에요?" 하고 물어보면, "뜰 앞의 잣나무지" 하는 식의 선문답만 돌아와서, '음~ 道는 그냥 알 수 없는 무엇이고, 참선을 하다보면 통하나 보다' 하고 생각했었죠. 길과 목표는 있었지만 그 세부사항은 전혀 알 수가 없었기에 세월만 보내고 있었고, 그냥 지나가는 세월은 발전 없는 수행생활이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현 불교에서 행하는 모든 수행을 다 섭렵해 보자' 라는 명목으로 무술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만난 부처님 당시의 근본교리는 지쳐져 가는 수행생활에 전환점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정 마음으로 느끼고 그 수행법을 행하지 않고, 중국시대의 선(禪) 수행을 하는 것이 문제였기에 암기과목으로 전락해 버린 것 입니다.



임진왜란 전투 그림.

부처님 당시의 사람들은 사성제 설법을 듣고 발심을 하여 불교를 따르지만, 지금은 사성제가 아닌 중국시대 선사들의 선문답을 듣고 출가하는 것이 그 시작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苦), 집(執), 멸(滅), 도(道) 사성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도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의 결과 문제이지, 시작하는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성제에서 말하는 도는 다른 말로는 '열반'이고 빨리어로는 '닙빠나' 입니다. 우리는 보통 '닙빠나' 라는 표기보다는 '니르바나' 라는 표기가 친숙한데 후자는 빨리어가 아닌 산스크리트어 발음으로 그 뜻은 같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소멸' 이라는 말로써 그 뜻은 '더 이상 윤회에 들지 않는다' 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고(苦)입니다. 이 고를 바로 알아야 만이 세속의 욕락은 덧없고 부질없는 것이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고를 끊기 위해 수행에 접어들기 때문입니다. 그 수행이 말하는 것이 사성제의 滅(멸)입니다.

욕락의 원인은 집착인데, 왜 집착이 생길까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말이 쉽지, 욕심을 버리기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욕락과 집착은 누가 먼저라고 할 수 없이 앞과 뒤가 없는 원과 같습니다.

이렇듯 무예 역시 욕락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밝혀보며 본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무예는 과거 인류의 탄생과 더불어 생존을 위한 싸움기술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는 생존을 위해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봉의군신' 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뜻은 하찮은 벌과 개미에게도 위 아래의 서열이 있다는 말입니다. 학창시절을 다 거쳐보셔서 아시겠지만 각 학급마다 누가 짱이고, 두 번째고 하는 식의 주먹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남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이런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전 원시시대도 생존을 위해서 동물이나 다른 부족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했으며, 이에 자신을 방어하고 더 나아가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제압할 수 있을까? 하는 연구에 연구가 점차 고급 무술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역사가 말해 주듯 무력은 인간의 삶에 있어 빼려야 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만 착하고 신선같이 산다고 될까요? 우리는 임진왜란과 일제 식민지 시절을 거치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운 민족이기에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단결이 잘 되는 것입니다.

황현수 : 근본불교학자/ 다음카페: 37수도장



국순려의 **괄사이야기**

2 괄사의 정의와 역사

할머니가 아픈 배를 만져줬듯…

괄사(刮痧)의 '괄(刮)' 자는 긁는다는 뜻을 가졌고 '사(痧)'는 괴질 또는 반점이란 뜻을 가졌다. 즉 괴질을 긁어서 반점을 사출시키거나 독성을 하출하여 체내 항상성을 회복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괄사(刮痧)의 정의를 간략히 기술코자 한다.

인체의 피부에는 몸 안과 몸 밖의 환경변화에 따라, 반응을 나타내는 많은 반응점 들이 있다. 서양의학에서는 감각수용기라고 말하고 동양의학에서는 혈위라고 말한다.

이러한 반응점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학설에 따라 그 숫자의 차이는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공통점은 이러한 피부 반응점을 자극하면 인체의 내부 환경에 변화가 생겨 건강능력 향상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인체 피부에 분포 되어 있는 피부 반응점을 괄사(刮痧)도구로써 밀기, 누르기, 긁기, 튕기기, 파기, 두드리기 등으로 인체구조적인 형태의 근육과 골격을 자극한다. 혈관, 림프관, 신경, 경락을 순환노선에 따라 자극을 주면 체내의 환경이 개선되어 건강능력이 최대한 발달해 건강관리에 도움 되는 대체요법을 괄사(刮痧)라고 한다. 즉, 병이 있어 약물치료를 받는 사람은 약물 독성을 배출시키고 약물효능은 극대화 시켜 '질병' 이 빨리 쾌차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자적 역할을 해주는 대체요법이며 아건강자(亞建康者:병명은 뚜렷이 없으나 몸이 늘 피로하며 잘 아프거나 약한 사람)는 몸을 가뿐하게 만들어 주는 건강관리 방법인 것이다.

나아가 건강관리란 환자가 아니라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실행할 수 있을 때 자신의 건강능력 척도를 가장 잘 알 수 있다. 또 돈이 적게 들면서 시간도 적게 들고 관리 방법을 배우고 익히기 쉬워서 누구나 실천하면 건강관리가 될 수 있는 공통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건강능력개발법에 대한 괄사(刮痧)이념이다.

괄사(刮痧) 대체요법 역사는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석기 시대 '폄석' 이라는 괄사 화석으로 보이는 도구가 있다는 기록 정도 밖에 없다.

중국은 B.C. 200년 한나라 시대 52병방 의서에 기록돼 있다. 명, 청시대 장경악, 곽지수 저술의서에 상세히 기록 되어 있고 20세기에는 대만학자 여계유 교수의서에 괄사이론, 도구, 괄사기법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역사적 기록이 없다 해서 우리나라는 괄사 대체요법이 전래되지 않았고 중국에만 전래된 외치법(外治法: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괄사를 의료법으로 인정하고 있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인체 사지에서 손이란 원시시대부터 생활도구, 의료도구, 심지어 무기로까지 써 온 도구이기 때문이다. 손자가 배 아프다고 하면 할머니가 손을 싹싹 비벼서 아픈 배를 만져주고, 급체한 사람이 있으면 바늘을 머리에 쓱쓱 문지른 다음 콧김을 쐬어 손가락 끝을 찌르거나, 호리병에 참기름을 발라 등을 정성껏 문질러 주어 설사를 하게하거나 토하게 만든 것은 불과 40년 전 우리나라 오지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괄사 기법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단지 의술을 천민들이 행하는 기술이라고 여겨 의사를 홀대했던 우리나라 사회적 배경과 의사를 재상 다음으로 존중했던 중국사회적 배경의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록이 없을 수 있다고 유추 될 뿐이다. 이처럼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인간의 피부를 자극시켜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회복한 괄사 대체요법은 유구한 역사를 흐르면서 우리나라에도 전수됐을 것이라는 말이다.

단지 그 시술법이 너무 간단하고 용이하기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배울 수 있으므로 의사들은 이를 가볍게 여겼을 것이고 빈민층은 의학적 이론을 배울 수 없었던 것뿐이었다. (02)557-1628~9

국순려건강능력개발원장

Dr. 황의 **바른 자세 · 바른 생활**

2 체형교정의 발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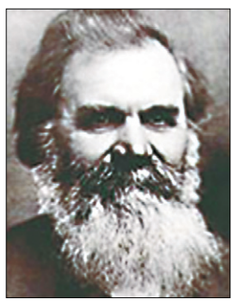
'카이로프랙틱' 약물 · 수술 하지않는 자연요법

"우두두둑~" 등 허리에서 소리가 쫙 나야지만 몸이 시원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20여 년 전부터 국내에서 점차 퍼진 카이로프랙틱 때문일 것입니다. 이 말의 어원은 그리스어에서 '손'을 뜻하는 '케이로스'와 치료하다는 뜻인 '프래티스'에서 온 말입니다. 카이로프랙틱은 약물이나 수술을 사용하지 않는 자연 요법입니다. 매우 보수적이면서도 자연적인 접근법으로 인체를 한 부분이 아닌 전체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며 치료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방과 유지적인 면에 역점을 두어 영양과 운동을 겸한, 신경 · 근육 · 골격을 복합적으로 다루는 치료법입니다. 이는 미국인 '대니얼 데이비스 팔머'가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널리 보급하였습니다. 팔머는 1895년 어느 날 17년 동안 귀머거리로 지내온 환자를 치료하다가 우연히 목뼈 가운데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을 발견하고는 그곳을 힘껏 눌러 제자리로 돌려놓았는데, 그 순간 환자의 귀가 갑자기 뚫려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뒤에 팔머는 뼈와 질병의 관계에 대해 연구를 시작하였고, 그 시작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카이로프랙틱을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반이 살고 있는 아시아가 카이로프랙틱을 법제화하거나 인증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늦은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에 최근까지도 정규 학교나 인증된 대학이 없었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절히 교육 받은 카이로프랙틱 의사들이 배출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카이로프랙틱 의사는 아주 일반적인 문제를 진료합니다. 가장 많은 환자들은 요통 환자, 경추, 그리고 다른 근 · 골격계 통증 환자입니다. 요통과 두통은 일터에서 시간을 소모하게하고 생산성을 떨어뜨려, 환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국가 보건 체계의 비용을 소모하게 하여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카이로프랙틱 치료의 큰 장점은 환자의 치료 만족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가장 흔한 치료 대상 질병인 요통, 경부통, 두통 등에 있어서의 장점은 객관적이고 과학적 증거로 뒷받침됩니다. 메디칼 의사(우리나라 일반 의사)들은 만성적이고 기계적인 요통 환자와, 검사에서 뚜렷한 병명이 나오지 않는 환자들로 매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메디칼 의사와 카이로프랙틱 의사들이 공동진료를 하는 것도 상호 보완적인 일입니다. 메디칼 의사들은 투약 치료가 필요한 경우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의 질병에 대해 전문적으로 진료 할 것이고, 카이로프랙틱 의사들은 생체역학적인 기능 문제에서 기인된 급 · 만성 질환을 카이로프랙틱의 전문적 치료 도구인 교정으로 치료하고 운동을 처방할 것입니다. 각각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서로에게 보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전문 카이로프랙틱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하는 곳이야 많지만, 미국과 비교해 보면, 미국은 카이로프랙틱 의사가 되려면 수련의 기간 6년간 4200시간의 수업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임상실습을 거쳐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로 볼 때 우리나라 의대에서 잠깐 배우는 것을 미국과 비교할 때 그 수준이 같으리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수련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환자의 상태는 일괄적이거나 통계적으로 구분 할 수가 없습니다. 키 · 나이 · 골밀도 · 근육 분포도 등등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기에 건장한 남자에게 한 시술의 강도로 노인이나, 출산 후 여성에게 행하였을 경우 뼈가 부러지는 상태까지 갈 수도 있으며, 이런 일이 간혹 발생 합니다. 본인 역시 4200여 시간이라는 방대한 수련 동안 헤아리기 힘든 환자를 만났으며,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 손으로 만져 보는 것만으로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환자들에게 가장 알맞은 시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전문 교수님들과 수많은 임상실험이 제 스승이 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척추검진을 합니다. 척추질환을 미연에 방지하고 척추 측만증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척추검진을 통해서 학생 스스로 척추를 관리하도록 하는 교육적 의미도 큽니다. 이는 다시 말해 휘어질 대로 휘어져 카이로프랙틱에 의존하기 전에 미리미리 휘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기어다니다 일어나 걷는 순간부터 척추변형의 시작을 알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양손 중에 하나를 집중적으로 사용함으로서 점진적인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몸을 원상태로 돌려놓는 체형교정법은 식사와 다름없이 해야 하는 일상생활이 돼야만 합니다.

<PnP교정센터 황상보 원장 T : 1544-9697>

황상보 /PnP교정센터원장



카이로프랙틱을 체계화 시킨 대니얼 데이비스 팔머.



인체의 골격.

불자생활정보 | 21 | 제 767호 2010년 1월 20일 수요일

▷ 문의 : TEL 02)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 (입금이 되어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서울 총무원 02)579-3690
연락처 010-2606-5121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 · 빙의 · 퇴마
짧은 시간에 속성으로 실전 위주로 확실하게 비법을 개인지도 함
역학 : 귀신 메는 명리 (통변 가능한 분)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사성, 작명
최면 : 전생요법, 빙의, 퇴마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영산 중요무형문화재 50호 전수
범음범패 바라무 나비춤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전문
02)802-8554
017-219-4757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885-6
대흥사 주지 연암 합장
선망부모 천도재는 간절한 정성기도
사주, 명리 상담해 드립니다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역학특별지도
1. 실천2주, 특수속성반
2. 귀신쫍는 비법
3. 내화역수, 내정법, 고급 포태법
4. 특수비법 역학, 택일, 성명학, 궁합
5. 신내림, 신병, 상담한영
010-2484-5001 스님에 한해
031)943-8094 특별 할인혜택
출장지도 가능

각종 불공 범음 · 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예수재, 수륙재,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 주역, 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악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자결혼 상담소
국내 : 초혼, 재혼, 친구, 연인
국제 : 필리핀, 베트남, 한족
성실男 미모女 상담환영.
30대女 무료, 70세까지 (남녀)
아현역 2번출구 (원갑사)
02)365-1345
010-9114-4345

만물 만능 氣 잡기
사물의 진가, 정부정책, 마음의 진위,
사업성패, 미래예측, 기풍수,
기사주, 원격투시, 내게 맞는 것 찾기,
영가상태, 만물 만능치유, 운명개척 등
수치까지 확인.
시중철학이 아닌 100% 과학
누구나 쉽고 간편한 방법. 효능은 무궁
016-606-5658

김 현산 작명 역리원
⊙작명 ⊙사주 ⊙운명철학상담
전국 불자님 전화, 우편상담 환영
사주학 기초부터 개업까지 책임지도
기초과정 후 간명비법 전수
110-320 서울 종로구 낙원동 176번지 (3층)
종로3가역 ① 번출구 직진 낙원상가
방면 미투리의상실 3층
010-9113-8545 김현산
02)741-8449 역리원

동양 철학 배우실 분
명리학 성명학 주역 (육효)
배울 곳 : 경북 구미
숙식제공 가능
054)972-9872
010-6208-5555
원장스님 직접 강의

역 학 강 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자님들께
전하는 것도 좋은 일 이지만
학문을 통해 인생에 조언자가
되는 것도 부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031)917-5680
010-3957-5680

공양주 구함
대한불교조계종 지장대사
(전남 여수시 소재)
* 주변에 아시는 분 계시면
소개를 부탁합니다.
061)644-1244
010-4442-6789

부전스님
모십니다
▷학천사 총무원,부산 영남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거창)
070-8791-784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748-3004

기도스님
모십니다
▷경기도
011-9317-918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10-3088-3133

신심있는
청소하실
보살님 모십니다
019-9729-7005

노블레스 타워
불교관에서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02)910-6090

전남 사찰에서
노보살님 모시고
토굴에서 사실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011-842-253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성남
011-212-9810

대방등 대집경 대승기도
●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법당을 모신 보살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칭기스칸 대학교
한국캠퍼스 한국불교승가대학 세계화교육
chinggis khaan university
• 정규과정 : 2년제, 4년제 편입학 가능 • 전문과정 : 1년제입학 종교학 (불교문화 학과)
• 강 사 진 : 석사, 박사 12명. 특강
• 과 목 : 종교학, 사회복지학과, 정치외교학과, 불교학, 경영학과, 교육학과, 철학과
• 특 전 : 전세계 대학 편입학 인정, 학비저렴, 시간여유
학교법인 김해대학교육원 강의실 kaya university life education
불교종립 불교문화대학원
학무처 : 0502-788-0808, 055)338-0050, 011-801-8197

행자(예비스님) 및 기도스님모집
백고좌 대법회 봉행도량에서 행자(예비스님) 및 기도스님을 함께 모십니다.
● 누구나 수행하는 열린도량!
● 개성존중 및 자율적인 분위기로서 수행공부와 수계이후의 모든 지원
● 성 별 : 남자 (행자) ● 학 력 : 고졸이상
● 비구, 비구니 : 각각 1명(기도&법사) ● 공양주 : 2명 (숙식제공)
※매년 1회이상 백고좌 대법회를 봉행하며 법납 30년 이상 비구, 비구니 법사스님의 추천을 원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잠1길 2-9
대한불교조계종 법왕사 • 법왕불교대학
www.bubwangsa.or.kr 053)766-3742

큰 법력으로 사물, 바라, 살풀이 무,
극락무 등 시연과 함께 우리말, 한문
등을 마음대로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
를 동시에 해탈케하는 정말 신심나는
천도재, 49재 및 불상 불화 점안,
각종 불공의식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1-854-8107
50대 초반 비구승 무불 합장

소원성취 · 영험도량
잠시 한, 두달 백일
마음공부 용맹정진
소원기도 하고 싶으신분
앞일 알고 싶은 분 오세요
031)674-7188 백마사
033)441-0664 장안사

체용 사주원리 요해 무료강좌
▶강사 : 김영진 선생님 (故 이석영 선생님 제자)
▶일시 : 2010년 1월 9일 (토요일) 시작
(오후 2-5시까지)
전화 : 02)306-7988 / 010-5624-1365
수색 광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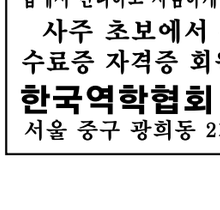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하루밤에 깨우치는
나경(패철)사용법
문학박사 전용원 저 2만 5천원 전국 대형서점
전화주문: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2만 5천원 입금, 전화주시면
저자가 직접 서명하고 낙관찍어 월간역학 1권
(8,800원) 무료기증 함께 보내드립니다.
전화 1688-1137 역학 동영상강의 www.kbs.cc

행자 모집 합니다
사찰운영 및 기도정진,
주지스님 시봉하시다가
주지스님 열반 후에 본인
앞으로 사찰 등기 가능함.
(세수 35-45세까지)
* 신심이 확실한 분만 전화하세요.
010-3499-3721

조계종 수번 생활광고하여도
전화만 올 뿐, 답답하여 다시내니
객관적 문제가 있는것도 아닌데
노승이 그만 쉬고자 **비구니 4-50대**
답사하여 안착운영관리 바람.
그리고 조용한 도량에 의지하고
불심있는 **4-50대 공양주 연락바람.**
소백산 지장보궁 내원암
경북054)653-1180
010-6353-1180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 분야 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명리학 개인지도 속성*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이름 • 상호 팔지에 맞게끔 찾아드립니다.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서울도량 개원 법회 및 신입생모집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동안거 해제 후)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개원일시 : 1월 23일(토) 오후2시
● 위 치 : 제기동 불로장생타워 4층(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2번출구)
● 신입생 모집 1기 매주 화요일 오전반 1월 26일(화) 오전 11시
2기 매주 목요일 저녁반 1월 28일(목) 오후 7시 30분
● 문 의 : 서울도량 02)6456-7228 대구큰절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기도비법 전수
1. 동양철학 기초에서 통변까지
2. 빙의, 퇴마, 전생요법
3.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보살
속성 개인지도
010-4500-8234
목동역 3번출구 정담 스님

卍 영대암
각종 어려운 사연
남녀문제 절대 비밀 상담해 드림
매매, 사업, 부적, 작명
출장상담 가능
010-5306-8843

이 기구만 있으면 풍수지리 대가가 될 수 있다!!

명당 탐지기
관룡자, 심룡척
관룡자와 심룡척은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는 문학박사 전용원이 1970년대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로도 판매되는 기구입니다. 이들 제품은 성능과 모양이 똑같으며 상표만 다릅니다. 명당혈에서 옆으로 90도 회전하여 100% 정확히 명당혈을 찾아냅니다. 묘터나 집터, 사찰, 아파트, 공장터를 잡거나 감정할 때 사용하며 누구나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입방법: 관룡자, 심룡척은 본래 88만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면 66만원으로 할인+월간역학 1년(105,600원)+수맥 탐지봉(15,000원)+휴대용 케이스(2만원)를 보너스로 드립니다.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66만원 입금, 전화(1688-1137)주시면 즉시 보내드리고 1년간 매월 월간역학을 우송해드립니다.
역학 동영상 강의 www.kbs.cc
사주 관상 풍수지리 주역 육효 자미두수
집에서 편리하고 저렴하게 확실한 공부, 24시간 반복 학습 가능함
사주 초보에서 완성까지 45만원 부터
수료증 자격증 회원증 월간역학 필진 위촉장
한국역학협회 관인 월간역학교육원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 전화 1688-1137

육임강사반 모집
본 학회에서는 현재 활동 중인 육임 강사님과,
강사를 희망하고 계신 예비 강사님들을 위하여
아래 강좌를 개설합니다
아직도 검증되지 않은 교재로 강의하고 계십니까?
육임학 정통 원전 수업으로 이론을 정립하십시오!
심사 후, 해당 지역의 한 분만에게만
교육기회가 주어집니다.
1. 교수 : 이우산
『육임입문』 · 『육임실전』 저자.
서라벌대 및 동국대(사회교육원) 교수.
2. 교재 : (당)『육임심경』, (송)『대육임필법부』,
(명)『육임지남』, (명)『육임대전』,
(청)『육임수언』 등, 5대 육임경전.
3. 진로 : 지역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등에서
육임학 전문강사로 활동.
4. 대상 : 육임학 열공 3년 이상된 분
5. 지역 : 부산 · 경남지역, 대구 · 경북지역,
광주 · 전남지역, 전주 · 전북지역,
대전 · 충남지역, 청주 · 충북지역,
경기도 지역, 강원도지역.
7. 문의 : 고려육임학회
02)816-2115
010-7321-5539

테이프로 공부하는 **四柱 특강**
타고난 운명을 비롯해서 인간만사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감정의 원리와 요령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설명함으로서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날 것이다. 비록 테이프로 공부하지만 선생의 강의를 직접 생생하게 듣는 것과 같다. 初步에서 最高과정까지 철저히 이해시키는 독특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날 것이다 더욱이 有名人士들의 四柱를 실제로 풀이하였으므로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테이프 13개와 교재대 포함 15만원)
녹음 테이프로 하루 한시간씩 2개월이면 완성할 수 있다.

易 理 作 名 法
당신도 作名大家가 될 수 있다.
이름을 한번 잘 못 지으면 평생 후회하게 되고 다시 개명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시중(市中)에 나와 있는 작명서들이 한결같이 수리와 오행에 맞추어 이름을 짓고 있는데 만약 두 사람의 이름이 똑같은 수리와 오행이라면 똑같은 이름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좋은 이름은 수리와 오행뿐만 아니라 주역(周易)에 맞추어 지어야 한다. 주역을 몰라도 누구나 알기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382쪽, 정가 : 30,000원)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면 속달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著者 : 孫中山 (75세)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會長
◆계좌번호 : 농협 100080-56-022361 (손선영)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053)324-2468 / 010-9391-5699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대천사
- 법 명 : 선인 (신태호)
- 주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410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4일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법하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02)2004-8215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수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 법당 : 50평
- 요사 : 200평
- 부지 : 2,000평
- 가액 : 17억
  (불사금 추정액 50억 이상)

- 위치 : 부산
- 법당 \ 40평
- 요사 /
- 부지 : 96평
- 가액 : 3억 5천

- 위치 : 제주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부지 : 500평
- 가액 : 1억 7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강원도
- 부지 : 2,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가액 : 3억 9천

- 위치 : 서울
- 부지 : 60평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가액 : 6억 5천

- 위치 : 서울,시내
- 부지 : 1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6억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구입자금 융자 알선해 드립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인연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 및 토굴안내

해운대바닷가 근처 아름다운 절
- 총부지 : 550평
- 법당 20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 바다전망, 남향, 뒤편 산자락
- 마당 넓은 절
- 가액 : 6억 5천

부산 바닷가 전망 좋은 사찰
- 총부지 : 370평
- 법당 (41년생), 요사(방3칸), 산신각, 용왕각
- 뒷산, 바다전망 최고, 평지, 주차장
- 도량 내 100년 된 소나무 다수
- 가액 : 3억 3천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소재
- 부지 : 1500평(종교용지)
- 법당 : 40평(목조, 단청, 3포7포)
- 요사 : 60평
- 명부전 : 30평(목조,단청,닷집)
- 기타 : 산신각, 조각, 석불(8자) 석등
- 가액 : 9억 8천만원
- 특징 : 대작불사된 대가람임

- 위치 : 경주시 소재
- 부지 : 약 2000평(종교용지)
- 법당 : 35평(목조, 단청)
- 요사 : 2동 70평
- 기타 : 산신각, 석탑, 석등, 연못
- 가액 : 3억 8천만원
  (2억원 융자별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9636-0455/ 서울 010-5828-0455

사찰 터 안내

- 위치 : 산청군 단성면 관정리
- 평수: 약 2만평
- 현재 조립식 2채, 전기시설 완비,
- 단독진입로
- 평수에 관계 없이 허가가능,
- 진주 진양호가 보이는 운치 있는 위치
- 가액: 4억(절충가능)

017-547-1120

토 굴 안 내

- 위치 : 영덕군 창수면
- 총평수 : 328평
- 임법당, 삼존불, 바깥에 지장보살석불, 산신석불, 산신각, 문수전, 창고
- 가액 : 1억 5천만원

010-4660-5388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부산 금강공원 입구
- 평수: 75평(시설완벽)
- 3층 건물인데 엘레베이터有
- 시설비: 1억 5천 투자 됐는데 급해서 3500만에 정리 급 양도 (전세 및 달세 별도 있음)

010-2828-1951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근교 경관수려함
- 임야 10,000평

010-4876-5535

포교원 안내

- 위치 :울산시 동구 방어동
- 평수: 25평, 이층
- 삼존불(아미타불, 지장보살, 관세음 보살) 신중, 산신
- 가액: 전세 800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2000만원

010-6488-8204

포교원안내

- 위치: 울산시 태화동 소재
- 평수 45평
- 시설 완벽
- 총가액: 3천 700만원

011-542-0982
010-6278-6508

사찰 · 실버타운터

- 위치 : 창녕군 창녕읍 여초리
- 44,120평
- 화왕산 주령 사찰터
- 가액: 3억 2천만원
- 관리지역, 농림지역

017-570-1600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장흥
- 법당20평,요사채25평,부지350평
- 공양실, 삼성각, 선방 총 5동 전체 동 기와단청
- 건물 뒤 거대 바위산 있음 바위 모양이 달마 형상
- 가액: 1억 5천만원 (융자 3천 포함)

018-603-1456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광양
- 부지: 1,200평, 법당 30평
- 요사채 35평, 공양실 20평
- 전체 기와 단청
- 가액: 5억 5천만원

010-5793-4800

명 당 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영
- 평수 : 임야 약 1만평 (약 80%사용가)
- 특징 : 사찰 암자 및 선산 등 모혈명당, 고암면 감리 (밀양 넘어가는 국도 첫째 산, 정봉 아래 정혈, 도로에서 약 120M)
- 가액 : 2억 8천 5백만원 명당가 평당 3만, 인연자에게 가격 떠나 양도함

010-7325-1259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촌IC에서 10분이내
- 부지: 9630평 (1523여평+임야 8000평)
- 한옥신축대웅전, 신축황토방 요사채 조립식건물+산신각
- 추가건축허가유(사회복지시설 가능위치)
- 바로앞 홍천강 경관과 기도도량
- 가액: 13억

011-9888-156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 빌라 주택 밀집 지역
- 시장입구
- 법당 40평, 방2, 공양간, 화장실
- 삼불, 후불탱화는 인등으로 설치되어 있음
- 가액:보증금500만원 월35만원
- 시설비: 2,500만원
- 절충가능

011-544-977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 평수 총 50평
- 법당, 방4, 욕실2, 냉난방 완벽, 공양간, 옥상창고
- 비품 일체 양도
- 옥상사용가능
- 심야보일러
- 시설 최상급 교통요지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4천만원 투자
- 능력 되시는 분에게 최저가로 양도하고자 함

010-6564-808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 안산 상업지역
- 평수 50평(현 법회중)
- 5층건물 중 2층
- 옥상 텃밭 30평
- 법당 단청, 최고급 인테리어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1천 5백만원

010-8954-8033

포교원안내

- 위치: 구미 북산 사거리
- 평수 60평
- 현 법회중
- 3층 건물 중 2층
- 주차 시설 양호
- 가액: 보증금포함 집기일체 몽땅 6천만원

054)972-9872
010-6208-555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시 화북면
- 평수 : 약 14,000평 중 2000(대지)
- 시설 : 현재 법당 가건물 요사채, 화장실, 전기시설, 전화, 건축허가필
- 맑고 깨끗하고 조용함
- 가액: 4억 5천 (절충가)

010-3918-0333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 대지 : 106평, 법당: 40평
- 요사채(1,2층): 60평
- 포교활동 최적지
- 가액: 4억 2천만원 (1금융권에서 1억 2천까지 융자포함)

011-790-9171
010-5628-8404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중구 유곡동
- 대지 50평, 건평 50평
- 1층 요사채, 2층법당
- 가액: 보증금 5천만,월 50만원
- 전월세 가능, 전세 1억원
- 23년째 운영중

010-2785-9522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 현재 법회 기도중
- 서부 정류장 지하철 5분거리
- 2층 건물 중 2층 70평
- 주차장 시설 완비
- 제반 시설및 모든 집기일체
- 스님 공찰임명 관계로 급 양도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시설비 절충

017-501-243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양천구 신월1동
- 유동인구 많은 대로변 시장옆
- 평수 : 40평, 법당 30평,
- 신중탱화, 후불탱화, 지장보살, 아미타, 관세음보살 영가단 등
- 시설완벽
- 시설비 없고, 보증금 3천만원 월 180만원
- 몸만 들어오시면 됨 주방기구 일체지급

010-5426-6869

단독건물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 최중심지 (지하철역 근처)
- 건물(3개층) 및 주차장 옥상
- 포교, 교육, 총무원 적지
- 시설(법당, 종무소, 황토방 등 최고)
-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4천만원(조절가)

010-6780-6271

사 찰 안 내

- 위치: 창원시 동읍 월잠리
- 대지 200평, 건평 80평
- 가액: 전세 5천만원
- 시설비 4천만원
- 주지 건강상 급 안내

011-5040-7584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 6,000평 (실등기 5,000평)
- 법당 (목조): 약 20평, 산신각, 요사채 2동 중 황토방 1개, 실내외 화장실 3개
- 가액 : 4억 (가액 조정 안됨)

011-816-9104
011-815-9104

전원주택 토굴안내

속리산 자락 조용한 수양 및 기도처겸 양택 최고의 명당

- 위치: 충북 보은군
- 대지 200평, 법당 25평, 전답 1,500평, 임야 13,000평, 요사채 10평 1동, 창고 1, 대추나무 400주
- 2010년도 고속도로 10분 거리 개통
- 가액: 평당 18,000원
- 꼭 필요 하신 분만 연락바람

010-9967-9832

포교원(급) 안내

- 위치: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요지
- 신축건물 4층, 실평수 52평
- 시설 A급
- 가액: 보증금4천만원 월 110만원, 시설비 2,500만원 경기도 이전 관계로 (급)안내함

010-8786-0872

포교원(급) 안내

- 위치: 서울 강남 논현동 지하철 7호선 논현역 1분거리
- 교통 최적지
- 4층건물 중 2층
- 약 35평
- 방2, 공양간, 시설완벽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150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

010-9401-4058
011-662-780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지하철 1분거리
- 3층, 방1, 공양간 1,
- 법당 총 32평
- 가액: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200만원
- 재래시장 버스 종점,
- 위치는 최상급
- 몸만 오실분

010-2204-837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양
- 법당 23평(불사중)
- 요사채 33평(완공)
- 산신각 창고

원하시는 금액에 양도함

010-3553-7897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중도리
- 평수 : 430평, 건평 50평
- 대웅전, 미타전, 산신각, 용왕각
- 방4, 공양간, 화장실2, 창고
- 주차장 확보 , 차량진입가능
- 가액: 6천 5백만원

010-9870-1080

사 찰 안 내

- 기도정진 완벽도량
- 뒤에는 아담한 산 앞에는 아파트 단지
- 오류역 (1호선) 천왕역 (7호선)
- 각 역 걸어서 10분거리
- 양도가: 1억 5천만원

011-720-1296

토굴암자안내

- 위치: 구미 선산
- 식수 전망 최상,낙동강 주변
- 건축물은 황토벽돌
- 방2, 거실, 주방, 화장실, 창고, 사슴농장도 있음
- 대지: 460평
- 가액: 1억 1천만원

010-3523-387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울산시 신정동(2층)
- 최고시설, 최고위치
- 가액: 전세 500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800만원
- 꼭 필요한 분만 연락주세요

052)269-0232

포 교 원 안 내

- 현 포교원(60평) 인수하실 분
- 위치 : 부산시 북구 구포2동 시장입구, 전망좋음
- 지하철 2호선 구명, 구남역 2분거리
- 가액: 전세 5천만원(월세가능)

051)338-8607 주간
051)338-8606 야간
011-9515-8606

단양사찰안내

- 대지: 321평, 건평 50평
- 법당1, 방3, 욕실2, 주방 1, 공양간 1,
- 하천부지 사용가능
- 석불 1억 정도로 조성되어 있음
- 공기 맑고, 산세 수려
- 법당일체
- 몸만 들어오시면 되심
- 가액: 2억 1천만원(조정가능)

010-3130-5526

암 자 안 내

- 위치: 부산 시내
- 큰 도로 (4차선)에서 200 m
- 보증금 無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 시설완벽, 즉시법회 가능
- 꼭 하실분만 전화 요

010-5453-5535

고급주택 토굴겸 사찰안내

처음 시작하는 비구니스님,법사님,보살님, 불자 가족

- 깔끔한 전주시내 대지 65평
- 건평 35평,
- 법당 방 1, 큰방2, 작은방 1,거실, 욕실, 화장실2
- 특징 : 소나무, 꽃나무, 화채류 잔디있음
- 가액 : 1억 3천 8백만원(주인직거래)
- 저금리, 대출 가능

011-650-8481

사찰(포교원) 안내

- 위치 : 밀양시 무안면 땀흘리는 표충비각에서 5분거리, 국도변 위치(교통편리 시내외 정류소옆)
- 대지: 230평, 주차장 넓음
- 요사채: 적벽돌 슬라브 60평 (2층 증축가능), 최고급 원목 실내 시설, 태양열 설치
- 법당 : 18평 1동 (사찰 전자제품 포함, 조경완벽) (삼존불 및 후불 35평형 탱화)
- 가액: 2억 4천 5백만원(접충가능),(은행융자 7,000만원 포함)

010-8846-7090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 도심속 전통사찰양식,아담한 사찰
- 법당 30평(단청) ● 요사채3, 방 3, ● 2층 공양간
- 산신각, 독성(용왕단)
- 대지 50평에 약 100평사용
- 가액: 4억 ● 주차장 확보 (주인직)

017-516-0773 (주지스님)
010-3550-6771 (보살)

참숯가마(급)안내

- 위치: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 평수 1208평 ● 건물 : 대지 392평
- 시설: 참 숯가마 7개, 폐수처리장(1억 3천 가설비 들었음)
- 지하수 350m이상에서 매일 100톤의양
- 식당 90평, 목욕탕 95평, ● 기본숙소 방 5개, 120명수용가능
- 가액: 현 시세 22억을 18억 (모든시설포함) 급 양도, 절충가능,
- 현재 영업중이며 몸만 들어오시면 됨

010-9735-3477
010-9418-593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 ● 대지 300평, 종교용지 300평
- 법당 29평, 주지실 별도
- 요사 24평, 요사채 아파트식구조
- 조경 되어있고, 법당 시설 완벽,대형버스 주차가능
- 가액: 1억 5천만원(은행융자 5천만원 가능)

010-4193-3366

토굴전세안내

- 위치 : 경북 봉화 소천면
- 평수 340평, 와가 25평
- 방 3, 요사채 30평, 주방1, 방2, 창고1, 실내화장실 1, 실외화장실2, ● 심야전기보일러, 산 지하수
- 마당 넓음, 산 밑에 독채,조용함
- 전세: 2천 8백만원
-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바람

010-7670-067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수락산 입구
- 경관 좋은 대단위아파트단지 대로변
- 평수: 67평, 주차장 有
- 가액: 보증금 삼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절충
- 모든시설 완벽하며 말 그대로 몸만 오셔서 즉시 법회가능
- 주소창에 http://cafe.daum.net/dia-temple 검색하시면 법당 모습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010-2244-66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인근 20분거리
- 부지: 2,413평 ● 임야: 12,442평
- 법당(목조건물) 삼포지
- 요사채1동, 수행처 1동, 도량주변 기암괴승리 명당부지 청정지역
- 귀농할 수 있는 사찰
- 가액: 현지 답사 후 절충가능

010-8373-3711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것이 마음의 본체이고…”

<49> 명대(明代)의 양명학(陽明學)과 거사불교(1)


그림 · 김흥인

조사선의 새로운 경지 얻어 ‘용장의 깨달음’ 칭해
‘심학’은 ‘치양지’의 학설에 이르러 대체적인 완성

남송(南宋) 시기 주희(朱熹)에 의해 완성된 이학(理學)에 정면으로 도전한 이가 육구연(陸九淵)이다. 그는 주자학(朱子學)에 대해 ‘첩상가옥(疊床架屋)’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주희가 ‘마음(心)’과 ‘이치(理)’를 두 가지로 본 것을 가리킨다. 육구연도 “우주를 포괄하는 하나의 이치일 뿐”(<상산전집(象山全集)>권12)이라고 하고, 이 이치는 “천하에 두루 가득 차 있어서 조금도 비거나 부족한 데가 없다”(권35)고 해 ‘이치’를 이른바 ‘본체(本體)’로서 인정하고 있음은 주희의 이학과 조금의 차별이 없다. 그러나 주희는 ‘이치’를 ‘성품(性)’과는 일치시키지만[성즉리(性卽理)], ‘마음’은 단지 인간의 몸을 주재하는 영명지각(靈明知覺)의 작용이 있는 인식주체이지, 만물과 도덕의 본체적인 의미는 지니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육구연은 “만사만물이 마음에 있다”(권34)고 말했다. 이는 ‘마음’의 본체적 작용을 인정하고, 다시 “마음은 단지 이 하나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 내 친구의 마음, 위로 1100 년 성현의 마음, 아래로 다시 1100년 성현이 있으니 그 마음 또한 이와 같다”(권34)는 주장을 펼치고, ‘심즉리(心卽理)’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것이 바로 ‘이학’과 ‘심학’이 나뉘는 결정적인 분기점이다. 이학이나 심학이 모두 불교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지만, 육구연으로부터 시작된 심학은 조사선의 선사상에 가까웠다.

송대 발생한 이학과 심학은 격심한 논쟁을 통해 원대(元代)에는 “반드시 국가를 위해 옳음이니 학자는 존중해 믿어 감히 의심함이 없게 하라”(<도원학고록(道圓學古錄)>권39)는 것과 같이 정주(程朱) 이학이 주도권을 차지하게 됐고, 명대에 이르러 통치자가 민중의 사상에 대한 통제를 강하게 하기 위해 “주자학을 하나의 종(宗)으로 삼아 학자로 하여금 오경 · 공맹의 서적이 아니면 읽지 못하게 하고, 염계(周敦頤), 낙민학파의 학문이 아니면 강의하지 못하게”(<동림열전(東林列傳)>권2) 해, 점차 “주자는 옳고 육구연은 그르다[是朱非陸]”는 설을 정론화시켰다. 그러나 명대 중기에 이르러서 이학의 맹점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많은 지식인들은 점차 ‘심학’으로 관심을 돌렸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왕수인(王守仁; 1472~1529)이다.

왕수인은 자(字)가 백안(伯安)이요, 절강(折江)의 여요(餘姚) 출생으로 호가 양명(陽明)인데, 흔히 왕양명으로 칭한다. 비록 <거사전> 등에 이름이 올라있지 않지만 왕양명은 오랜 기간 참선을 통해 조사선의 선리(禪理)와 다양한 교학을 탐구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에 따라 왕양명은 ‘거사’라고 칭해도 결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실제적으로 왕양명이 제자들과의 토론을 모은 <전습록(傳習錄)>에는 자신의 학설이 불교로부터 왔음을 밝히는 내용이 상당히 나타난다. 예를 들어 “양지(良知)의 체(體)가 명경(明鏡)과 같이 밝아 티끌의 감춤도 없이 곱고 미움 그대로 사물을 따라 형상을 보인다…. 불가(佛家)에 일찍이 이 말이 있어 그릇되지 않다”, “선도 악도 헤아리지 않는 때 본래면목(本來面目)을 안다고 함은 부처님의 본래면목을 아직 알지 못한 자를 위해 시설한 방편이다. 본래면목은 곧 나의 성문(聖門)에서 이른바 양지이다”(<전습록> 권중) 등으로부터 그의 사상에 농후한 불교, 특히 조사선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왕양명은 육구연의 ‘심즉리(心卽理)’를 계승해 ‘마음’을 ‘양지(良知)’로 승화시켰다. 왕양명은 ‘양지’에 대해 “양지는 천리(天理)의 밝고 신령하게 깨닫는 곳이다. 양지는 곧 천리이다.”(권중), “네가 지니고 있는 그 양지야말로 너 자신의 준칙이 된다. 네 생각과 뜻이 미치는 바가 곧 옳음[是]는 옳음이고 그름[非]은 그름이라고 알아 사소한 속임수도 용납하지 않게 된다.”(권하) 등으로 설명했다. 이로부터 ‘양지’를 그대로 본체의 자리로 설정하고 있고, 나아가 그것이 절대적인 준칙으로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왕양명은 “양지는 곧 아직 발하지 않은 가운데 있으며, 곧 밝아 크게 공정함이며 고요해 움직임이 없는 본체”(권중)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분명히 조사선에서 설하는 ‘자성(自性) · 불성(佛性)’과 조금의 차별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왕양명의 학설에 대해 그의 후학인 류종주(劉宗周)는 “양명선생에 대해 사람들은 선(禪)에 가깝다고 한다. 즉, 옛날의 부처는 석가모니로서, 그것이 변해 오종선(五宗禪; 爲仰 · 臨濟 · 曹洞 · 雲門 · 法眼의 禪宗五家)이 됐고, 다시 양명선(陽明禪)으로 변했음을 말한다”(<류자전서(劉子全書)>권19)라고 평했다. 이로부터 왕양명이 거의 공개적으로 조사선을 답습했음이 짐작된다.

왕양명은 35세에 병부주사(兵部主事)로 있을 때 환관 유근(劉瑾)의 정치적으로 모함을 받아 귀주(貴州) 용장(龍場)으로 귀양을 가는데, 이 시기의 수많은 선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조사선에 심취해 새로운 경지를 얻게 된다. 이른바 ‘용장의 깨달음’으로 칭하는데, 이때의 깨달음은 바로 ‘격물치지(格物致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왕양명은 “물(物)의 이치는 내 마음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며, 내 마음의 밖에서 물의 이치를 구하면 물의 이치는 없다.”, “사사물물에서 내 마음의 양지에 이르고…, 내 마음의 양지에 이르는 것이란 앎에 이르는 것이다. 사사물물이 모두 그 도리를 얻는다는 것은 격물(格物)이다”(<전습록>권중)라고 표현했다. 또, 스스로 “비로소 성인(聖人)의 도를 알아 내 성품에 자족(自足)한다. 사물에서 이치를 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왕양명선생년보(王陽明先生年譜)>, <왕문성공전서(王文成公全書)>권32)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왕양명의 50세에 ‘양지’를 발전시켜 최종적으로 ‘치양지(致良知)’의 학설로 귀결시켰다. 왕양명은 ‘치양지’를 대단히 중시했는데, 일찍이 “나는 평생 동안 단지 ‘치양지’ 세 자만을 강의했다”(<왕문성공전서>권26)라고 하고, “치양지 세 자는 참으로 성문(聖門)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이다.”, “치양지는 학문의 큰 두뇌이고, 성인 가르침의 제일의(第一義)이다”(<전습록>권중)라고 했다. 이렇게 ‘치양지’를 지고무상한 지위에 놓은 것은 “양지는 능히 어리석은 사람과 성인을 같게 하나, 다만 오직 성인만이 ‘양지에 이르고[致良知]’, 어리석은 사람은 능히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성인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뉘는 까닭”(<전습록>권중)이라고 해 ‘치양지’를 할 수 있고 없음에 따라 성인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뉜다고 보았다. 이러한 ‘치양지’의 수양방법은 선종의 ‘명심견성(明心見性)’의 수행법과 대단히 비슷하다. 선종의 기본 사상 가운데 하나는 ‘불성(佛性)’은 본래 청정한데 다만 번뇌와 고뇌에 덮임으로 인해 스스로 나타날 수 없게 되지만, 만약 상(相)을 여의고 무념(無念)하고, 마음을 밝혀 성(性)을 본다면[明心見性] 자신의 본래면목을 알 수 있고,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혜능의 <육조단경>에서는 하늘이 항상 푸르고 해와 달이 항상 밝은데, 다만 먹구름의 가림으로 인해 밝음을 얻을 수 없음으로 비유해 청정한 불성과 객진번뇌의 상호관계를 설명했다.

왕양명도 또한 “성인의 양지는 푸른 하늘에 떠있는 해와 같고, 현인의 양지는 구름 낀 하늘의 해와 같으며, 어리석은 사람의 양지는 음산한 날의 하늘에 떠있는 해와 같다”(<전습록>권하)고 설명했다. 이 두 가지는 사상이 서로 통할 뿐만 아니라 묘사한 용어도 같다. 제자들과의 논의에서도 <단경>의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의 사상이 ‘양지의 지극(至極)’과 합치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왕양명이 <단경>을 상당히 중시해 여러 차례 숙독했던 것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왕양명은 56세 때 광동(廣東) · 광서(廣西)의 묘족(苗族)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출전한 뒤 돌아오는 길에 병사했다. 왕양명이 출전하기 전 날에 남긴 사구결(四句訣)은 양명학의 진수를 논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것이 마음의 본체이고,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것이 뜻의 움직임이며, 선을 알고 악을 아는 것이 양지이고, 선을 행하고 악을 제거하는 것이 격물(格物)이다(無善無惡是心之體, 有善有惡是意之動. 知善知惡是良知, 爲善去惡是格物.)”(<전습록>권하)

육구연의 ‘심학’은 왕양명에 의해 ‘치양지’의 학설에 이르러 대체적인 완성을 보았기 때문에 후대에 ‘육왕심학’, 혹은 ‘양명학’으로 칭한다. 이러한 ‘양명학’의 흥기는 명대에 쇠락해 가는 불교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는 역할을 했다. 왕양명이 세상을 떠난 후, 만력(萬曆) 연간(1573~1620)에 선후로 명대의 ‘사대고승(雲棲袾宏 · 紫白眞可 · 憨山德淸 · 滿益智旭)’들이 출현하는 등 양명학과 관련돼 명대의 거사불교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계속)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공부합시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또는 대구철학원 을 입력해보세요.
▪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개인지도 받으실 분 숙식하시며 쾌적하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51-0001-3753-03 (예금주 : 대한불교일월종 추명사)

사단 대 한 불 교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추 명 사 백운 성수, 도영 합장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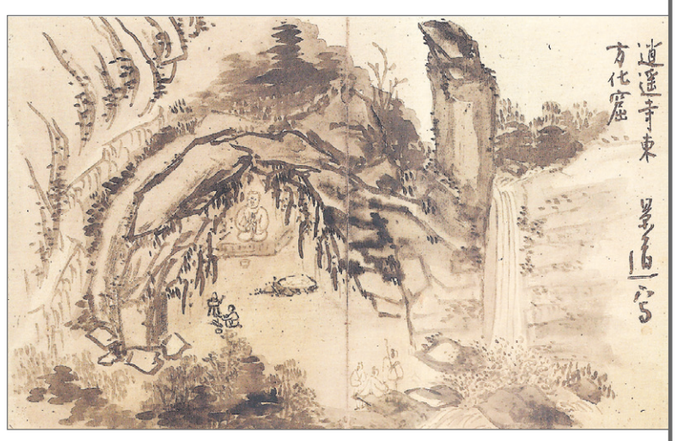
옛 그림 속 茶 이야기

㉑ 소요사 방화굴

한 잔의 차 속에 평등사회 이상 담아

유명한 명승지는 그곳을 다녀간 명사와 그들이 남긴 자취로 인해 의미가 더욱 깊어진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행적들이 쌓이게 되면 명승지는 지리적 장소의 가치를 넘어 인문학적 함의마저 내포하게 된다. 명승지를 찾는 경험은 승경의 감상 뿐 아니라 이곳을 다녀간 선인(先人)들과 동일한 경험을 공유함으로서 보다 생생하게 이들을 기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유명한 명승 · 명소 중에는 차와 관련이 깊은 곳도 있다. 지금의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의 소요산 자락에 위치한 자재암은 원효가 654년(무열왕 1)에 창건한 암자로 전국에서도 손꼽히던 명수(名水)가 나던 곳이다. 차를 애호했던 원효는 전국 곳곳에 많은 절을 지었는데 그 때마다 절에는 석간수가 솟아올랐다고 한다. 그 중 하나인 자재암은 원효가 차를 마시며 수행하던 장소로 이름이 알려져 명승지가 됐고 이후 고려는 물론 조선시대까지도 시인묵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원효가 절을 창건하고 500여 년이 지난 후, 고려시대 명문장가로 이름을 날린 이규보(李奎報, 1168~1241)가 이곳을 찾아 원효정의 샘물을 마시고 시를 지었다.



윤제홍 '소요사 방화굴', 1812년경, 지본수묵, 26.2x41.4,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후기 들어 산수기행문화가 유행하면서 이곳을 찾는 문사가 많았고 더러는 자재암을 그림에 옮겨 기념하는 일도 있었다.

조선후기의 문인 윤제홍(尹濟弘, 1764~?)은 지금의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유람하고 그 모습을 자신의 화첩에 담았다.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학산묵희첩(鶴山墨戲帖)>에는 '소요사 방화굴'의 장면이 담겨있는데, 윤제홍이 1812년경에 자재암을 유람한 후 그린 것이다.

화면의 오른편에는 폭포와 절벽 위로 우뚝 솟은 바위가 표현돼 있고, 그 아래로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을 감상하는 세 명의 문사들의 모습이 보인다. 화면의 왼쪽, 불상이 모셔진 감실 안에는 원효정과 함께 이 샘물로 찻물을 다리는 동자가 보인다. 그런데 동자 앞에는 땔감으로 쓰인 나뭇가지들이 놓여있고 화로 또한 중국화보와는 다른 표현으로 실제 조선의 다동이 찻물을 다리던 생생함이 전해진다. 전체적으로 스케치 같은 간략한 구성과 필법을 특징으로 하는 이 그림은 손가락을 이용해서 그린 그림으로 형태를 단순화시킨 구도 속에 실경의 요체만을 구현해서인지 맑고 담박하다.

산을 따라 위태로운 다리를 건너 循山渡危橋
발을 포개가며 좁은 길 걸었네. 疊足行線路
수 길이나 되는 절벽에 上有百仞巖
원효가 절을 지었네 曉聖曾結宇
신령한 자취는 아득히 어디에 있는가 靈蹤渺何處
초상만이 흰 비단 폭에 남아있구나 遺影留鵝素
차 끓이던 샘에 맑은 물이 고여 茶泉貯寒玉
마셔보니 젖같이 맛있네. 酌飮味如乳
이곳에는 원래 물이 없어서 此地舊無水
스님들이 거처하기 어려웠는데 釋子難棲住
원효가 와서 거처하시매 曉公一來寄
맑고 단물이 돌구멍에서 솟아났네 甘液湧石竇
(역 : 박동춘)

이규보는 원효의 초상을 바라보며 그의 자취를 추억하고 샘물을 마시며 원효의 자재무애(自在無碍)한 삶을 체험해 본 것이다.

매사에 걸릴 것 없이 자유로웠던 다인(茶人) 원효의 명성은 이후 조선시대에도 이어졌다. 특히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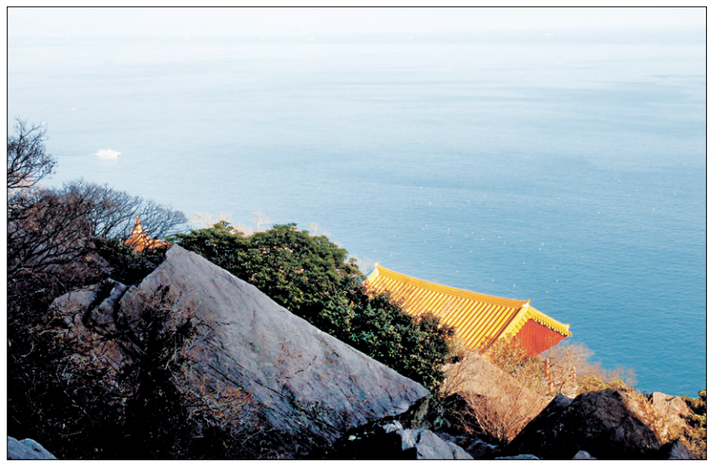
애초에 척박했던 자연환경에 원효가 터를 잡아 자재암을 세우고 수행과 차(茶)라는 화두를 부여하자 후대 많은 문사들은 이곳을 찾아 세월을 거슬러 원효대사의 뜻을 새겼다.

이규보는 샘물의 맛을 시정으로 표현했고 윤제홍은 그곳을 그림 속에 남겨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당시의 모습을 묘사했다. 이처럼 원효대사로부터 시작한 자재암의 역사는 긴 세월동안 그 땅에 정신적 깊이를 아로새기고 다시 우리에게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물줄기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랑 · lang312@hanmail.net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⑱ 향일암의 추억



구랍 20일, 여수 향일암에 불이 났다. 새벽에 도량을 덮친 불은 황금단청불사를 마친지 석 달밖에 안 된 대웅전을 남김없이 태워버렸다. 매일 아침 햇살에 빛나던 황금빛 대웅전은 그 날 아침 태양을 보지 못하고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다.

1년 전 일출을 보기위해 향일암에 갔을 때 대웅전은 황금단청불사 중이었다. 그 때 장막에 싸인 대웅전을 바라보며 마당으로 밀려든 아침 태양에 마음껏 빛나는 대웅전을 상상했었다. 낙성 후에 다시 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질 못했고, 어느 날 육지의 끝에서 날아든 슬픈 소식이 1년 전 장막 속에 서있던 금빛 대웅전마저 기억 속에서 빼앗아 갔다.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슬픈 아침이었다.

詩가 있는 도량

▪ 베개가 수다스럽다

베갯속, 나의 베갯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머리가 닿기만 하면
금방
베개는 수다스러워진다
잠을 자려고 하면, 베개가
눈썹을 곧추세우고
냄새 맡는 개처럼 킁킁대며
끈적이는 말로
자꾸 말을 걸어오는데,
머리의 실핏줄과 베개의 실핏줄이
합선되었는지
잠을 잘 수 없다
베개는
나의 숨소리 떨림에도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워서
지난날의 생채기들을 들추어내면서 깐족인다
깐족인다

–오형근, <환한 빈자리>에서

옛 판화의 세계

영사 스님이 연잎만을 먹다 영사식하(寧師食荷)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 석영사란 스님이 3일간 죽어있는 동안 저승을 다녀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판각한 작품이다. 저승에 끌려와 고통 받는 지옥중생의 모습과 제왕의 모습을 한 염라대왕으로부터 다시 이승으로 돌아갈 것을 판결 받는 장면으로 구성돼 있다.

영사 스님은 피양 사람으로 융기 원년에 산사에 거처하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마쳤는데, 몸은 따듯하고 편안한 모습이 곤하게 잠든 사람 같아 대중들이 관에 넣을 생각을 못하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 대중들은 놀라 그간의 상황을 묻자 영사 스님이 대답하는 장면이 본문에 실려있다. "나는 저승사자에게 끌려가서 판관을 만났더니 판관이 말하기를 '화상의 수명은 아직 몸이 죽을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나라의 녹을 먹었기에 목숨이 다했을 따름이다'라고 말한 뒤 관리를 불러 다시 조사해 보게 했다. 조사를 마친 관리가 말하기를 '오직 마른 연 잎사귀 석 섬만이 있기에 장부에 달아 뒀습니다'라고 했다. 판관은 다시 한 사람에게 명해 나를 인도해 저승세계를 순력하며 구경하게 했다.

그리하여 그곳을 떠나 곧 한 문안에 들어서니 몇 채의 전각이 보였으며 전각에는 각기 편액이 있었다. 걸어서 한 전각에 이르니 관면을 갖춘 임금과 같은 사람이 있었고, 그 좌우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시립해 이승에 있을 때 그 삶이 선한 일을 했는지 악한 일을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었으며, 다른 전각들은 어두컴컴했는데 오직 고통 받는 소리만이 들렸고 사자가 인도해 그곳으로 가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다.

다시 본래의 곳으로 돌아오니 판관정에서 일을 보는 사람이 사자에게 말하기를 '잘 보내 드려라! 스님은 돌아가시거든 오직 공덕경을 많이 전념하시오!'라고 하기에 내가 공덕경을 묻자 판관이 말하기를 '금강반야바라밀경입니다. 이 경은 보이지 않는 사이에 중생들을 구제해 고통을 뽑아주는 공덕이 있어 비교할 경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이러한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불교경전에 많이 전해지는 것은 선행을 실천해 극락왕생할 것을 가르칠 뿐 아니라 현세에서도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착하게 살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중 영사식하(寧師食荷). 불암사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18.0㎝



전통불교천지대왕종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의 대통합 선포

○ 卍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헐자.
반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앙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이 땅의 존귀하신 종교 신앙인 들이여!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로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딸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된 기성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란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끌어 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이신 석연 대종사께서 전법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책을 숙고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홍익인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토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상을 열고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종하여 선포하니 우리모두 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화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량과 사명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엽시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실 신앙인 여러분을 열린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화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명가, 신딸, 만신님들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 **입종 및 입회원서 접수 :**
본종 총본산 수련도량 불탑사 외 종단에서 지정한 교구청 및 특설사무처

▣ **동참 특전 (소정의 서류제출 완비하고 등록한 분에게는)**
- 본 종단 의식교전 및 종헌 종법 제공
-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재산관리 세무회계를 주선
- 체계화된 교육으로 종교지도자로 양성함
- 사찰, 사암, 포교당등록증, 법위증, 사증 등을 교부
- 종단의 각종 회의에 참석 특전, 중요임원 출마권과 선출권 부여함
- 행정, 교육, 운영 관리에 뜻 있는 분 특별우대함

총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종위원 : 지선, 무생, 무풍, 천풍



자유권을 얻으려면 자기 참주인공을 믿어야

새해에는 힘차게 살아가고 싶어요

문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렵지 않은 나라가 하나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물질의 세계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살던 제가 무한량의 마음의 세계를 알게 되어서 그래도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습니다. 스님, 어떻게 마음을 써야 새로 밝아 오는 한 해도 가족들을 잘 건사하며 남들에게 너무 뒤처지지 않게 뒷바라지해 나가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 여러분은 여러분의 각자 주인공을 진실히 믿습니까? 그 믿는 마음은 '주인공, 이런 걸 해 주십시오, 저런 걸 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닙니다. 일차적으로 내가 믿는다면, 진짜로 믿는다면 죽고 사는 것을 근본자리에다가 다 놔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악과 선, 일체 모든 돌아가는 것을 다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을 수가 있다면, 양면을 돌아가면서 다 놓을 때에 비로소 무엇이 거기서 생산이 되느냐? 생각 내는 마음입니다. 믿고 놓아서 생산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게 천 리를 갈 수도 있고, 한 찰나에 저승에 갈 수도 있고, 미래로 갈 수도 있고, 과거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바로 앉은 자리에서 서울도 갈 수 있고 부산도 갈 수 있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우주와 더불어 이 세상에 광대무변하게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근본이, 바로 우주의 근본이 마음입니다.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그 근본을 알 수가 없죠. 또 이 세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본을 알 수가 없고요. 근본입니다! 내놓을 수도 없고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근본자리에서 광대무변하게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이구, 이렇게 놓고 가는데도 안됩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하기를 "안되는 것도 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되는 것도 놓는다면 우린 어떻게 살고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진짜로 믿는다면, 다 거기에 진짜로 믿고 놓고 마음을 잘 낸다면 일이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내야 합니다. 꿈을 꾸고도 자기가 언짢게 생각을 하고 '아이고, 꿈 잘못 꿨구나. 이거 언짢은 꿈이로구나.' 하고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언짢게 재앙이 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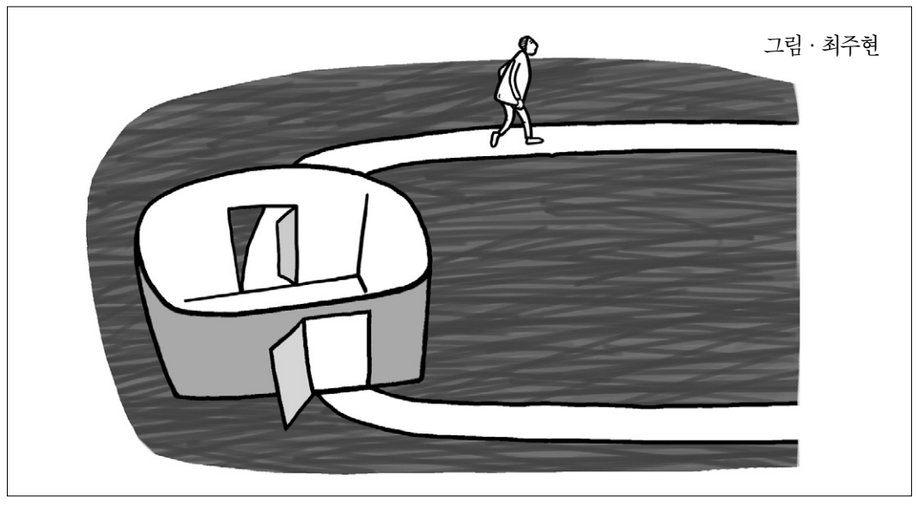
여러분은 생각 내는 걸 그냥 우습게 보고 하루 살면서 그냥 그냥 쉽게 생각 내지만 보이지 않는 그 자체에서는, 생각 한 번 내는 데 보이지 않는 물질 없는 물체들이 얼마나 아우성을 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 도리를, 그렇게 마음 한 번 내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내는 그 생산처가 천차만별로 돌아가면서, 이것이 돌아가게 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의 심봉은 그냥 거기에 심봉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건 움죽거리지 않죠. 생산처에 자동적으로 번호 없는 번호가 매겨져 있다면 넝마전은 넝마, 무쇠전은 무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전부 부처님의 말씀 그대로 그냥 줄줄이 줄줄이 붙어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심봉에다가 생각하는 걸 좋게 생각해서 놓는다면 자동적으로 자연의 법칙으로 인해서 스스로 돌아가서 나한테 생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믿고 생산을 해내는 데 마음을 잘 써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잘 쓰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은 조금만 남이 억울한 소리를 해도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 탓으로 돌리질 않고 남을 원망하게 되고, 착을 두게 되고 그렇죠. 욕심을 두게 되는 건 내가 생각 한 번 잘못한 까닭입니다. 내 앞에 닥치는 거 닥치는 것대로 갖게 되면 갖게 되는 거고, 가진 것 내버릴 필요도 없고 끌어당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보고 욕심부리지 말랬다고 재산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착을 두지 말라는 얘깁니다.

여러분은 관리인이에요. 잘 쓸 수 있는 관리인입니다. 마음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에 달려 있어요. 또 생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생각을 잘하면 말도 잘하게 되고 행도 잘하게 되지마는,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행과 말이 잘못 나갑니다. 우리가 번연히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건 알면서 받고, 몰라서 지키지 못하고 행을 저지르는 것은 모르고 받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받는 일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억울하다. 나쁜 일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업보가 많아서 이러느냐?"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어저께 없는 오늘은 없죠. 그럼으로써 내가 하지 않은 게 어디 내 앞에 붙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생산처!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앞에 말로 해 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닥치는 대로 생각을 잘해서 놓는다면 스스로 아주 훌륭하게 만 가지 생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조금도 의심 마시고 믿고 자기 주인공 자체의 근본자리에다 맡기세요. 우주의 근본도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요, 태양의 근본도 마음의 근본이요, 세상의 근본도 마음의 근본이라. 이 마음을 타파할 때에 삼세의 공한 마음이 탁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알고, 미래도 보고 과거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때 가서 아! 자연적으로 스스로서 마음의 능력이, 샘물이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 동안 제발 진실로 믿고, 가정의 괴로움을 덜고, 내 마음의 괴로움을 덜고, 자식들의 업보나 괴로움을 덜고 좀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서 힘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림 · 최주현

사리도 여러 가지가 있다던데…

문 고승님들께서 돌아가신 뒤에 사리가 나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사리는 어떻게 돼서 생기는 겁니까? 그리고 사리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마음도리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사리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정말인가요?

답 예를 들어서 평민에게도 사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한 사람들은. 뭐 스님네들만, 고승에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사리가 나오는 것은 이게 공부를 할 때는 항상 그 뼈끝마다 다 이게 이 몸뚱이 자체가 바뀝니다. 인체가 자꾸 바뀌면서 그냥 녹두알같이 이렇게, 감자 캐어 보면 그냥 붙어 돌아가죠? 그렇듯이 인체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그거를 표현하자면 한 사람의 마음이, 깨달으면 즉, 원자에서 입자가 수천수만이 되죠, 원자에서 입자가.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어린애를 여럿 낳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튼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한생각에 천백억화신으로다 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 사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리는 정신의 액체죠. 즉 말하자면 이 바른쪽 왼쪽의 작용에 의해서 사대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액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정신적인 핵심이기 때문에 핵심에서 또 불어서 저 감자알 붙어 돌아가듯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사리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삼각형으로 된 사람이 있는데, 희고 삼각형으로 돼 있는 것은 삼차원을 넘어선, 쉽게 말해서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을 다 통달한 사람이고, 둥글게 나와도 희게 나온 것이 있고 붉게 나온 것이 있고 색색으로 나온 것이 있고 파랗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오죠. 법을 주장했던 사람, 또는 어려운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누가 "병만 고치는 게 법인가?" 하고 흉을 봐도 그건 아랑곳없이 아픈 것을 내 아픔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색색가지로 나옵니다. 모든 게 자기가 마음먹고 차원에 따라서 실천한 대로 그것은 분배가 됩니다. 그게 정신의 액체니까요.

그런데 또 도둑 사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투하는 데 아주 도를 통했다면 화투 사리도 있는 것같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의 액체의 사리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정(正) 사리냐, 사(邪) 사리냐 이 문제죠. 그러니까 아주 삿된 마구니의 액체 사리는 땅속에서 천 년이든 만 년이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도 있는 겁니다. 나와서 번지면 세계를 망가뜨리니까.

그래서 옛날 얘기 하나 할까요. 어떤 사람이 산중에 가다가 이만한 사리 하나를 주웠답니다. 해골이 그냥 모두 굴러다니는 데서 이만한 흰 사리를 하나 얻었답니다. 아, 그거를 방에다 모셔다 놓곤 사리를 얻었다고 좋아서 이런 갑에다가 아주 좋은 은쟁반으로다 잘 해서 하얀 솜을 깔고 거기다 놨는데 아, 저녁이면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가서 훔쳐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훔쳐다 놓으면 그 나라에서, 그 고을에서 뭐가 없어졌다고 야단법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그러고도, 그거를 갖다 놓고도 내놓을 생각을 안 합니다, 인제. 그래서 패가가 된 사람이 있어요. 패가가 되니까 그때서야 고을에서 전부 알고 그냥 묶어다가 아, 그것도 재상의 집에서 말입니다. 하하! 아, 그러니까 그게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그것이 즉 도둑 사리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놓은 거를 그렇게 패가를 만들고 옥살이를 하면서 그 생각이 퍼뜩 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면회 온 사람더러 아무 데 아무 데 산에 가서 그 해골 돌아다니는 거를 다 묻어 주고 그 사리를 해골에서 집어 가지고 왔는데 묘지 해 놓은 것도 다 파서 도로 흐트려 놓고 그 사리도 거기 갖다 던져 버리라고, 그렇게 가서 일러 줬어요. 그랬더니 패가망신 다 하고선 그걸 갖다 버리고 제 정신이 들어 가지고 옥살이 다 살고 나와서, 그 물건은 뭐 없애진 않았으니까 다 도로 찾아가고 그러고는 제대로 정신 차리고 살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리 사리' 할 것만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 무당 사리도 있어요, 또. 이 무당 사리를 잘못 어디 묻힌 거 얻어다가 이렇게 한다든가, 땅속에서 파다가 무당이 모셨던 부처님이라든가 이런 거 갖다가 놓곤 저거 하면, 그거 한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자식등네로 또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26면으로 계속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강 좌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 정 : 2010. 1. 23(토) 오후 1시부터 ~ 1. 24(일) 오후 6시까지
- 수강료 : 10만원(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H·P 010-2031-1233 ☎ 02) 313-5047

※ 수효사 7층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합니다.
※ 백천사에는 오후 1시까지 도착바랍니다.

2 매주 화요일 강좌(10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한 · 국 · 전 · 통 · 따 · 주 · 기 · 공 · 덕 · 회

현대인들의 정신적 치유, 구병시식, 중생제도 안식처

'빙의 치료 대가' 혜봉스님

구병시식 빙의퇴치 영가천도 지장도량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많은 질병 가운데 하나인 정신적인 '빙의'는 오랜 시간을 지내오면서 스트레스로 손꼽히고 있다. 우리 인간이 생활해 오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질병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또한 영적현상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중의 하나가 바로 심령(心靈)치료이며 그중의 하나가 병의 원인을 풀어 나가는 핵심이라고 본다. 그런데 '빙의 치료 대가' 혜봉 큰스님을 만나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이 또한 중생들에게 기쁨의 소식 아닌가!! 현대의학에서 풀지 못한 미스테리한 병을 심령치료로서 지친 영혼들의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며 영적치유로 새 삶을 누릴 수 있는

'영험이 살아있는 소원성취 기도도량
천년고찰 부처골 지장선원'

◆구병시식 다른곳에서 치렀으나 차도가 없는분
◆병원에 가면 병명이 나오지 않고 아프신 분
◆신병, 무병으로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는 분
◆영가장애로 사업실패를 자주하는 분

비법전수 받으실분
한국심령과학연구회
http://www.jijang999.com 〈전국지원. 지회 모집〉

주소 :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2리 458-1번지
전화 : (054)383-8553, H·P : 011-9585-4908
홈페이지: www.jijangsw.com

세계불교 지장선원종 총본산
동산 혜봉 대종사

buddhanews.com

말을 하면 그 말과 뜻과 행이 같아야 합니다

☞25면에서 계속

그래서 나는 무조건 집에서 물 떠 놓고 빌지 마라. 무조건 집에서 뭐 위하고 놓고 그러지 마라. 그저 법당에 가더라도 부처님 그 형상이 나와 둘이 아니고 생명이 둘이 아니고 마음이 둘이 아니니 가더라도 둥글게 마음을 한마음으로 뭉쳐서 삼 배를 지극하게 올려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다 벗어날 거를 뭣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유전성이라는 게 참, 병고도 유전성이 있고 마음먹고 사는 것도 유전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유전성에 끄달리고 영계성에 끄달린다면 문제는 커집니다. 이게 자손등네에도 대대로 내려가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손들 한테도 문제가 되니까 절대로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모든 걸 거기다가 맡겨 놓곤 거기서만이 하는 걸로 믿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이 또 그러니까요. 그래야 모든 잡음이 없이, 즉 말하자면 헌쇠나 그런 모든 거를 용광로에다 넣어서 새 쇠로 자동적으로 빼내듯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공부를 내면으로 잘해서 보면 사람이 바뀌어요. 살아나가는 길도 바뀌고 모두 바뀌어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지죠.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가 끌고 다니는데 그렇게 구덩이에다 넣고 고생을 시킬 게 뭐 있습니까, 네? 자기 육신인데. 이 도리를 알면 돌에다가 올려놔도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끄달리지 마시고 자나 깨나 일하나 앉으나 서나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도 모든 건 그 근본이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아셨죠?

허무한 삶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려면

문 인생살이가 참 고달프네요. 공부하는 도반들 중에도 세상이 본래 그러니 그대로 순응해서 살아가라고 하지만 저는 이 허무한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생활 속에서 실천해 가고 싶은데 그러기엔 제 앞에 놓인 현실이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스님, 이 허무한 삶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하나요?

답 오늘날 우리 불교가 기복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그 모든 일체 만법을 맛을 모르고 먹을 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이거는 막막하기가 한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이 생겨도 어떻게 처리해야만 낫는지 그것도 모르고 누가 그러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만 가는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죽는다 산다 이것이 사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들도 여간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굼벵이가 매미가 될 수 있는 것도 그 근본 축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자기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대의적으로 봤을 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매미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매미가 돼서도 스스로 자기 마음의 차원이 조금 '나는 왜 기어다니기만 할까? 왜 저렇게 날지 못할까?' 할 때 날 수 있는 진화력이 생긴단 얘깁니다. 그런데 자기는 굼벵이가 매미가 된 것도 모르고 매미가 굼벵이였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도 어디서 왔는지, 내가 이걸 어디로부터 어떻게 해야 처리가 되는지 그것조차도 여러분이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인생이 늙어가면서 얼마나 허무합니까? 벌써 이 세상에 생겨났다 하면 뚜벅뚜벅 죽으러 가는 형편이니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생이? 고생은 고생대로 죽도록 하고, 쳇바퀴처럼 말입니다. 돌아가면서 자식 기르느라고, 아니 햇빛 주랴 묵은 빚 갚으랴, 이건 여념이 없이 그냥 돌고 돌고 또 돌고 돌다가 머리는 허옇게 세어지고 인제 수족은 못 쓰게 되니 얼마나 허무한 문제입니까?

허무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면 이 도리를 꼭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늙으나 젊으나 이 몸이 있을 때 바로 그 도리를 알아야 진화력이 생겨서 바로 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지 않는 도리를 알게 되고 바로 끄달리지 않는 도리를 알게 되고 업을 지니지 않는 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날 기복으로만 그저 밥이나 해 놓고 떡이나 해 놓으면 부처가 잘 먹는 줄 알지만 여러분의 부처가 다 먹어치우고 가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처가 "더 가져 오너라. 덜 가져 오너라. 많이 가져 오너라. 맛있는 거 가져 오너라. 다 내가 먹겠다." 이럽디까? 그러니 기복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 말들은 좋죠.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죠." 이런 말들이야, 뭐 누군 못합니까? 실천이 문제지. 그 근본의 실천이 문제입니다. 한걸음 한걸음 떼어 놓을 때 공짜로 떼어 놓지 말라 이겁니다. 말을 하면 그 뜻과 말과 행이 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자가발전소가 그대로 있으면서 가설이 된 데에 용도대로 자기가 스위치 눌러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의 능력을 기르시라 이 소립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인이요, 그것이 바로 자유인의 법칙이며, 그것이 부처며 그것이 보살의 행위며 그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부처는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 냈다 하면 법이고 법신이고 움죽거렸다 하면 화신인데 어째서 화신 따로 있고 법신 따로 있고 부처 따로 있습니까?

아니, 중생이란 이름 따로 있고 그렇게 이름이 많으나 그것은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서 조화를 이루려니까, 회전을 하려니까 이름을 지어 놓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두를 그렇게 해서 자유권을 얻으시려면 첫째 모든 건 주인공을 믿고, 자기 참주인공을 믿으셔야 합니다. 항상 얘기하죠. 주인공이란 꽉 찬 나라고. 그러니까 이 안테나와 같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거기에다 모든 것을, '안되는 것도 거기서밖에는 못해.' 하고 맡기고 또 되는 거는 감사하게 거기다 놓고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다면, 그러면서 부지런히 뛰면서 생각하고 그런다면 앞으로 머지않아서 그런 여건이 주어질 거라고 봅니다. 자기를 꼭 반드시 찾게 됩니다. 그것은 찾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병고에 휘달리는 것도 해결할 수 있고 또 '내가 자빠져도 코가 깨져. 왜 이렇게 안돼?' 그러는 것도 해결할 수 있고요. 껄껄 웃으면서 '참 즐겁구나.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즐거울 줄이야. 허무함이 없이 이렇게 즐거울 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갈 수 있는 그 느긋함이 생길 것입니다.

이 마음을 타파할 때에
삼세의 공한 마음이 탁 터지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문 기독교에서는 툭하면 마귀가 들어서 어떻다 저떻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라 헌금을 내라고 하던데 저는 그 소리가 정말 싫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도 마구니라는 말을 한다는 데 정말 그렇습니까?

답 마귀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마귀짓을 하니까 마귀라는 거지, 마귀라는 것은 없습니다. 기독교든 또 불교든 마귀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예수는 "나를 믿지 않고 타인을 믿는다면 마구니의 짓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다면 부처님은 "각자 너희들을 믿지 않는다면, 타인을 믿는다면 도깨비장난과 같으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독교에서 왜 그것이 걸리느냐? 그게 '각자'라는 소립 안 했기 때문이죠. 그냥 예수 한 분으로 알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내가 나부터 알아야 예수의 마음과 둘이 아니게 다 잘 알 텐데 나는 빼놓고 예수의 마음을 알려고 그러니 알아지나요? 전화통도 양면에 전화를 놔야 이게 오고 가고 통화가 되는 거지 한 쪽만 놓고는 통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은 공해서 고정됨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게 존재가 없다고요. 지금 댁의 몸뚱이 속에 있는 생명들을 따져 본다 하더라도, 지금 물 한 컵을 만약에 댁에서 먹는데 댁에서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댁의 몸속에서 제각기 다 그 물맛을 봤는데 혼자 먹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 같이 먹은 한 개체지. 그러니까 공했다는 얘기죠. 어떤 것이 따로 먹었다고 꼬집어서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는 '너부터 알라.' 했던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도리가 뭐냐 하면, 이거는 내 견해로 말하는 겁니다. 각자라는 소리를 안 한다면 모습으로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이름과 모습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진짜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찾게끔 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보라고 했지 누가 가짜를 보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진짜를 알아서, 내 진짜를 알라 이런 거지 너 가짜를 생각해서 내 가짜를 믿어라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구니라는 소리는 제각기 모두 자기 차원대로의 마구니라는 소리가 나오지, 나는 생각할 때 마구니라는 거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게 됐는데 강도가 우연히 살렸다 이런다면, 그 살려진 사람은 그 강도를 강도라고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모르니까 벌어지고 그러는 문제들이지 누가 나쁘고 좋고가 없다는 얘기죠.

모두가 사람이 살아나가려면 자기가 몰라서 저지르는 일도 있고 알면서도 어쩔 수 없어서 먹고살기 위해서 저질러지는 일도 있고 그런 것이지, 꼭이 이거는 나쁘고 마구니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전부 눈물이 있고 전부 기가 막힌 일이 있고 아픈 일도 많고, 어느 사람 속을 들여다볼 때마다 눈물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이러신 뜻은 그 '착한 일'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난 그렇게 봅니다. 그게 한마디 '착한 일 많이 해라.' 한 소리가 그 한마디가 아니라 천체가 거기 들어 있다고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든지 가톨릭교를 믿든지 또 불교를 믿든지 그거를 올바로 해라 이겁니다. '주님!' 하더라도 그 '주인공' 하거나 '주님' 하거나 똑같다. 그러니까 '주님' 하더라도 안으로 해야지 바깥으로 굴리지 말라. 모두 둥글려서 안으로 찾아라 이럽니다.

이 세상에 이 사람들 중에, 아니 미생물에서부터 인간까지 우리가 전부, 나무 한 그루도 모두 마구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마구니 있는 거 보셨습니까? 모두 참, 눈물겨운 일이 많아서 생기는 일들, 아파서 생기는 일들, 몰라서 생기는 일들, 상황이 어떻게 급급하게 돼서 생기는 일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모두 벌어지는 일들이지 마구니가 따로 있습니까, 어디? 이 세상에 마구니는 없습니다. 그저 불쌍할 뿐입니다.

중생의 참 고통을 모를 것 같아요

문 스님들은 결혼하신 분도 물론 계시지만 대개는 안 하시잖아요? 그러나 인생에 있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게 자식을 키우고 사람과 사람이 부딪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을 떠나서 혼자 수행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물론 그 수행의 여러 가지 모습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참 고통을 모르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 사실상 시집 장가를 안 간다, 이러한 뜻은 뭐냐 하면 인생이 한 철이라 영화배우들이 살다가 막을 내리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거든요. 그런데 그 한 생, 한 철을 살다가 모든 것을 연결지어서 착을 두고 사랑한답시고 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세세생생을 얻지 못해요. 영원한 자기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얘기죠. 그건 왜냐하면 마음은 벌써 자기 육신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우리는 공기주머니 안에서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으려면 한 생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중에는 다 얻어서 다 베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세세생생을 얻는 거죠. 얻으려고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자기가 미생물에서부터 둘이 아닌 까닭에 수없이 거쳐 오면서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어온 그 자체의 관계를 수없이 해 나왔거든요. 그 공부를 하다 보면 그거를 저절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만큼 그 고생을 하고 먹히고 먹고 이렇게 나왔다는 걸 알게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인간은 정신을, 정수를 뺏기고 산다. 또 뺏어먹는 놈이 있다. 뺏기고 먹고 이렇게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모습을 갖다가, 즉 말하자면 연구를 했지만, 지금은 정수를 빼다가 놓고 연구 대상을 삼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급하냐 이겁니다, 사람 사는 게.

자기 하나만이라도 벗어나야 자기가 인연됐던 그 무리들을 다 건질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아주 투철하죠. 칼을 뽑았으면 이 칼이 다 건질 수 있는 칼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느냐. 투철하게 양면을 놓고 그냥 자기를 바쳐 나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군더더기를 붙여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살얼음판을 딛고 가느냐, 또는 빌딩에 불이 났는데 지금 그 구멍을 찾아서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 있는데, 그 가운데서 불이 나서 구멍을 찾는데 장가들 생각이고 시집갈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거와 같은 것입니다.

한방(韓方)치료로
당뇨. 혈압. 비만

고치기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당뇨약 복용 또는 당뇨합병증으로
고통받는 분들
맞춤 한방치료로
상담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난치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본인 또는 가족으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문의하십시오

한솔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1127-중-6353호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불광불교대학
범음범패 제2기 학인모집
■ 교육기간 : 1년
■ 입 교 식 : 2010년 1월 25일(월요일) 오후 2시
■ 수업일시 : 주1회 / 매주 월요일 오후2시~6시
■ 교육내용
범 패 : 거불, 복청게, 가영, 향수나열, 도량게, 다게작법, 39위, 화청
작법무 : 천수바라, 사다라니, 법고
49재및 천도재
각단불공및 사찰의식 전과정
■ 입교자격 : 범음범패에 관심있는 승려 및 재가불자
■ 교육장소 : 대구시 동구 도동44번지 불광사 불교대학 선학원 학장 일해스님
접수및 문의 053)986-1080 011-9361-5566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불교상담개발원과 함께 하는

이럴 땐 어떻게 하죠?

Q 최근 1년간 상사와 관계가 좋지 못합니다. 십여 년 직장생활을 하며 업무나 대인관계 등 모나지 않게 생활해 온 저는 요즘 최대의 고비입니다. 근래는 얼굴 보는 것도 부담되는 실정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일도 한계에 이른 것 같고 전생에 무슨 악연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A 매일 얼굴을 봐야하는 직장 상사라서 업무적으로도 부딪히는 시간이 많을 텐데 정말 힘드시겠어요. 개인적인 관계는 몰라도 최소한 업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관계가 되어야 할 텐데요. 불편한 마음을 계속 억누르고 있으면 정신 건강에 아주 안 좋을 뿐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정말 걱정이네요.

조카 정신적인 문제에 굿하라 기도하라 어떻게?
조카는 심리치료 병행, 내담자는 정진 하세요

상사의 어떤 면이 맞지 않는지요. 혹시 의사표현을 한 적이 있는지요. 관계가 안 좋은 상사에게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자신의 의사 표현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건 어떨지요.

효과적인 자기표현은 상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배려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결과가 쉽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 해보면 상대도 인정을 하게 됩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말 일수도 있지만 스스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겪기도 하므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라고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문제 해결 방법 중 내담자분의 마음에 가장 편안한 방법을 선택해서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부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시는 불자이고 모나지 않게 생활하신 분이라니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Q 30세가 넘은 노총각 시댁조카가 몇 개월 전부터 이상해졌습니다. 정신과 진찰을 받으면서도 엄마와 의사에게 욕을 하고, 약 먹기도 거부합니다.

무엇보다 저희 집에 매일 오는데 많이 불안합니다. 성당에 다니시는 형님이 답답해서 점을 보러 갔는데 굿을 하라고 하고, 다른 철학관에서는 스님하고 의논하라고 하는군요.

A 집에 정신과 치료 중인 조카가 있어 매일 불안하고 걱정이 되시는 군요. 조카는 치료를 거부하는 안타까운 상태이구요. 가까운 친척이라 오지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점집에서는 굿을 하라고 하니 답답하시겠어요.

조카의 문제와 내담자분께서 가지시는 불안과는 서로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분리를 하셨으면 싶어요.

스님들께서는 속세에 사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여러 가지 좋은 법어를 해주시지만, 상황에 따라서 병리적일 경우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약물치료가 필요합니다. 조카 문제는 이미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태이니 잘 설득해서 심리치료를 병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집에 왔을 때 진심으로 걱정하고 이해해주셨으면 해요. 진심의 에너지는 힘든 조카에게도 전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조카의 상태가 어떤지 가늠하기가 어렵지만 입원하지 않은 상태라면 조카도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매우 불안하고 외로울 것 같아요.

형님과 내담자분께서는 나름의 방법으로 기도를 하시는 것이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군요. 기도로 힘이 생기시면 어려움을 극복하실 힘이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다행히 불자시니 가까운 사찰로 가셔서 기도수행 하시고 스님을 직접 찾아 가셔서 어려움을 의논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스님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올바르게 인도를 해주실 수 있을 테니까요. 또한 이번 기회에 조카에게도 기도 방법을 한 번 진지하게 권해보세요. 정신과 치료와 기도,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거지요. 불교의 수행 방법은 염불, 절 수행, 경전읽기, 사경, 참선 등 여러 방법이 있답니다. 자신에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면 도움이 될 것 같군요.?

아무쪼록 조카가 건강해지고 가족들도 편안한 마음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24시간 자비의전화 (02)737-7374, 737-1114
사이버상담 자비24 www.jabi24.org
청소년사이버 성상담 아하섹스 www.ahsex.org
후원계좌 001-01-2021-361
국민은행(예금주:사단법인 자비의전화)

"부처님 품에서 답답함 풀고 가요"

사랑법당 탐방

고봉중 · 고등학교
옛 서울 소년원


원생들이 상대방을 표현한 꽃을 그리며 이해심과 집중력 등을 키우고 있다.

자진회·불교여성개발원·봉원사 등 8개 팀이 교정활동
교계 도움 절실… 프로그램 다양화로 참여 늘릴 계획

흔히 소년원은 문제 있는 아이들이 사고 치고 잡혀 들어가는 곳으로 일반인에게 인식돼 있다. 누구나 겪는 청소년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지 않은 이가 있을까.

죄를 지은 불량학생을 가둬놓는 곳이 아닌 잠시 방황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끄는 이 곳에 이인자 불교여성개발원 前 원장을 비롯한 불교여성개발원 교화팀(팀장 윤순욱)이 찾았다.

1월 13일 찾은 구봉중 · 고등학교로 불리는 옛 서울소년원은 바뀐 이름과 같이 겉으로 보기에도 '학교'의 느낌이 강했다. 구봉중고는 산이 있는 좋은 전경에, 운동장을 가운데 두고 2층 정도의 나지막한 건물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하얗게 쌓인 눈으로 운동장에는 운동하는 아이들을 볼 수는 없었지만 축구동아리 등 여느 학교와 다름없는 활동이 진행된다.

"여타 교정시설과 달리 일반학교와 조금 다른 특수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찾은 교화팀을 위해 불교자진회 김춘자 지도위원은 친절한 설명을 덧붙였다. 어머니들이 자진해서 모였다는 자진회는 10년 전부터 구봉중 · 고에서 교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불교여성개발원 교화팀의 이번 방문은 자진회 회장이 올해 열반에 들며 도움을 필요로 한 자진회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윤순욱 팀장을 비롯한 교화팀이 서울구치소와 김천소년원 등에서 10년 넘게 활동한 경험을 활용코자 함이다.

구봉중 · 고에는 10년 넘게 불교반 담당으로 활동해 온 구동중 · 고 지도위원회 이기풍 부회장을 비롯해 자진회, 대원불교문화대학 법사단, 신촌 봉원사 스님 등 8개 팀이 교정활동을 번갈아 진행하고 있다. 여성개발원 팀이 찾은 이날은 일 년 중 여름과 겨울 두 번 있는 불교계절학교의 셋째 날이었다. 불교 · 가톨릭 · 개신교 · 원불교의 계절학교 외에는 매주 토 · 일요일 종교 활동이 실시된다.

운동장을 가로질러 교육원 입구에서 철문과 보안장치를 통과해서야 이곳이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 들어서자 오른쪽에는 '마음을 찾는 곳'이란 명패가 교화팀을 맞이했다.

'마음을 찾는 곳', 불교반은 단순한 종교공간의 개념을 넘어선다. 빡빡한 교과 일정 등에서 마음 편히 지도법사에게 걱정들을 털어놓으며 학우들과 어울릴 수 있는 소중한 곳이다. 그래서일까 각 종교 활동에는 참석률이 매우 높다.

대원불교대학 이종삼 지도위원, 박수찬 지도위원, 자진회 김춘자 지도위원, 여성개발원 교화팀이 함께 진행한 이날 불교반에는 12명의 원생들이 참석했다. 건물 중 유일하게 바깥으로 창살이 없는 작은 방은 부처님처럼 머리를 빡빡 깎은 원생들로 꽉차 아늑했다.

"부처님은 태어나실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셨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과 땅 아래 스스로가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법회에서 이인자 前 원장은 부처님 탄생게를 중심으로 원생들에게 법문했다.


이인자 前 불교여성개발원 원장은 이날 부처님 탄생게를 주제로 상생의 언행을 법문했다.

이 前 원장은 "주변을 돌아보세요. 자신이 존귀한 만큼 다른 이도 존귀한 것이다"며 "사회에서 생활할 때 부모님, 친구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나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前 원장의 법문에 이어 김승목 중앙대 교수의 미술치료가 진행됐다.

"옆 친구들과 등을 맞대고 서로에게 의지해 보세요. 그 느낌을 꽃으로 표현해보세요."

김 교수의 지도에 그림을 그리려 하지 않던 산만한 아이들도 이내 집중했다. 이어 그린 꽃마다 제목을 붙이고 짝의 장단점을 적어 소개하는 자리가 진행됐다.

미술치료와 함께 다과 시간도 이어져 스스럼 없는 대화가 오갔다.

사회에 있을 때 부모님과 함께 절에 다닌 인연으로 불교반을 택했다는 L(17)군은 "여기에 오면 답답한 것도 풀리고 친구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릴 수 있어 좋다"며 "사회에 나가면 절에 계속 다닐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소가 3개월 남은 K(19)군은 "1년 넘게 생활하는 동안 불교반에 꾸준히 왔는데 생각을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지난 시간이 너무 아까워 자격증도 땄지만 나가서 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며 수줍게 자신의 꿈을 밝혔다.

이종삼 법사는 이 자리에서 "원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법회를 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며 "원생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애로점을 토로했다.

각 팀들의 노력에도 불교반은 100명씩 젊은 친구들이 찾아오는 기독교반에 비해 인적 · 물적으로 열세였다.

이기풍 부회장은 불교반 현황에 대해 "노래방을 설치하는 등 아이들이 편히 쉬다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불교계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불교여성개발원 교화팀은 이날 이러한 요청에 따라 매월 미술치료,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집단상담 등을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또 각 팀간 정기모임을 갖고 교류와 협력도 증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회에 나가서 자리를 잡아 어엿한 어른으로 다시 찾아오는 원생들이 있어요. 그럴 때 마다 보람과 힘을 느낍니다."

말썽꾸러기로 평가 받던 청소년들은 이기풍 지도위원의 말처럼 불교 각계의 불심에 힘입어 다시금 대한민국의 미래로 성장할 것이다. 두터운 철문을 뒤로 한 길이 불심으로 변모하는 원생들이 있어 뜨거웠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대한불교 연합조계종

총무원장 혜일

원로의장 만월　원로위원 도명 오성 진관 각성
종회의장 덕산

포교원장 무제　행정원장 청명　대외협력원장 지운　복지원장 혜득
기획원장 도도　특임원장 무심　무술원장 풍운　의전원장 혜도
총무원부원장 정호　총무원부원장 명진　교육원부원장 무변　문화원부원장 혜인

서울종무원장 무비　경기종무원장 도법　대구종무원장 성련　강원종무원장 삼광
충청종무원장 정화　전남종무원장 문정

규정부장 도천　사회부장 홍일　공보부장 보혜　복지부장 행적
기록부장 정연　행사부장 대도　의전부장 도원　포교부장 천약

이외 종도일동

법사 법안,무계　사무국장 문광　고문 양태창(KNB방송사장)
자문위원 추당(화가) 구한경 권종현 손은주 만송(기자)

경인년 신년 새해를 맞아 온 누리에 부처님의 법향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종단은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말씀에 따라 생활속에서 불법을 널리 펼쳐
불국정토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총무원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 2동 1928-13 (1층) 전화 (直) 0502-666-5000 / 팩스 053) 655-3222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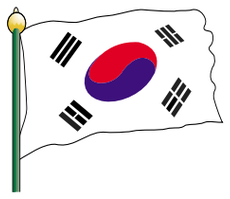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 주름등·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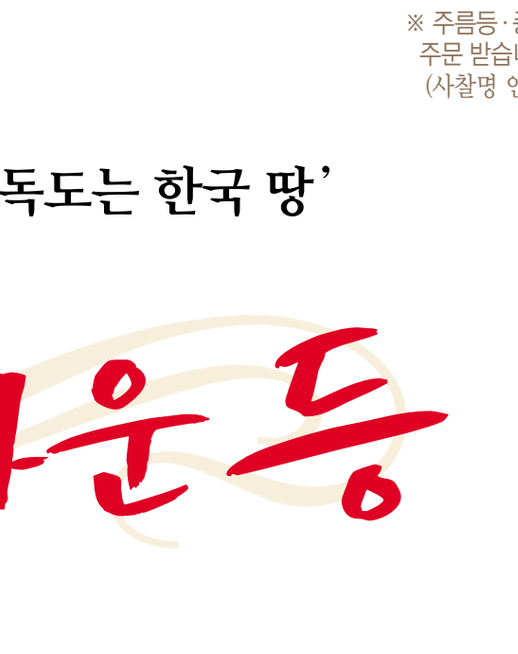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 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오색공단등



팔각봉축접등





왕생극락접등



칼라(보카시)연등

주름등









공단등



영가등



종등



종등

전선(케이블)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원하시는 사찰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해 드립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여래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대구 파계사 원통전 천장 전기공사 및 연등 시공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전선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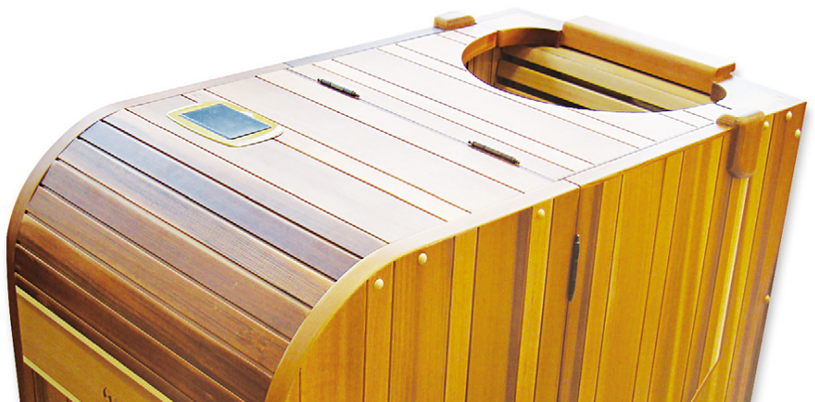
연등 설치 후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붓다'의 선물! 물 없이 아낌없이 즐기는~
보리수 반신욕



온 식구가 평생 쓰는 반신욕! 산림욕!

상체는 차갑게, 하체는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두한족열로 전신의 균형을 잡아주는 웰빙 반신욕입니다.
물이 필요없이 아낌없이 즐기는 반신욕으로 심신을 맑고 밝게 더 향기롭게 가꾸시기 바랍니다.

상품종류

· 순금붓다 반신욕 (규격 L 1000 × W 580 × H 710) 3,650,000 ➪ **'10대 한정'**
· 보리수 반신욕 (규격 L 1000 × W 580 × H 710) 2,530,000

몸과 마음을 씻음으로 '성불' 하시길 기원합니다.